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야기가 있는 보호수 — 2

2021



산림청

이야기가 있는 보호수 2

THE STORIES OF VETERAN TREES



산림청

THE STORIES OF VETERAN TREES

이야기가 있는 보호수

2



일러두기

1. 본 서적에 수록한 주요 표제어는 100종류이며, 표제어는 산림청의 2024년 연구(과제) 용역인 '보호수 자료수집 및 콘텐츠 개발'에서 선정한 느티나무, 은행나무, 소나무 등 대한민국 100본(개소)의 대표 선정 보호수이다.
2. 2024년 보호수 100선정의 배열은 한반도의 위쪽에서 아래 권역(수도권, 강원지역, 충청지역, 전라지역, 경상지역, 제주지역) 순으로 하였다.
3. 그리고 권역 내의 보호수 배열은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시, 군 순이며, 그 이하의 배열은 주소(소재지)의 한글 자모 순으로 하였다.
4. 보호수의 해설(이야기 내용)은 수령(나무나이), 수고(높이), 흉고둘레(가슴높이둘레) 등의 개체 정보를 우선적으로 축약하여 소개한 후에 민속, 문화, 역사 등의 이야기 및 설화 등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간결하게 밝혔다.
5. 또한 이야기 내용은 현지 주민의 인터뷰, 안내판, 해당기관의 채록 자료, 매스컴 소개, 문헌자료 등을 종합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6. 보호수의 위치정보는 해당기관의 공개자료 주소(도로명 또는 지번명)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좌표위치(GPS)는 도분초 단위로 하였다. GPS 좌표 탐색 시스템은 'Magellan explorist' 기기 및 핸드폰 'GPS data' 어플을 함께 사용하여 오차범위를 최소화하였다.
7. 보호수의 수령, 수고, 흉고둘레는 거의 대부분 해당기관의 공개자료를 참고하여 2024년 시점에 맞추었다. 즉 수령은 지정일 기준에서 현 시점 기준으로 바꾸고 전승내용, 주민채록 등을 폭 넓게 적용하였다. 보호수의 높이, 흉고둘레는 현 시점의 연구(과제)조사 실측자료를 사용하였다.
8. 정량적 측정치(수령, 수고, 흉고둘레, GPS 좌표 등)는 조사자의 측정기준점, 조사방법 등에 따라 차이를 나타날 수 있으므로 그 차이가 오차범위를 훨씬 벗어날 경우 추후 수정할 예정이다.
9. 본 서적에 소개한 보호수는 2016년 대한민국 보호수 100선정과 중복되지 않게 2024년에 새롭게 선정한 100선정이다.

발간사

오랜 시간을 견디며 살아온 보호수는 지난 세월의 증인이자 다양한 이야기를 품은 역사적인 자산입니다. 우리나라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보호수는 사람과 마을, 그리고 자연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공존의 역사와 문화를 품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이야기가 있는 보호수 2'는 전국의 보호수 중 이야기와 전설을 간직한 나무들을 선정해 그 안에 담긴 기억과 의미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보호수의 식물로서의 가치뿐 아니라, 사람들과의 연결, 보호수가 지켜낸 시간의 흔적을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보호수는 단순히 오래된 나무가 아닌 지역사회의 중심에서 사람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공동체의 일원이자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산물입니다.

어떤 보호수는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겨져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신목이 되었으며, 어떤 나무는 전쟁이나 재해 속에서 사람들에게 피난처와 희망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보호수에는 생태적 가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간직하고 싶은 이야기와 희망이 깃들어 있습니다.

오늘날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해 보호수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보호수는 단순히 오래된 나무가 아닌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자연과의 조화를 일깨워 주는 살아있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이 나무들을 통해 자연의 가치를 되새기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산림문화 자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주군에 있는 어느 보호수 앞 표지석의 문구가 마음을 울립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 땅에 일어났던 모든 재난 속에서도 오직 당신을 위해 의연히 서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아끼고 사랑해 주신다면 당신과 당신의 후손들 곁에서 억겁을 살으렵니다.'

이 책을 통해 보호수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 담긴 소중한 이야기를 느끼며, 자연의 소중함을 다시금 되새기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보호수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보존되고 보다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Contents

프롤로그 6

제1장 수도권 18

제2장 강원지역 60

제3장 충청지역 84

제4장 전라지역 130

제5장 경상지역 174

제6장 제주지역 230

참고문헌 242

Prologue

본 서적은 2024년 산림청의 연구(과업)의 결과물 중 일부이다. 2016년의 명목 보호수에 이어서 펴낸 보호수 100선을 수록한 책이다. 특히 이번에 펴낸 책은 명목 중심이 아니라 기존 100본(개소) 이외의 보호수 중 인문학적 가치가 우수한 수종의 이야기 자료집이다. 이에 본 텍스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보호수의 정의, 보전 및 관리 근거, 보호수 지정 현황, 2024년 보호수 100선을 간략하였다.



보호수의 이해

보호수는 번식이나 풍치 보존 및 학술 참고를 위하여 보호하는 나무이다. 즉 '산림보호법' 등에 따라 보존 및 증식의 가치가 있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이다. 지정 목적은 생물 수종의 유전자와 종 또는 자연생태계 등의 보전 및 관리이다. 보호수의 관련 법령은 산림보호법, 지방자치단체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 · 관리 조례, 보호수 등 보호관리 조례 등이다.

보호수의 유형 구분 및 정의

구분	유형	정의
일반	노목老木	생장 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늙은 나무
	거목巨木	굵고 큰 나무
	희귀목稀貴木	매우 드물고 귀한 나무
세부	명목名木	어떤 역사적인 고사나 전설 등의 유래가 있어 이름난 나무이거나 성현, 왕족, 위인들이 심은 것으로 알려진 훌륭한 나무
	보목寶木	역사적인 고사나 전설이 있는 보배로운 나무
	당산목堂山木	제를 지내는 성황당, 산신당, 산수당에 있는 나무
	정자목亭子木	향교, 서당, 서원, 사정, 별장, 정자 등에 심은 나무
	호안목護岸木	해안, 강안, 제방을 보호할 목적으로 심은 나무
	기형목畸型木	나무의 모양이 정상이 아닌 기괴한 형상의 관상가치가 있는 나무
	풍치목風致木	풍치, 방풍, 방호의 효과 및 명승고적의 정취 또는 경관유지에 필요한 나무

보호수 보전 및 관리

보호수와 관련한 제반 사항은 '산림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보호수의 지정권자는 시 ·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다.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르면 시 ·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고 있다.

시 ·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를 현재 있는 장소에서 여러 이유 때문에 안전하게 관리하기가 어려울 때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관리할 수 있다(산림보호법 제13조의2). 또한 시 ·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인한 소실燒失, 손상 등으로 지정 목적이 소멸되었거나 지정 목적에 미달된 경우에는 보호수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산림보호법 제13조의4).

그리고 시 ·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의 지정 · 지정해제 및 이전 등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호수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산림보호법 제13조의5).

이밖에도 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산림보호법 제13조의3) 및 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산림보호법 제13조의6)에 관한 규정도 있다.

보호수 현황

2023년 대한민국 전체 보호수는 13,870본(그루)이다.

산림청 지정의 보호수는 북부산림청이 9본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남부산림청 6본, 서부산림청 5본, 중부산림청 2본이다. 그리고 시도 지정의 보호수는 전남이 4,161본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북 1,951본, 충남 1,816본, 충북 1,208본, 경기도 1,049본, 경남 912본, 강원 705본, 전북 653본, 대구 331본, 부산 229본, 서울 202본, 제주도 158본, 대전 122본, 인천 116본, 울산 79본, 광주 81본, 세종 75본이다.

수종별 보호수는 느티나무가 7,238본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소나무류(반송, 금강소나무 등 포함) 1,786본, 팽나무 1,332본, 은행나무 767본, 버들류(왕버들, 버드나무 등) 579본, 회화나무 361본, 향나무 236본이며, 그 밖의 기타(느릅나무, 녹나무, 이팝나무 등) 1,571본이다.

2023년 전체 보호수 현황 (단위 : 본)

구분	합계	느티나무	소나무류	팽나무	은행나무	버들류	회화나무	향나무	기타
계	13,870	7,238	1,786	1,332	767	579	361	236	1,571
시도 계	13,848	7,238	1,773	1,332	767	579	361	235	1,563
서울특별시	202	98	8	–	48	–	17	13	18
부산광역시	229	14	148	34	3	–	8	–	22
대구광역시	331	147	19	36	25	21	26	2	55
인천광역시	116	58	11	6	21	–	6	6	8
광주광역시	81	39	5	11	5	13	1	–	7
대전광역시	122	88	12	2	6	9	2	1	2
울산광역시	79	8	16	9	1	2	7	1	35
세종특별자치시	75	46	1	2	9	10	–	3	4
경기도	1,049	602	30	8	205	2	36	98	68
강원도	705	201	174	2	40	–	5	9	274
충청북도	1,208	694	270	15	62	34	7	24	102
충청남도	1,816	1,181	154	82	99	111	23	25	141
전라북도	653	456	55	40	34	30	5	2	31
전라남도	4,161	2,127	522	786	78	195	28	10	415
경상북도	1,951	1,004	248	66	84	129	175	38	207
경상남도	912	475	68	135	46	23	14	3	148
제주특별자치도	158	–	32	98	1	–	1		26
산림청 계	22	–	13	–	–	–	–	1	8
북부지방산림청	9	–	3	–	–	–	–	–	6
동부지방산림청	–	–	–	–	–	–	–	–	–
남부지방산림청	6	–	4	–	–	–	–	1	1
중부지방산림청	2	–	2	–	–	–	–	–	–
서부지방산림청	5	–	4	–	–	–	–	–	1

2024년 보호수 100선정

선정 과정

보호수 100선정 과정은 관련 기관(지방산림청 및 지자체)의 자료 협조 및 분석으로 시작하였으며, 그 진행은 선행과정, 선별과정, 조사과정, 평가과정으로 수행하였다.

선행과정

자료에 나타난 대한민국 13,000여 보호수 중에서 이야기의 설화, 민속, 역사, 문화 등을 지닌 보호수 1,000여 본(개소)을 1차로 선정하였다. 여기에서의 이야기는 관련 기관의 관리목록에 기록된 것을 기준하였다.

선별과정

선행과정에서 얻은 1,000여 본 중에서 설화 중심의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200~250여 본을 2차로 선정하였다.

선별과정의 지역별 안배는 각도별(8개) 각각 10% 정도, 서울 및 광역시 15% 정도, 제주도 5% 정도를 임의로 설정하였다. 또한 선별과정은 2차로 선정한 200~250여 본 중에서 지역별(행정구역 도단위 등)에다 유형별(노목, 거목, 희귀목, 명목 등) 및 수종별(느티나무, 은행나무, 소나무 등) 고려하여 150여 본을 3차로 선정하였다. 수종별 안배에서는 가능하면 다양한 수종을 선정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보호수 50% 이상을 차지하는 느티나무의 비율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데 역점을 두었다.

조사과정

3차로 선정한 150여 본(개소)에 대한 현지 답사 및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보호수의 성상, 생육, 환경, 사진자료 등을 획득하였다.

평가과정

현지 조사를 마친 150여 본에 대하여 문헌 조사를 추가한 후 평가(연구팀 설정의 평가표 기준)하여 100본을 4차로 최종 선정하였다.

평가 선정

4차 선정의 평가는 문헌 조사보다 현지 조사의 야장(조사표) 기록을 우선하였으며, 현지 조사한 야장 기록은 평가표 점수 환산 및 자문위원(연구팀 포함)의 논의에 활용하였다. 특히 평가 선정은 100본 중 평가표 점수에 의한 선정 80여 본, 과제 연구팀(자문위원 포함)에 의한 선정 20여 본으로 하였다. 과제 연구팀 선정은 평가표 점수를 참고하여 예외로 특별한 보호수라고 판단되는 경우(수종, 유형, 비율 및 지역 안배 등을 위하여 정성적 평가)에 해당하였다.

평가 선정 특이사항

기존(2016년) 보호수 100선정은 명목이거나 수형이 우수한 수종을 위주로 선발하였으나 2024년 선정은 기존 100본(개소) 이외의 보호수 중 이야기 중심의 인문학적 가치가 우수한 수종을 선발하였다.

보호수의 권역별 및 수종별 100선정 최종

권역별 보호수는 수도권 19본(개소), 강원지역 10본, 충청지역 21본, 전라지역 20본, 경상지역 26본, 제주지역 4본이다. 보호수종은 모두 17종이며, 느티나무가 37본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은행나무(23본), 소나무(10본), 팽나무(6), 회화나무, 향나무와 왕버들(각각 4본), 음나무(3본), 곰솔, 굴참나무, 녹나무, 배롱나무, 비술나무, 비자나무, 주목, 탱자나무, 후박나무(각각 1본)이다.

2024년 대한민국 보호수 100선정의 권역별 현황

구분	수도권	강원지역	충청지역	전라지역	경상지역	제주지역	합계
본(개소)	19	10	21	20	26	4	100

2024년 대한민국 보호수 100선정의 수종별 현황

수종명	본	수종명	본	수종명	본	수종명	본	수종명	본
느티나무	37	회화나무	4	곰솔	1	비술나무	1	후박나무	1
은행나무	23	향나무	4	굴참나무	1	비자나무	1		
소나무	10	왕버들	4	녹나무	1	주목	1		
팽나무	6	음나무	3	배롱나무	1	탱자나무	1		

2024년 보호수
100선정의 수종 설명

ㄱ

곰솔
Pinus thunbergii Parl.



소나무과의 교목이다. 높이 30m 정도이다. 나무껍질은 어두운 갈색이며 갈라진다. 잎은 2개씩 묶어난다. 잎몸은 바늘잎이며 진한 녹색이다. 꽃은 5월에 핀다. 열매는 50~60개의 작은 실편으로 이루어졌으며 길이 4~6cm, 너비 3~4cm이다. 열매는 다음해 9월에 익는다. 주로 중부 이남의 바닷가에서 자란다. 한자로 해송海松, 흑송黑松이라 쓴다. 소나무와 다른 점은 나무껍질이 검은빛이며, 잎이 길고 굵으며 진한 녹색이고, 겨울눈이 흰빛이다.

굴참나무
Quercus variabilis Blume



참나무과의 교목이다. 높이 25m 정도이다. 나무껍질은 코르크질이 두껍게 발달하였다. 잎은 어긋난다. 잎몸은 타원형이며 잎뒷면에 털이 빽빽이 나서 회백색으로 보인다. 잎자루는 길이 3cm 정도이다. 꽃은 5월에 핀다. 수꽃차례는 새가지 아래에 달리고, 암꽃차례는 위쪽의 잎겨드랑이에 달린다. 열매는 타원형이며 다음해 9~10월에 익는다. 산기슭에 자란다. 나무껍질의 코르크는 병마개로 쓰고, 열매는 먹거나 약용으로 이용한다.

ㄴ

녹나무
Cinnamomum camphora (L.) J.Presl



녹나무과의 상록활엽교목이다. 높이 20~50m이다. 수피는 밤색 또는 짙은 회색이다. 잎은 어긋나며, 잎몸은 넓은 난형(달걀꼴)이고 길이 5~9cm, 너비 3~6cm로서 잎줄이 3갈래이다. 꽃은 5~6월에 연한 누런빛으로 피며, 원추꽃차례로 달린다. 꽃덮이조각(화피편)은 넓은 타원형이며 3장씩 2줄로 배열한다. 열매는 물열매(장과)이고 둥글며 검게 익는다. 한자로 장뇌목樟腦木 등으로 쓴다. 제주도 등 따뜻한 지역에 자란다. 목재는 세공재로 이용한다.

느티나무
Zelkova serrata (Thunb.) Makino



느릅나무과의 교목이다. 높이 25m 정도이다. 나무껍질은 회갈색이다. 잎은 어긋난다. 잎몸은 장타원형이며 길이 13cm, 너비 5cm로서 잎가장자리에 톱니가 있다. 꽃은 4~5월에 핀다. 열매는 가을에 갈흑색으로 익는다. 어린잎은 먹을 수 있다. 가로수로 이용되며, 그늘을 넓게 만들므로 흔히 마을의 정자목으로 많이 심었다. 양반은 느티나무로 지은 집에서 느티나무 가구를 이용하며 살다가 느티나무 관에 실려 저승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다.

ㅂ

배롱나무
Lagerstroemia indica Linne



부처꽃과의 상록활엽아교목이다. 높이 3~7m이다. 줄기껍질은 붉은 갈색이고 벗겨지면 흰빛이며 밋밋하다. 잎은 마주나거나 가지 끝에서 어긋나며, 잎몸은 타원형 또는 도란형이다. 꽃은 7~9월에 붉은빛, 보랏빛, 흰빛 등으로 피며, 가지 끝에 원추꽃차례에 오랫동안 달린다. 꽃잎은 6장이고 끝이 주름진다. 열매는 둥글고 익으면 6갈래로 갈라진다. 씨에 날개가 있다. 한자로 자미화紫薇花 등으로 쓴다. 중국 원산이다. 관상용으로 심어 기른다.

비술나무
Ulmus pumila Linne



느릅나무과의 낙엽활엽교목이다. 높이 15~20m이다. 수피는 어두운 회색이고 세로로 불규칙하게 갈라진다. 잎은 어긋나며, 잎몸은 타원형이고 길이 2~7cm, 너비 2~2.5cm로서 털이 없다. 잎가장자리에 겹톱니와 홑톱니가 섞여 있다. 측맥은 보통 10~17쌍이다. 꽃은 3~4월에 잎보다 먼저 나오며, 잎겨드랑이에 여러 개가 모여 달린다. 열매는 날개처럼 납작하게 둥글며, 털이 없다. 씨는 열매의 중앙에 있다. 중부 이북에 강가나 산기슭, 들에 자란다.

2024년 보호수 100선정의 수종 설명

ㅂ

비자나무
Torreya nucifera (L.) Siebold et Zucc.



주목과의 교목이다. 높이 25m 정도이다. 나무껍질은 회갈색이며 오래되면 얕게 갈라져서 떨어진다. 잎은 바늘잎이고 깃꼴처럼 2줄로 배열한다. 잎몸은 길이 25mm, 너비 3mm 정도이고 끝이 뾰족하다. 잎은 6~7년 만에 떨어진다. 꽃은 단성화이며 4월에 핀다. 열매는 타원형이며 다음해 9~10월에 익는다. 종자는 타원형이고 다갈색이며 껍질이 딱딱하다. 가지를 꺾어 집에 두면 액운이 없어진다는 속설이 있다. 기생충을 구제하고 기침을 멎게 한다.

ㅅ

소나무
Pinus densiflora Siebold & Zucc.



소나무과의 교목이다. 높이 25m 정도이다. 잎은 2개씩 묶어난다. 잎몸은 바늘모양이고, 끝이 뾰족하다. 암수 한그루이다. 꽃은 5월에 핀다. 열매는 난형이며 길이 4~5cm, 너비 3~3.5cm로서 황갈색을 띠며, 각 실편에 타원형 종자가 들어 있다. 종자에 날개가 있다. 적송赤松, 육송陸松이라 쓴다. 대한민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이다. 한민족을 상징하는 나무이다. 송순, 송화, 송엽, 송진 등은 약용한다. 오래 사는 나무 중의 하나이다.

ㅇ

왕버들
Salix chaenomeloides Kimura



버드나무과의 교목이다. 높이 20m 정도이다. 나무껍질은 회갈색이고 깊게 갈라진다. 잎은 어긋난다. 잎몸은 장타원형이며 턱잎이 있고, 어릴 때에 붉은빛이 돈다. 암수 딴그루이다. 꽃은 4월에 핀다. 수꽃차례는 위를 향하며, 암꽃차례는 위로 비스듬히 선다. 각각의 열매는 달걀꼴이며 5~6월에 익는다. 키가 크고 잎도 버드나무에 비하여 넓어서 왕버들의 이름이 생겼다. 습지나 냇가에서 자란다. 개천 마을의 정자목처럼 자라는 것이 많다.

은행나무
Ginkgo biloba Linne



은행나무과의 교목이다. 높이 30m까지 자란다. 껍질은 회색이 돌고 골이 패어 있다. 잎은 긴 가지에서 어긋나며 갈라지고, 짧은 가지에서 모여나기도 하며 잎가장자리가 대체로 밋밋하다. 잎몸은 부채모양이다. 가을에 노랗게 물든 단풍이 아름답다. 암수딴그루이다. 꽃은 5월에 핀다. 암꽃은 3mm 내외이고, 수꽃은 꼬리꽃차례로 달린다. 열매(실제 종자)는 10월에 익는다. 종자는 은행銀杏이라 한다. 절의 뜰에 심었다. 오래 사는 나무로 유명하다.

음나무
Kalopanax septemlobus (Thunb.) Koidz.



두릅나무과의 교목이다. 나무껍질은 회갈색 또는 흑갈색이고, 가지는 가시가 있다. 잎은 어긋난다. 잎몸은 길이와 너비가 각각 10~30cm이며, 5~9개로 깊게 갈라진다. 잎조각은 달걀 꼴 또는 타원형이며, 잎가장자리에 톱니가 있다. 꽃은 7~8월에 황록색으로 핀다. 열매는 가을에 검은빛으로 익는다. 새순은 식용하며, 약으로 쓸 때는 탕으로 하거나 술을 담근다. 농촌에서는 잡귀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음나무 가지를 대문에 꽂아 두는 풍습이 있었다.

ㅈ

주목
Taxus cuspidata Siebold &Zucc.



주목과의 상록침엽교목이다. 높이 17m, 지름 1m 정도이다. 줄기는 큰 가지와 더불어 적갈색이고, 가지가 옆으로 퍼진다. 잎몸은 선형(줄꼴)이며, 길이 1.5~2cm 정도이며, 잎끝이 갑자기 뾰족해진다. 잎뒷면은 누런빛의 2줄이 있다. 꽃은 암수가 한 나무에 달리고 4월에 핀다. 수꽃은 6개의 인편(비늘조각)으로 둘러싸이고, 암꽃은 10개의 인편으로 싸인다. 열매(실제 종자)는 8~9월에 붉은빛으로 익는다. 높은 산에 자란다. 약용, 가구용, 조경용 등으로 이용한다.

2024년 보호수 100선정의 수종 설명

ㅌ

탱자나무
Poncirus trifoliata (L.) Raf.



운향과의 낙엽 활엽 떨기나무다. 높이 3m 정도이다. 가지는 다소 편평하고 녹색이며, 굳센 가시가 발달한다. 잎은 어긋나고 손바닥 모양의 3출겹잎이다. 잎몸은 가죽질이고 타원형이며 길이 3~6cm이다. 잎자루는 좁은 날개가 있다. 꽃은 5~6월에 흰빛으로 피며, 가지 끝과 잎겨드랑이에 1~2개씩 달린 다. 열매는 둥글고 9월에 노란빛으로 익으며, 향기가 좋다. 한자로 구귤枸橘 등으로 쓴다. 중국 원산이다. 열매는 약재로 이용한다.

ㅍ

팽나무
Celtis sinensis Pers.



느릅나무과의 교목이다. 높이 20m, 지름 1m 정도이다. 나무껍질이 회갈색이다. 잎은 어긋난다. 잎몸은 타원형이고 길이 4~11cm, 너비 3~5cm로서 잎가장자리의 위쪽에 톱니가 있다. 꽃은 잡성화이며 5월에 핀다. 열매는 둥글고 지름 7~8mm로서 10월에 황적색으로 익는다. 과육은 달고 먹을 수 있다. 대한민국의 정자나무 중 느티나무 다음으로 많이 심어져 있다. 옛 사람들은 마을의 큰 팽나무를 신목神木으로 여겨 숭배하기도 하였다.

ㅎ

향나무
Juniperus chinensis Linne



측백나무과의 교목이다. 높이 15~25m이다. 식물체는 향기를 낸다. 나무껍질은 회갈색 또는 적갈색이다. 잎은 흔히 어린 가지의 바늘잎과 묵은 가지의 비늘잎이 달린다. 암수딴그루이다. 꽃은 4월에 핀다. 수꽃은 가지 끝에 달리며 타원형이고, 암꽃은 가지 끝이나 잎겨드랑이에서 달리며 동그랗다. 열매(실제 종자)는 다음해 10월에 익는다. 관상용, 약용, 향료용, 조각재 등으로 널리 이용되었다. 울릉도에 2,000년이 넘은 것이 있을 정도로 오래 산다.

회화나무
Sophora japonica Linne



콩과의 교목이다. 높이는 25m에 달하고, 소지는 녹색이며 자르면 냄새가 난다. 잎몸은 어긋나고 15~40개의 작은잎으로 구성된 깃꼴겹잎이다. 꽃은 여름에 황백색으로 핀다. 열매는 잘록한 꼬투리이며, 길이 5~8cm이다. 중국 원산이며, 북경의 가로수로 많다. 괴목槐木 등으로 쓴다. 학자수學者樹 (Chinese Scholar Tree)라 하여 선비가 살던 집이나 무덤 주위에 심었다. 또한 집안의 평안과 잡귀신을 막기 위하여 대문 앞에 심기도 하였다.

후박나무
Machilus thunbergii Siebold et Zuc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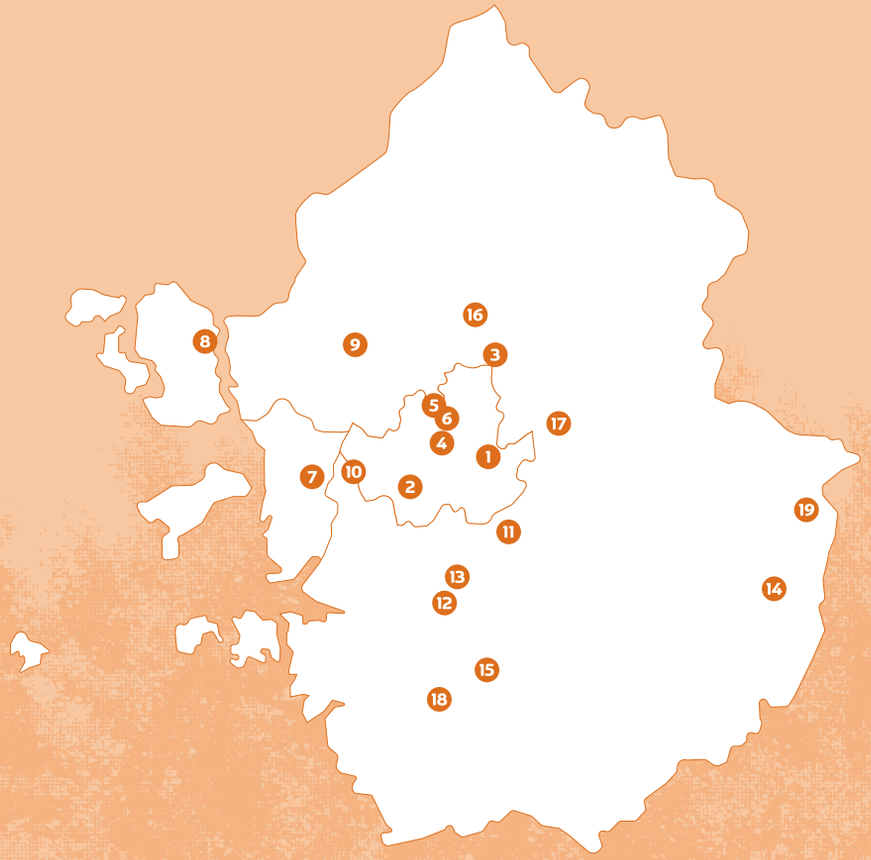
녹나무과의 교목이다. 높이 20m, 지름 1m 정도이다. 나무껍질은 회색 또는 회갈색이다. 잎은 어긋난다. 잎몸은 위쪽이 넓은 타원형이고 잎가장자리가 밋밋하다. 꽃은 5~6월에 황록색으로 피며, 잎겨드랑이에 무리로 달린다. 꽃덮이는 6개이다. 열매는 둥그스름하며 다음해 여름에 흑자색으로 익는다. 한반도의 남쪽 지방에 자란다. 흑비둘기가 둥지를 트는 나무이다. 나무껍질은 건위제, 치습제로 쓴다. 울릉도 호박엿을 만들 때에 넣기도 하였다.

Chapter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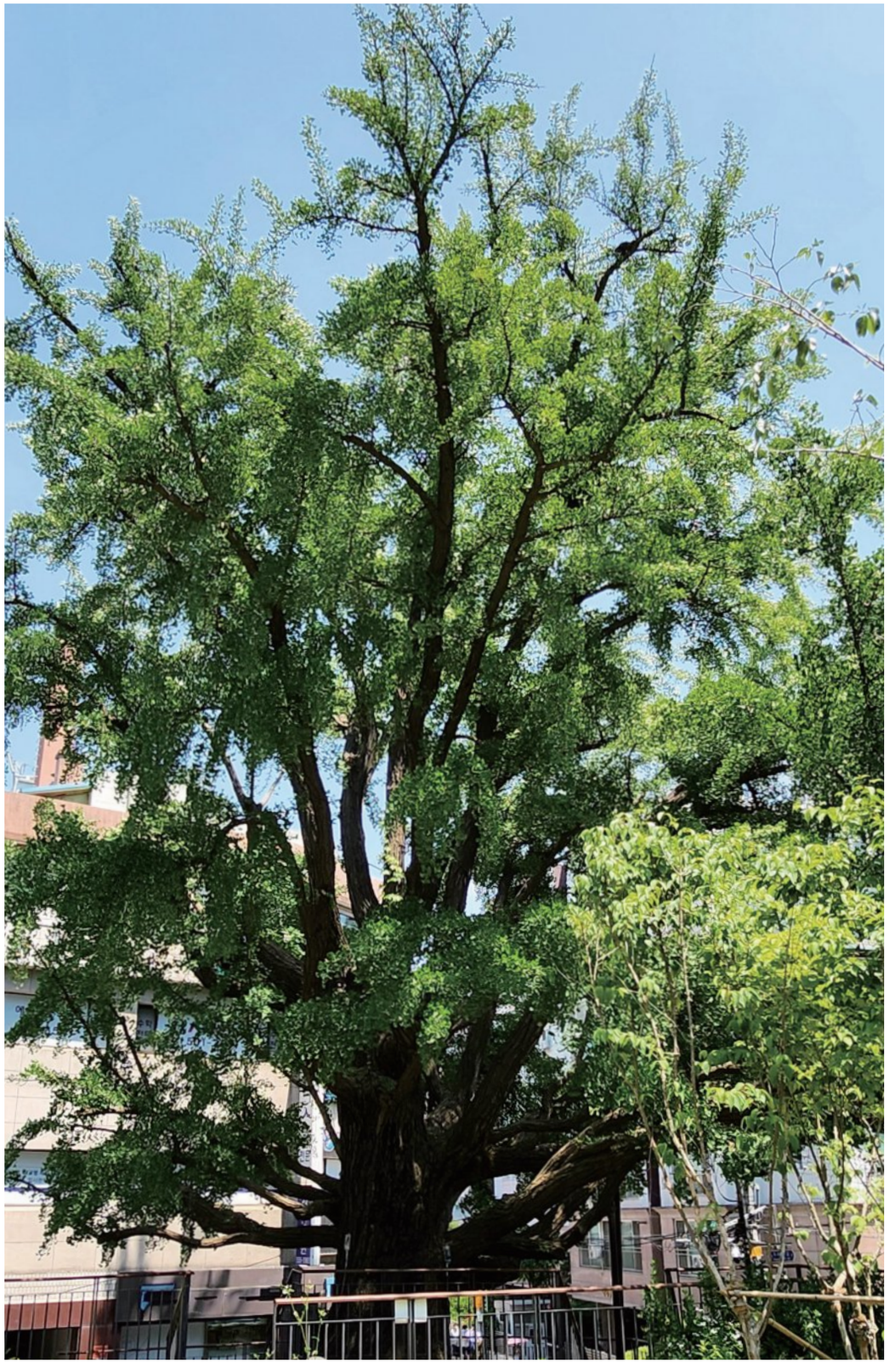
수도권

서울 · 인천 · 경기도

수도권의 수종별 보호수 찾기



1	용문사의 가지 꺾어다 심은 **은행나무**	서울 강남구 대치동 975-8	p. 22
2	조선시대 금천 동헌자리의 **은행나무**	서울 금천구 시흥동 1000-106	p. 24
3	거리 이름의 유래와 관련한 **은행나무**	서울 노원구 중계4동 산 36-2	p. 26
4	아이의 잉태를 점지하는 신목의 **은행나무**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67	p. 28
5	배재학당 다닌 김소월이 좋아한 **향나무**	서울 중구 서소문로11길 19	p. 30
6	수나무, 정부인나무, 계비나무의 **은행나무**	서울 중구 회현동1가 36-7	p. 32
7	상인이 꽂은 말채찍에서 자란 **향나무**	인천 남동구 간석로42번길 5	p. 34
8	고려시대 자은사 절터 흔적의 **은행나무**	인천 강화군 불은면 불온남로442번길 89-22	p. 36
9	무학대사가 조선 도읍지에 심은 **느티나무**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일로 269-84	p. 38
10	마을 안녕을 위해 뿌리를 노출한 **은행나무**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00-1	p. 40
11	소를 잡는 곳에 있는 신목의 **느티나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71	p. 42
12	탑 건립의 기념으로 심은 **향나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873-4	p. 44
13	지팡이와 썩은 짚신에서 자란 **느티나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518번길 33	p. 46
14	무학대사가 나옹선사를 추모해 심은 **향나무**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천송리 282	p. 48
15	공자의 사당 재건과 함께 살아난 **은행나무**	경기도 오산시 매홀로 3	p. 50
16	도인이 심어 쉼터 그늘을 제공한 **회화나무**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300-35	p. 52
17	귀 달린 뱀이 나타나는 **느티나무**	경기도 하남시 검단남로 48	p. 54
18	천연기념물 절차를 밟았던 **느티나무**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증거리 468	p. 56
19	어머니의 눈을 뜨게 한 신기한 **은행나무**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쌍학리 564-2	p. 58



수도권

은행나무

용문사의 가지 꺾어다 심은 은행나무

지정번호 서23-2
지정년도 1968
관리기관 서울
수령 540년
수고 22m
흉고둘레 5.1m

서울 강남구 대치동 975-8
37° 30′ 01.84″ N
127° 03′ 46.88″ E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곳에 있는 보호수(서23-2) 은행나무는 은마아파트 단지 뒤쪽 구역의 주택가 길옆에 자라고 있다. 은행나무의 나이는 540년으로 추정된다. 나무높이는 22m, 가슴높이둘레는 510cm, 밑동둘레는 660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16m 가량이다. 원줄기는 위로 올라갔으나 높이 2.5m 정도에서 가지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졌으며, 다시 가지를 내어 풍성하게 나무갓의 모양을 만들고 있다. 은행나무는 3갈래의 도로변에 사람키 이상의 높이로 자연석을 쌓고 데크를 만들어 놓았다. 은행나무 앞에는 제사를 지내는데 사용하는 영산단이 놓여있고, 기념비 및 예전에 큰 고개가 있었다는 한티마을을 소개하는 표지석이 세워져 있다. 벤치도 놓여 있어 쉼터의 역할도 하고 있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제를 지내는 신목과 관련이 있다. 현재 대치동 자리의 옛날 구마을에 살던 한 할머니가 용문산의 용문사에 치성드리러 갔다. 그후에 할머니는 돌아오는 길에 용문사의 은행나무 가지(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이 자리에 꽂았다. 이 가지는 싹이 트고 잘 자라났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신기하게 여겨 매년 이 은행나무에 제를 올렸는데, 그 뒤부터 마을 사람들이 모두 건강하고 불구자도 태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주민들은 은행나무를 동신으로 수호하게 되었다. 은행나무 옆에는 '영산단靈産壇'을 알리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지금도 매년 음력 7월 초하루에는 마을 사람들이 이 은행나무 아래에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데, 은행나무가 재해를 없애주고 악귀를 멀리 쫓아 상업을 융성하게 해주며 농가를 풍요롭게 해준다고 믿고 있다. 제관은 60세 이상으로 부정이 없는 사람을 선정한다. 2017년 서울시가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를 위하여 대치동의 구마을에 관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구마을에 살던 주민들이 기억을 더듬어 옛 마을 지도를 그렸는데, 기억의 중심이 되는 지형지물은 언제나 커다란 은행나무이었다. 예전 농촌마을 시절의 구마을에서 살았던 주민들에게 대치동 은행나무는 고향의 흔적이었다.

조선시대 금천 동헌 자리의 은행나무

지정번호 서18-2
지정년도 1968
관리기관 서울
수령 886년
수고 19m
흉고둘레 9.1m

서울 금천구 시흥동 1000-106
37°27′05.37″N
126°54′29.25″E



동일구역 몇 그루의 고목 중 하나인 보호수(서18-2) 은행나무는 도심의 높은 건물과 도로 사이에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다. 예전에는 마을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풍치림의 구실을 하였으나 현재는 정자목의 역할을 하고 있다. 바로 인근에 또 다른 보호수 은행나무가 있으나 생육이 좋지 못한 편이다. 은행나무의 나이는 886년으로 추정된다. 나무높이는 19m, 가슴높이둘레는 910cm 정도이다. 원줄기는 거의 말라죽어 높이 10m 위쪽이 잘려 있으며, 말라죽은 부분은 충전재 처리의 외과수술이 진행되었다. 이 때문에 원줄기의 나무높이가 거의 절반으로 줄었으나 사방의 그루터기에서 자란 줄기가 원줄기를 대신하고 있다. 그루터기 줄기는 곁가지를 내면서 위로 솟구쳐 자라고 있다. 생육상태는 나쁜 편이다. 둘레는 팬스가 설치되었으며, 지표면은 작은 자갈이 깔려 있고 야간 전등이 시설되어 있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뱀과 관련이 있다. 1974년 도로공사 때의 일이다. 고목의 은행나무를 없애지 않고 주변을 정리하는 작업이 있었다. 은행나무 주변을 곡괭이로 파고 잔뿌리를 자르면서 주변을 파고 있는데, 갑자기 한 쌍의 구렁이가 출현하였다. 그때 어떤 어르신이 구렁이를 잡아다가 푹 끓여 먹었다. 그 후 그 어르신은 얼마 안 있어 돌아가셨고, 어르신의 부인도 돌아가셨다. 또 한달 안에 아들도 이름 모를 병으로 죽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안 좋은 일이 계속되어서 집을 팔았다. 그곳에는 집이 들어서지 않았고 쉼터가 되었다. 은행나무가 있는 곳은 조선 금천현의 처소인 동헌 자리이며, 정조대왕이 능행할 때 행궁으로 사용하였다. 정조 19년(1795년)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를 추모하기 위하여 어머니 혜경궁 홍씨와 함께 화성(현재 수원)으로 행차하였다. 8일간의 행차에서 정조는 시흥행궁에서 이틀간 머물렀고, 격쟁(조선시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임금이 거동하는 길에서 징이나 꽹과리를 쳐 임금에게 하소연하던 제도)을 통하여 백성들과 소통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였다. 은행나무는 동네의 상징이다. 인근에는 골목시장이 있는데, 중앙시장이라 불렀다. 그러다가 시장 골목에서 장사를 하는 어느 상인이 은행 나무시장이라 이름을 바꿔 말하면서 2012년에 은행나무시장으로 정식 이름을 등록하였다. 마을버스 정류장 중 한 곳의 이름도 시흥동 은행나무이다.



수도권

은행나무

거리 이름의 유래와 관련한 은행나무

지정번호 서11-1
지정년도 1971
관리기관 서울
수령 680년
수고 31m
흉고둘레 9.1m

서울 노원구 중계4동 산 36-2
37° 39′ 27.00″ N
127° 04′ 50.00″ E

불암산 기슭에 있는 보호수(서 11-1) 은행나무는 중계4동 주민센터 인근의 산야 초입에 위치하고 있다. 은행나무는 나무나이가 지정 당시(1971년) 625년이었으므로 2024년 680년이 되었다. 나무높이가 31m, 가슴높이둘레는 910cm 정도로 측정되었다. 밑동둘레는 930cm 정도이다. 엄청난 크기의 은행나무는 여러 갈래의 뿌리가 한 몸이 되어 위로 솟아 있으며, 나무갓이 숲속의 다른 나무들 사이에서 15m 너비로 퍼져 있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명성황후와 관련이 깊다. 명성황후(1851~1895)는 1882년 임오군란이 일어났을 때 여주, 충주 등의 여러 곳에서 피신생활을 하다가 8월 1일 환궁을 한 바 있다. 명성황후가 여주로 피난을 가는 도중에 더위를 덜기 위하여 이 은행나무 아래에 들렸다가 당시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치성을 드렸던 성황목이다. 또한 이 은행나무를 비롯한 중계동의 은행나무는 예전의 은행리(은행동) 및 지금의 은행사거리 지명 유래와 관련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은행사거리는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사거리이다. 원래 명칭은 불암사거리였지만 지금은 여기저기 도로표지판에 은행사거리(줄임말은 사)라고 명시되어 있다. 조선시대 때는 이곳 마을에서 자손들이 번창 하지 않자 양평군의 용문사 은행나무에서 꺾어 온 가지를 심어서 정성껏 모셨더니 마을이 번창하였다는 전설이 있다. 이 은행나무 덕분에 이곳을 은행마을(은행리, 은행동, 은행말)이라 부르게 되었고, 여기에서 은행사거리라는 말이 유래하였다. 그런데 은행사거리는 은행나무에서 유래하지만 금융업무의 은행이 많이 들어선 거리로 부르기도 한다. 주민들은 이 은행나무를 성황목으로 여겨 안녕 및 소원성취를 빌고 있기 때문에 침을 뱉고 나무를 베거나 욕설을 하는 것을 금기하고 있다. 이곳은 무속인들이 찾기도 한다. 불암산 초입에 위치한 곳이지만 아파트단지를 끼고 있어 큰 소리를 내거나 무구(무속인이 굿을 하거나 점을 칠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의례도구)를 사용한 기도는 어렵다. 어르신들은 아이들에게 나무를 극진히 보호할 것을 가르친다.

아이의 잉태를 점지하는 신목의 은행나무

지정번호 서3-5
지정년도 1981
관리기관 서울
수령 370년
수고 29m
흉고둘레 6.9m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67
37°31′26.58″N
126°58′13.70″E

작은 공원처럼 잘 꾸며진 곳에 있는 보호수(서 3-5) 은행나무는 현재 고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곳에서 자라고 있다. 은행나무의 나이는 370년으로 추정된다. 나무높이는 29m, 가슴높이둘레는 690cm, 밑동둘레는 760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20m 정도로 퍼져 있다. 은행나무는 원줄기의 3.5m 높이에서 크게 2갈래로 갈라진 후 높이 9m 정도에서 다시 갈라지면서 여러 가지가 하늘 높이 향하고 있는 모양이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다양한 편이다. 도시화 이전에 한 남자가 땔나무를 하기 위하여 나뭇가지를 잘라 집에 돌아와 불을 지피고 나서 숨을 거두었다. 주민들은 그 이후 이 은행나무에 신령이 있다고 믿어 소홀이 다루지 않았다. 동네 주민들은 300년 이상 은행나무는 물론 주변에서 화재가 없었던 이유는 정월대보름날에 이 은행나무 아래에서 동고사를 지냈기 때문으로 생각하며, 수호신을 위한 제를 올릴 때는 주민화합을 최우선으로 유도하고 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삼각지 부근에 사는 구모 여인이 정월초 정화수를 받들고 이 은행나무에다 지극정성의 치성을 드려, 3대에 걸쳐 손이 없다가 칠남매의 손을 얻은 사례가 있다. 이곳의 한 어르신은 나무할아버지의 명칭이 있는 은행나무에 백일 치성을 드리면 정신질환이 치료된 사례가 많아 재개발 이후에도 이 은행나무에 치성을 드리는 사람이 있다고 고증하고 있다. 이 은행나무가 위기에 처하였다가 그대로 살아남은 일화가 있다. 이 나무가 자리한 일대가 주상복합아파트 파크타워 부지로 개발될 때에 이 은행나무는 반가운 존재일 리 없었다. 실제 재개발사업 초기에는 이 나무를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기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동네의 상징적인 나무이고 보존하면 운치도 있는 만큼 그대로 두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먼지와 소음과 진동이 심한 공사현장에서 은행나무를 건강하게 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래서 개발조합 측은 나무를 관리하는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은행나무 주위에 높은 철책 보호대를 설치하고 먼지를 뒤집어쓰지 않도록 보호막까지 둘렀으며, 영양제와 비료를 공급하는 정성으로 건강을 지켰다. 은행나무는 이런 정성으로 살아남았다.





배재학당 다닌 김소월이 좋아한 향나무

지정번호 서2-2
지정년도 1972
관리기관 서울
수령 578년
수고 17m
흉고둘레 2.7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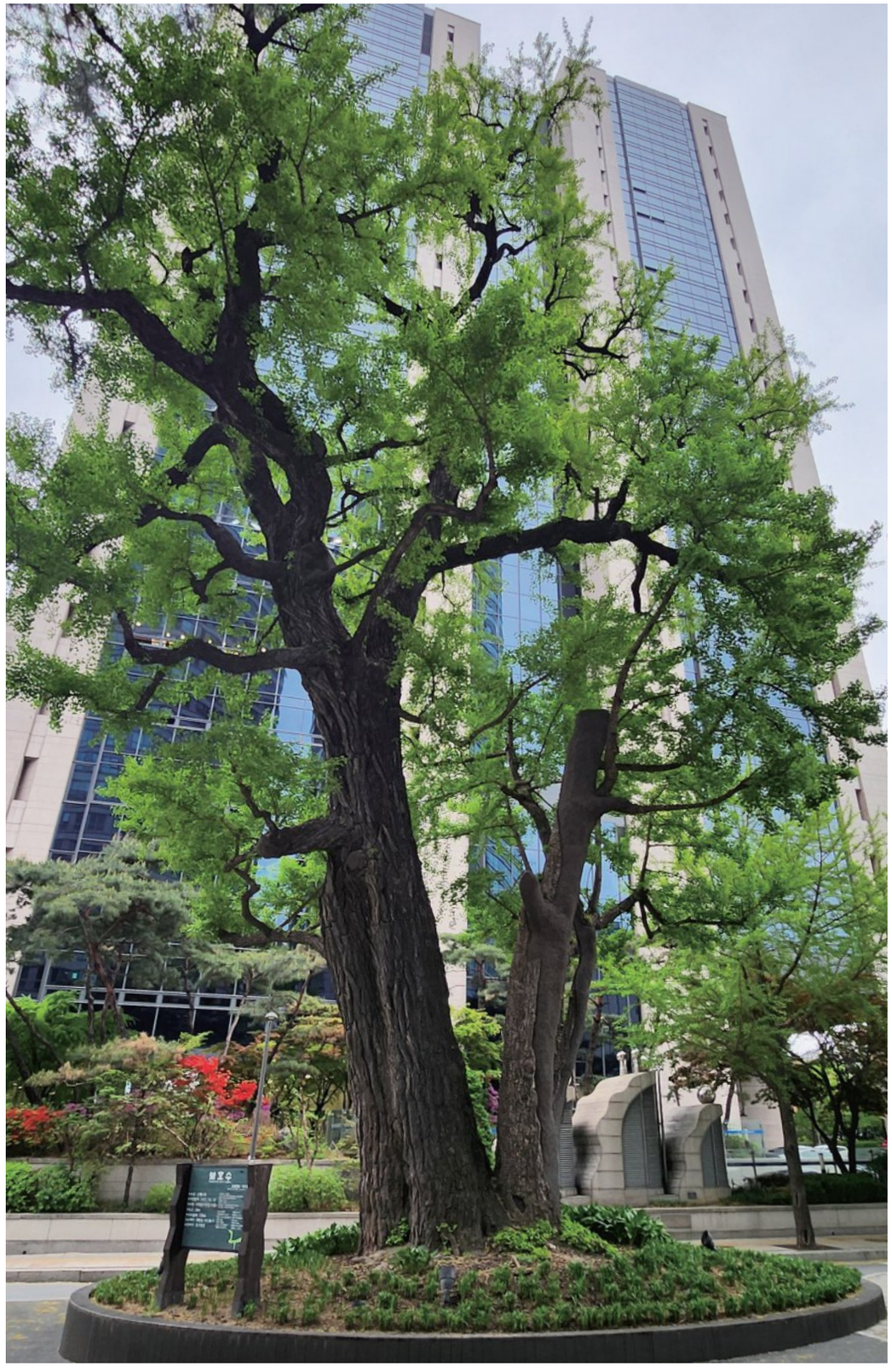
서울 중구 서소문로11길 19
37° 33′ 50.28″ N
126° 58′ 22.22″ E

서울의 한복판에 우뚝 솟은 보호수(서2-2) 향나무는 도심의 길가를 약간 오르는 것 같은 동산의 배재학당 정원에 자라고 있다. 배재학당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중등교육기관인데, 1885년 미국 북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에 의하여 세워졌다. 향나무의 나이는 578년으로 추정된다. 나무높이는 17m, 가슴높이둘레는 270cm, 밑동둘레는 430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10m 정도이며, 상층부에서 가지를 내어 배재학당의 지붕 위를 약간 덮고 있다. 원줄기는 높이 9m 정도까지 충전재 처리의 외과수술을 한 상태이지만 수직에 가깝게 뻗어 올라가 위쪽에서 가지를 펼치고 있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으나 배재학당의 학생과 관련이 있다. 향나무는 배재학당을 다녔던 김소월 시인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사랑한 나무로 유명하다. 김소월 뿐만 아니라 이 학교를 졸업한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비롯하여 서재필, 주시경 등이 이 향나무 밑에서 책을 읽거나 뛰어놀았다. 시인 김소월과 데이비드 매캔 하버드대 교수는 이 향나무와 각별한 사이이다. 매캔 교수는 1960년대 평화봉사단원으로 한국에 왔다가 우연히 발견한 김소월의 시집을 읽고 그 길로 김소월 연구가가 되었다. 매캔 교수는 시를 통하여 한국 문학을 접하며 김소월이 좋아하였던 이 향나무까지도 열심히 가꿨다. 그는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이 향나무에 물을 주고 주변의 잡초를 뽑는 등 고사하지 않도록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이 향나무는 임진왜란 당시의 이야기도 전한다. 줄기 위쪽에 박혀 있는 못이 왜장 가토 기요마사가 그의 말을 묶기 위한 자리라는 것이다. 서양인들은 교육기관의 배재학당이 있는 작은 언덕길을 파인 스트리트(pine street)라 불렀다. 당시 이 향나무를 소나무로 오인한 탓인데, 그 때문에 이 일대를 왜송동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수나무, 정부인나무, 계비나무의 은행나무

지정번호 서2-5
지정년도 1972
관리기관 서울
수령 528년
수고 24m
흉고둘레 7.3m

서울 중구 회현동1가 36-7
37° 33′ 33.90″ N
126° 58′ 51.33″ E



큰 도로에 인접한 보호수(서2-5) 은행나무는 도심의 빌딩 사이에서 수나무 1그루와 암나무 2그루가 한곳에 모여 자라고 있다. 은행나무는 나무나이가 1972년 지정 당시에 475년이었으므로 현재 528살이 된다. 나무높이는 24m, 가슴높이둘레는 730cm 정도이다. 은행나무가 있는 이곳은 조선 전기의 영의정 정광필(1462~1538) 일가의 집터이었다. 정광필은 어느 날 꿈에 신령이 나타나 집 앞 은행나무에 걸린 12개의 서대(종1품 이상의 관복에 착용하는 허리띠)를 보여주며 앞으로 이 가문에 12정승이 배출된다는 길운을 전하였다. 이후 400여 년 동안 이 명당 터에서 동래 정씨 집안의 12정승이 배출되었다. 이후 동래 정씨 집안의 어진賢 사람들이 이 근방에 모이면서會 마을 이름도 회현會賢이라 부르게 되었다. 또 다른 전승 이야기는 임진왜란 때 왜군이 도끼로 이 은행나무를 베려고 했을 때 동네 노파가 생선을 주면서 말렸기 때문에 은행나무는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그 당시 도끼로 팬 상처가 뿌리 부분에 남아있다. 이후 은행나무는 마을의 염원을 기리는 귀한 신주가 되었다. 정씨 가문은 감사한 마음으로 수나무인 은행나무를 장가보내기로 하고 남쪽에 암나무 한그루를 심었다. 어느 날부터 부인나무가 마르기 시작하자 정씨 일가는 새 부인을 들이기로 하고 수나무 동쪽에 계비나무를 심었다. 그런데 이미 죽었다고 생각한 부인나무가 되살아났다. 그때부터 정부인나무와 계비나무가 서로 등을 돌린 채 자라게 되었다. 어느 대감은 계비의 존재가 자손의 교육에 좋지 않다고 여겨 계비나무를 베려고 벌목공을 데려왔다. 나무를 베기로 한 날 갑자기 정씨 일가의 장손이 배앓이를 하였다. 이것이 은행나무를 베도록 한 것 때문이라 생각하여 벌목공을 내보내니 장손의 병이 씻은 듯 나았다. 이때부터 제사를 지내면서 3그루의 은행나무에 똑같이 술을 따르고 절하는 풍습이 생겼다.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은 할아버지 나무에게 기원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은 부인나무에게 기원하며, 사랑을 많이 받고 싶은 사람은 계비나무에게 인사를 하며 평안을 기원하였다. 중구청은 2012년부터 매년 10월에 회현동 은행나무 축제를 개최한다. 은행나무의 전설을 토대로 마을의 안녕과 염원을 기리고 인재배출을 기원하는 제를 지내는 행사이다. 지역 주민들의 무병장수와 평온무사를 빌기도 한다.



수도권

향나무

상인이 꽂은 말채찍에서 자란 향나무

지정번호	인천-4-5-1
지정년도	1999
관리기관	인천
수령	510년
수고	15m
흉고둘레	3.6m

인천 남동구 간석로42번길 5
37° 28′ 00.10″ N
126° 42′ 45.63″ E

1999년에 지정된 보호수(인천-4-5-1) 향나무는 주택가와 길가 사이의 작은 쉼터에서 높게 자라고 있다. 향나무의 나이는 510년으로 추정된다. 나무높이는 15m, 가슴높이둘레는 360cm, 밑동둘레는 450cm 정도이다. 나무갓은 12m 가량이다. 원줄기는 높이 3~5m에서 굵은 가지가 3~5개가 순차적으로 갈라져 있다. 원줄기는 높이 3m 정도까지 충전재 처리의 외과수술이 진행되었고, 높이 5m 정도에서 동쪽 방향의 굵은 가지가 절단되어 있다. 지주 9개가 나뭇가지를 받치고 있다. 주변은 도로와 함께 10m 직경의 경계 팬스가 둘러져 있고, 그 바깥에 의자 및 운동기구 등이 구비되어 있다. 전승하는 이야기 몇 가지는 각기 다른 내용이다. 가장 많이 알려진 전설은 옛날 어느 상인이 말을 타고 지나가다 우물가에서 쉬고 있었다. 상인은 시원한 물을 떠먹고 나서 말채찍을 꽂아두었다. 땅에 꽂은 말채찍은 점차 잎몸이 뾰족한 향나무로 자라났다. 또 이 향나무를 신라의 위대한 학자 최치원의 17세손인 최립이 그의 사랑방 뜰에 손수 심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리고 이씨 성을 가진 동네 어르신에 따르면 이곳 향나무는 원래 이씨 왕조였던 효령대군의 직계 손인 이언섭 장군이 심었다. 이언섭 장군이 자신의 백마를 메어두던 말목이었다. 동네 어르신은 옛날에는 전주 이씨 문중이 이곳 향나무 아래에서 시제를 드렸다고 이야기한다. 시제를 지낼 때면 소머리를 우려낸 국물에 흰쌀과 기장으로 밥을 지어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당시 고깃국을 먹기 위하여 긴 줄이 이어졌다. 이와 유사한 기록은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위치한 선농단에 관한 사료에서 찾을 수 있다. 성종 7년(1476년)에 축조된 선농단은 조선왕조가 조상께 제를 올리던 곳인데, 이곳에도 큰 향나무가 있었다. 기록에 보면 제수로 사용한 막걸리는 향나무에 뿌려 주고, 소를 잡아 큰 가마솥에 국을 끓여 백성들에게 나눠 주던 것이 왕가의 풍속이었다. 지금의 설렁탕도 이같은 풍속에서 유래되었다. 동네 사람들은 매년 음력 1월 1일과 8월 15일에 이 향나무 아래에 모여 제사를 지냈다.

수도권

은행나무

고려시대 자은사 절터 흔적의 은행나무

지정번호	인천-4-9-3
지정년도	1982
관리기관	인천
수령	1,000년
수고	20m
흉고둘레	8.4m

인천 강화군 불은면
불온남로442번길 89-22
37° 40′ 59.46″ N
126° 30′ 02.64″ E



강화에서 가장 오래도록 살고 있는 보호수(인천-4-9-3) 은행나무는 들판과 밭 사이의 비탈면에 우두커니 서 있다. 가지의 풍성함은 예전 같지 않으나 아직도 열매를 맺고 마을을 지키고 있다. 은행나무의 나이는 1,000년 또는 그 이상으로 추정된다. 나무높이는 20m, 가슴높이둘레는 840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23m 정도이다. 원줄기는 밑동부터 크고 작은 줄기들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사방으로 퍼져 있다. 줄기 몸통의 굴곡이 오랜 세월이 지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생육상태는 보통이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사찰 및 신목과 관련이 있다. 마을 주민들과 일부 지식층의 사람들은 은행나무가 고려시대에 있었던 자은사慈恩寺 절에 심었던 나무라고 말하고 있다. 1,000년 넘은 은행나무가 자은사터 마당을 지키고 있는 셈이다. 또한 일제강점기에는 어느 일본인이 이 은행나무를 자르려고 하는 순간이 되자 날이 어두워지고 천둥번개가 치기 시작하였다. 그 와중에 은행나무를 베던 일본인은 결국 벼락에 맞아 죽었다. 이와 다른 이야기로서 마을 사람들은 고능리라는 명칭에서 예상되듯이 이 마을은 태조 왕건과 그의 아버지 능이 있었던 자리라고 믿고 있다. 강화사에 의하면 고려 고종이 강화도로 천도하면서 태조 왕건과 그의 아버지 능을 강화로 이장을 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두 번째 이장지는 선원면 일원이지만 첫 번째 장소는 정확하지가 않다. 고능리는 홍살문이 있었던 '대문재'와 왕실 원찰로 추정되는 '자은사터' 등 왕릉과 관련된 지명이 남아있다. 옛날에는 마을 주민들이 이 은행나무 앞에서 마을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제사를 올렸는데, 지금은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기면서도 특별하게 제사를 올리지 않는다. 그러나 종종 은행나무 앞에 터줏가리를 모셔 놓고 신목으로 정성을 다하고 있다. 터줏가리는 집터를 지키는 터주신의 신체이며, 매년 음력 시월 가을걷이가 끝나면 항아리 속에 쌀이나 벼, 콩이나 수수 등 곡식을 넣어 짚가리를 씌운 후 뒤뜰 또는 장독대 근처에 모신다.

수도권

느티나무

무학대사가 조선 도읍지에 심은 느티나무

지정번호	고양-1
지정년도	1982
관리기관	경기
수고	12m
흉고둘레	9.3m
수령	693년 (2024년 기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일로 269-84

37° 39′ 15.18″ N
126° 48′ 29.04″ E



고양시의 대표 보호수(고양-1) 느티나무는 마을의 끝자락과 밭의 언저리에서 오랜 세월을 살고 있다. 느티나무의 나무나이는 693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나무높이는 12m 정도이다. 가슴높이둘레 는 930cm, 밑동둘레는 외과수술부문을 포함하여 1,300cm 정도이다. 느티나무는 원줄기 2.5m 높이에서 크게 2줄기로 갈라져 있으며, 밑동이 아주 뭉뚝하다. 나무갓은 너비 18m 정도이며 사방으로 퍼진 모양이지만 바라보는 동서남북의 위치에 따라 나무모양이 각기 다르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조선 도읍지를 찾아 한양(옛날의 서울) 일대를 누볐던 무학대사와 관련이 깊다. 무학대사는 700여 년 전에 이성계의 명으로 새 도읍지로 정할 곳을 찾아다녔다. 북한산 아래 땅을 두루 살피고 다닐 때에 고양시 풍산동(이전의 산황동) 일대를 눈여겨보고 나무 3그루를 심었다. 그 중 2그루는 말라 죽었고 살아 남은 한 그루가 이 느티나무이다. 그 외의 전승 이야기도 있다. 한 농부가 밭을 일구기 위하여 느티나무 둘레를 정리하고 가지치기를 하면서 옆으로 뻗은 주요 가지를 자르려고 하자 멀쩡하던 톱이 부러지고 손을 다쳤다. 일반적으로 전승하는 이야기로서 나뭇잎이 나올 때에 위쪽보다 밑쪽에서 먼저 나오면 그 해 농사가 풍년을 맞이한다. 마을 주민들은 오래된 이 나무를 신성시하여 평안을 비는 제를 올렸다. 이 전통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수년 전에는 마을 인근의 대형 골프장 증설 계획이 발표되자 주민들이 합심하여 느티나무와 산황산 숲을 지키기 위한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마을 안녕을 위해 뿌리를 노출한 은행나무

지정번호	부천-1
지정년도	1982
관리기관	경기
수령	1,043년
수고	11m
흉고둘레	5.1m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00-1
37° 28′ 49.32″ N
126° 47′ 31.00″ E



1980년대까지 나무높이 30m에 달하던 보호수(부천-1) 은행나무는 높이가 예전보다 2배 이상 낮아졌으며, 인가와 도로 옆의 공간에서 겨우 자라고 있다. 은행나무의 나이는 1,043년이다. 나무높이는 11m 정도로 예전보다 많이 낮아졌는데, 이는 높게 올라간 나뭇가지가 고사하여 잘라냈기 때문이다. 줄기와 나뭇가지가 죽은 이유는 뿌리가 땅위로 드러나거나 주변이 블록으로 채워지는 등 도시화의 진행에 따라 생육조건이 나빠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슴높이둘레 510cm, 밑동둘레는 680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너비 25m로 넓게 퍼졌던 것이 현재 너비 12m 정도로 좁아졌다. 원줄기 2m 높이에서 굵은 가지 4개가 위로 뻗은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위쪽 가지는 고사가지가 발생함에 따라 모두 절단되어 있다. 1개의 가지는 부분적으로 말라 죽어 보호 처리를 한 뒤 받침대로 받쳐 놓았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나무뿌리와 관련이 있다. 195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뿌리가 심하게 지상으로 노출되어 보호차원의 흙덮기를 하였다. 주민들은 이러한 흙덮기 때문에 마을에 질병과 화가 미치는 등의 불상사가 잇달아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뿌리의 일부가 노출할 정도로 새로 덮은 흙을 다시 파내었는데, 그 후 마을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안해졌다. 옛날 사람들은 은행나무를 귀하게 여겨 불교 용품의 재료로 많이 사용하였고, 함부로 베면 재앙을 받는다는 속신을 믿었다. 이 은행나무 주위에 꽃밭을 만들고, 나무의자를 놓았으며, 등나무를 심어서 그늘을 만들고 벤치를 설치하여 사람들이 쉴 수 있게 하였다. 한편 소사본동에는 은행나무 이외에 보호수로 지정된 2그루의 나무가 있다. 나무나이 800년이 넘은 느티나무이다. 주민들은 이곳의 느티나무와 은행나무의 장수를 기원함과 동시에 그안에 살아 숨을 쉬는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받아 계승하자는 의미에서 소사본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하여 2000년부터 매해 기원제를 개최하고 있다. 마을의 화합, 안녕, 풍요를 기원하기 위한 제이다.



수도권

느티나무

소를 잡는 곳에 있는 신목의 느티나무

지정번호	성남-9
지정년도	1982
관리기관	경기
수령	341년
수고	16m
흉고둘레	5m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71
37° 28′ 49.32″ N
126° 47′ 31.00″ E

개발이 한창인 판교 신도시에 있는 보호수(성남-9) 느티나무는 판교동에서 백현동으로 넘어오는 고개인 옛 잿너머마을의 언덕에 자라고 있다. 현재 느티나무 주변은 모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고, 느티나무가 있는 곳은 어린이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느티나무의 나이는 341년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안내판은 나무나이를 300년으로 기록하고 있다. 나무높이는 16m, 가슴높이둘레는 500cm, 밑동둘레는 750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20m 가량이다. 원줄기는 높이 2.5m 정도에서 굵게 2갈래로 갈라졌고, 굵은 가지 2개는 다시 각각 2~3갈래로 가지를 치면서 잎이 사방으로 퍼져있다. 북쪽과 남쪽의 가지와 잎이 무척 왕성하지만 동쪽과 서쪽 가지도 넓게 펼치고 있어 전체적으로 둥근 모양이며, 무성한 잎과 가지가 만드는 풍성한 자태를 자랑하고 있다. 원줄기가 2갈래로 갈라지는 가운데는 충전재 처리의 외과수술이 진행되었으나 생육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짐승의 도축과 관련이 있다. 옛날 마을에서는 명절에 제를 지내기 위하여 느티나무 밑에서 소를 잡았다. 소를 잡은 주민들은 느티나무 밑에서 제를 지낸 후에 고기를 나누어 먹었다. 고기를 먹은 사람들은 모두 배탈이 났다. 사람들은 배탈이 난 이유가 이 느티나무에 귀신이 들어있으며, 귀신이 들린 나무 밑에서 소를 잡는 잔인하고 불결한 모습을 보인 탓이라 생각하였다. 이후로는 이 느티나무 근처에서 짐승을 잡지 않았다. 그랬더니 마을도 평온하였다. 예전에는 단오 때 느티나무에 그네를 매어 뛰어놀았다. 현재 판교 신도시 개발로 이 일대 공사가 한창이지만 느티나무는 보존 가치가 인정되어 지금까지 꾸준히 보호되고 있다. 아름드리 느티나무는 시원한 나무그늘과 함께 이 곳을 찾는 주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휴식처를 제공하고 있다.

수도권

향나무

탑 건립의 기념으로 심은 향나무

지정번호 수원-1
지정년도 1982
관리기관 경기
수령 730년
수고 10m
흉고둘레 2.8m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873-4
37° 16′ 02.52″ N
126° 58′ 34.07″ E

수원에 탑동이라 부르는 동네가 있다. 탑, 소나무, 향나무와 관련이 많은 곳이다. 전형적인 농촌마을이었던 탑동은 현재 대부분이 아파트로 바뀌었다. 탑동은 이곳에 탑이 있어 탑골, 탑동, 탑리 등으로 불리던 지명을 그대로 이어 받았다. 현재 탑동의 이곳저곳에는 탑의 좌대가 남아 그 이야기를 뒷받침하고 있다. 탑동은 탑을 세우고 소나무를 여러 그루 심어 풍수지리학적으로 수구水口를 막았다. 이 곳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수구(황구지천 추정)를 막기 위하여 탑의 좌대를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 양면에 소나무 여러 그루를 심어 방패로 삼았다.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북쪽과 남쪽에 14그루의 소나무가 있었다. 탑동의 자연마을인 골말은 고목의 향나무가 있는 곳에서 성황제를 올렸다. 전승 이야기에 의하면 말을 타고 향나무를 지나려던 사람이 말발굽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아 움직이지 못했다. 말에 탄 사람이 말에서 내려와서 향나무에 제를 지내자 말굽이 떨어졌다. 일설에는 임금님도 이곳을 지날 때면 말에서 내려서 걸어갔다. 그런데 신목의 역할을 하던 성황당의 향나무는 1986년에 도벌이 되면서 사라졌지만 현재 향나무 후계목을 심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골말과 인접한 탑골에는 1982년에 수원의 제1호로 지정한 보호수가 있다. 수원의 여러 보호수 중 첫번째의 의미가 있는 나무이다. 탑의 건립을 기념하여 심은 향나무이다. 높이가 10m, 가슴높이둘레가 280cm 정도이다. 이곳은 높은 건물이 들어서 있고 골목길이 앞뒤로 지나고 있다. 줄기는 곧게 서는 듯하다가 크게 가지를 뻗어 퍼져 있고, 몇 개의 큰 가지는 다시 작은 가지를 내어 조밀하게 잎을 달고 있다. 나무 모양은 구불구불하게 가지를 내어서인지 자유롭고 평퍼짐하게 퍼진 모습이다. 아래로 처진 가지는 지지대가 받쳐주고 있다. 밑동 줄기는 세로 주름처럼 골이 있어 오랜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 크게 갈라지는 줄기의 아래쪽은 썩은 부분의 보호를 위하여 인공수피를 입혀놓았다. 이곳의 기념비에 따르면 탑을 얹어놓는 받침대가 탑골에 있었고, 그 좌대座臺가 바로 옆 교회 자리에 있었다. 지금도 그 좌대의 반이 남아있다. 이곳은 교회, 어린이공원 및 주택이 들어서 있다. 그 건물 사이에 나무나이 730년의 향나무가 탑동의 주인처럼 당당하게 자라고 있다.



수도권

느티나무

지팡이와 썩은 짚신에서 자란 느티나무

지정번호	수원-3
지정년도	1982
관리기관	경기
수령	510년
수고	14m
흉고둘레	4.5m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518번길 33
37°19′44.15″N
127°00′58.42″E



풍성한 모양으로 보이는 보호수(수원-3) 느티나무는 상광교동으로 가는 도로 중간에 자리하고 있다. 느티나무의 나이는 510년이다. 나무높이가 14m, 가슴높이둘레가 450cm 정도이다. 원줄기는 높이 2.5m 정도에서 가지가 4갈래로 갈라졌으며, 비스듬하게 사방으로 퍼져 위를 향하고 있다. 생육상태는 양호하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스님과 관련이 많다. 수원의 광교산에는 고려 말에 창성사라는 절이 있었다. 진각국사眞覺國師 천희千熙의 탑비(보물 제14호)가 있던 절로 지금은 터만 남아 있다. 한 승려가 창성사에서 쉬어갈 때에 마당에 지팡이를 놓고 불공을 드리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웠다. 스님이 불공을 드리고 돌아와 보니 그 지팡이에서 새싹이 뾰족하게 돋아나는 것을 보았다. 스님은 이를 기이하게 여겨 지팡이를 그대로 두었다. 후에 그 지팡이는 큰 느티나무로 자라났다. 또 다른 이야기도 전해진다. 예전에 창성사를 돕기 위하여 자주 절을 찾아갔던 어느 사내가 있었다. 사내는 광교산에 있는 89개의 절을 찾아 마을의 축복을 빌러 갔다. 어느 날에 창성사를 찾아가서 기도를 마친 사내가 이어서 다른 절로 가기 전에 짚신을 벗어놓고 산으로 들어갔을 때 갑자기 비가 많이 내렸다. 비에 젖은 짚신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썩더니 그곳에서 어린 느티나무가 자라났다. 나무가 자랄수록 마을에 많은 복이 내렸다. 이 이야기는 상광교산 인근의 하광교산에 자라는 커다란 느티나무의 전설과 중첩하여 전해지고 있다. 그 후 풍성하고 크게 자란 느티나무는 그 아래에서 불이 나서 며칠 동안 꺼지지 않았음에도 죽지 않았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무를 팔기 위하여 밑동을 자르다가 죽었다. 잘려나간 나무도 결국 죽었다. 베어 없어진 느티나무 자리에 씨가 떨어져 어린 나무가 자라 지금의 느티나무로 자랐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후부터 사람들은 나무를 베지도 않았고, 불도 지르지 않았다.

수도권

향나무

무학대사가 나옹선사를 추모해 심은 향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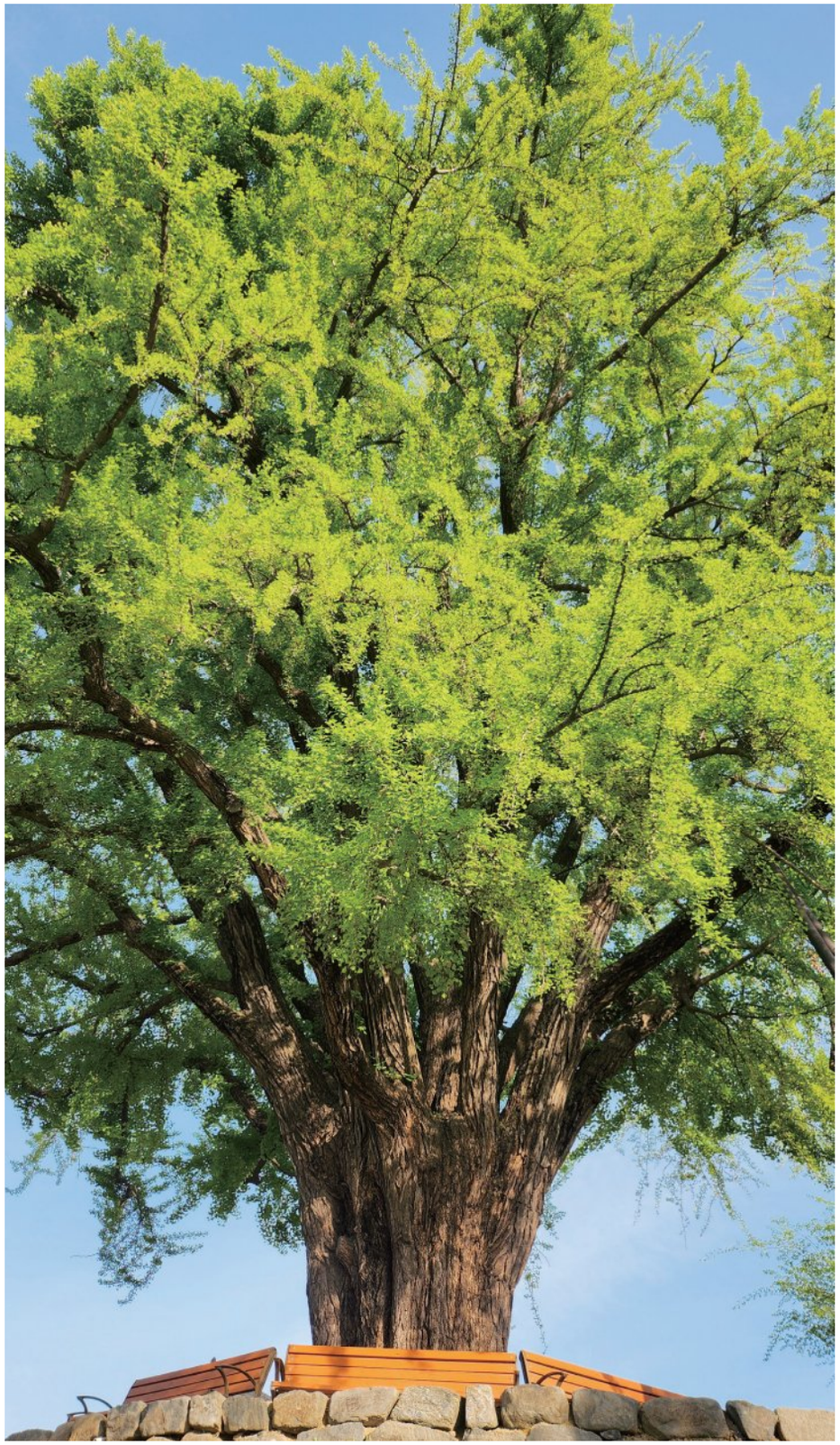
지정번호	여주-65
지정년도	1982
관리기관	경기
수령	643년
수고	6m
흉고둘레	2.3m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천송리 282

37°17′52.36″N
127°39′40.73″E



사찰의 마당에 있는 보호수(여주-65) 향나무는 신륵사 명부전과 조사전 앞에 자라고 있다. 신록사에는 고목의 향나무가 4그루 있는데, 그 중 1개의 향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다. 신륵사는 보기 드물게 강변에 위치한 사찰인데, 신라 진평왕(579~631 재위) 때 원효대사가 창건하였다고 하나 정확하지 않다. 신륵사가 명성을 얻게 된 것은 고려 우왕 2년(1376년)에 나옹선사가 이곳에서 열반하여 승탑이 세워지면서부터였다. 나옹선사(1320~1376)는 이름이 혜근, 법호가 나옹이다. 향나무의 나이는 643년으로 추정된다. 나무높이는 6m, 가슴높이둘레는 230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7m 정도이며, 원줄기의 가운데 가지가 갈라져 아래로 처져 있어 전체적으로 갓 모양을 하고 있다. 원줄기는 1m 높이에서 2갈래로 갈라진 후 다시 2m 높이에서 가지 줄기를 내어 퍼져 있다. 줄기는 2m 높이까지 충전재 처리의 외과 수술 흔적이 있으며, 대부분의 가지 줄기가 밑으로 처져 있어 지주 10여 개가 받치고 있다. 잎은 원줄기에서 갈라진 가지마다 뭉쳐 달고 있으며, 보기 좋게 잘 다듬어 놓은 것처럼 보인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향나무를 심은 사람과 관련하고 있다. 가장 적게 알려진 일화는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심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알려진 이야기는 무학대사가 스승인 나옹선사를 추모하기 위하여, 나옹선사의 영정 앞에 향을 피우는 마음으로 심었다는 것이다. 무학대사는 나옹선사의 제자이며, 이성계와 아주 친밀한 관계였다. 다음은 나옹선사와 관련한 이야기이다. 나옹선사가 직접 심었다는 기록과 함께 입적하기 전에 꽂아 놓은 지팡이가 자란 것이다. 한편 신륵사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인 조사전은 덕이 높은 승려들의 초상화를 모셔놓은 곳인데, 가운데에 나옹선사의 스승인 지공대사, 왼쪽에 나옹선사의 제자인 무학대사, 오른쪽에 나옹선사의 초상화가 모셔져 있다. 지공스님 앞에 목조로 조각되어 있는 분은 나옹선사이다.



수도권

은행나무

공자의 사당 재건과 함께 살아난 은행나무

지정번호 오산-3
지정년도 1982
관리기관 경기
수령 311년
수고 20m
흉고둘레 5.2m

경기도 오산시 매홀로 3
37° 09′ 31.00″ N
127° 03′ 46.00″ E

공자의 사당에 있는 커다란 보호수(오산-3) 은행나무는 궐리사의 전통과 역사의 상징이다. 궐리사는 원래 조선 중종 때 대사헌, 안찰사 등을 지낸 공자의 64대손 공서린孔瑞麟(1483~1541)이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낙향한 후 여생을 보내면서 후학을 양성하던 강당터였다. 공서린이 죽어 250년이 지난 후에 강당터는 정조(1752~1800)의 지시로 공자의 영정을 모시고 제하는 공자의 사당이 되었다. 은행나무의 나이는 311년으로 추정되며, 새싹이 돋아나기 이전까지 합하면 500여 년이다. 나무높이는 20m, 가슴높이둘레는 520cm 정도이다. 궐리사의 화두話頭로 살고 있는 은행나무는 원줄기 3m 정도의 높이에서 십 수개의 가지가 갈라졌고, 마치 우산을 펼쳐 놓은 듯 너비 15m 정도의 나무갓이 사방으로 펼쳐진 모양이다. 은행나무에 담긴 전설은 공서린과 관련이 있으며, 주인을 따라 죽었다가 살아난 나무로 전승하고 있다. 공서린은 이곳에 서재를 세우고 잘 자란 은행나무를 골라 강당 앞마당에 옮겨 심었다. 그는 이 나무에 북을 걸고 두드려 제자들을 불러 모으거나 학업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독려하며 여생을 보냈다. 이는 공자가 은행나무 아래에서 가르침을 베푼 행단杏壇과 같이 그에게도 그 은행나무는 후학 양성에 대한 상징과도 같았는데, 아쉽게도 공서린이 세상을 떠나자 제 소임의 명문을 잃은 그 은행나무도 함께 죽었다. 그로부터 250년쯤 후에 죽었던 은행나무가 기적처럼 살아나기 시작하였다. 정조 즉위 16년 즈음의 일이다. 정조는 한양에서 부모의 묘를 모신 화성(현재의 수원)을 찾아 가려면 궐리사를 거쳐야만 하였다. 정조가 그곳에서 쉬고 있을 때에 많은 새들이 모여드는 곳을 보았는데, 그것을 괴이하게 여겨 가까이 가서 보니 죽은 은행나무에서 새싹이 돋아났다. 이 즈음에 정조는 이곳이 공자의 후손인 공씨 집성촌과 공서린이 후학을 양성하던 강당 터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공자의 사당을 건립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사당이 완공된 후에는 중국 공자의 고향인 궐리闕里의 이름을 따 궐리사闕里祀라는 이름을 손수 사액賜額하였다. 마을 이름도 공자의 고향인 중국 곡부현 궐리의 이름을 그대로 따라서 궐리 또는 궐동으로 부르도록 하였다. 고사하였던 은행나무가 신기하게도 궐리사의 재건과 함께 다시 부활하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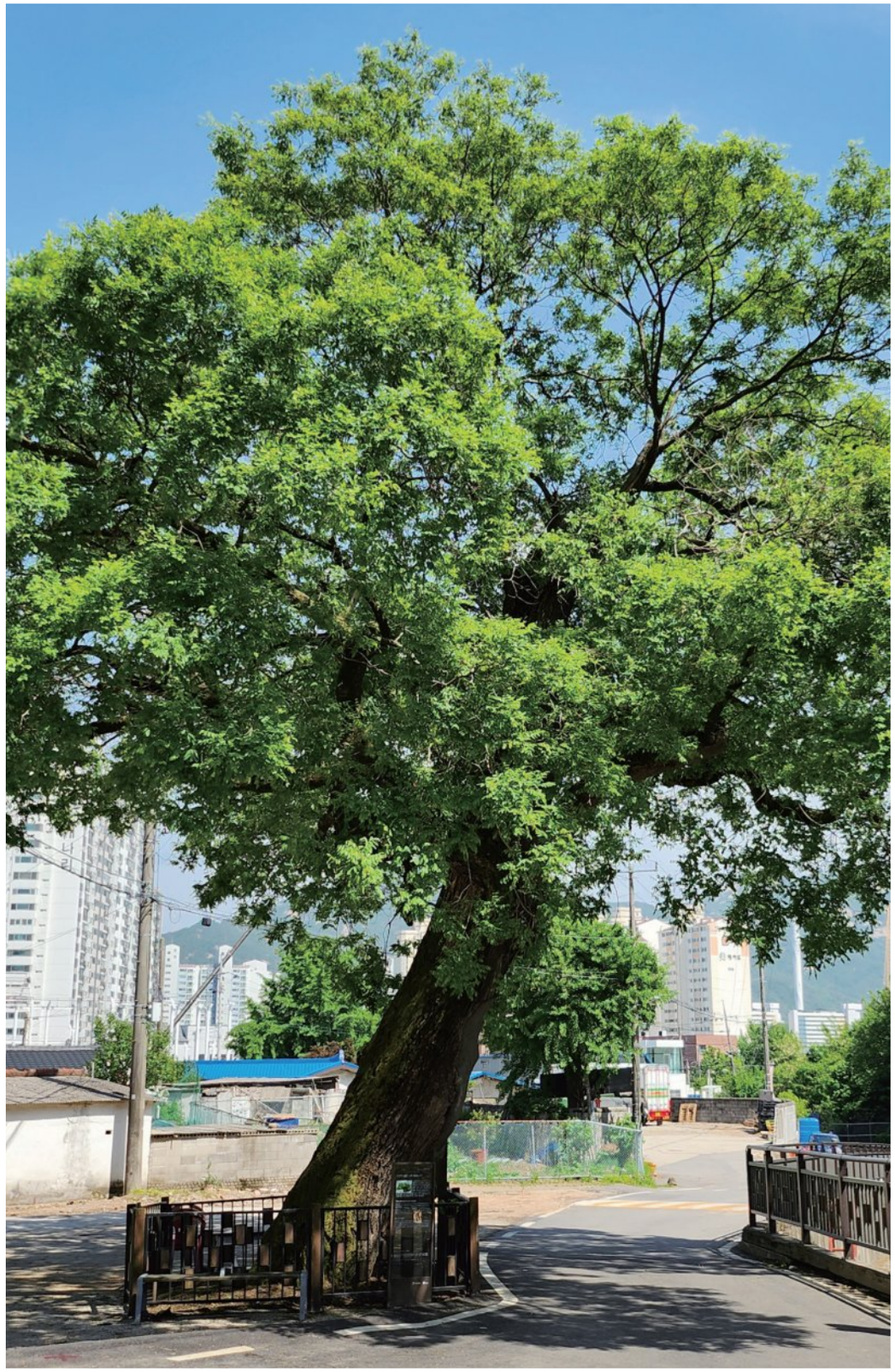
수도권

회화나무

도인이 심어 쉼터 그늘을 제공한 회화나무

지정번호 의정부-1
지정년도 1982
관리기관 경기
수령 450년
수고 13m
흉고둘레 4.6m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300-35
37°43′24.16″N
127°02′15.39″E



회룡사 가는 곳에 있는 보호수(의정부-1) 회화나무는 개울(하천)과 인접한 아스팔트길 가운데에서 자라고 있다. 회화나무의 나이는 450년으로 추정된다. 나무높이는 13m, 가슴높이둘레는 460cm, 밑동둘레는 560cm 정도이다. 화화나무는 원줄기가 5m 높이에서 굵은 가지가 갈라져 자라고 있으며, 가운데의 줄기는 나무높이 25m 정도까지 자란 적도 있으나 높이 9m 정도에서 부러진 후 현재의 높이가 되었다. 원줄기 높이 3m 정도까지는 충전재 처리가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는 그곳이 크게 비어 있어 어린이들이 드나들며 놀았다. 이곳에서 만난 동네 어르신은 현재 줄기가 충전재로 채워져 막혀 있으나 굵은 줄기 속이 대부분 썩어 비어 있는 상태라며, 큰 바람이 불면 속이 빈 줄기가 꺾여 지나가는 사람을 덮칠까 봐 두렵단다. 이곳은 북한산 둘레길 15구간 안골길이어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있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회화나무 식재와 관련이 있다. 어느 날이었다. 어느 도인이 회룡사를 가기 위하여 길을 가고 있었다. 한참을 걸어가던 도인이 작은 개울을 지나고 나서 쉴 곳을 찾았다. 그러나 개울에 발을 담그는 등의 쉴 곳이 없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였다. 도인은 회룡사를 갔다가 돌아온 후 개울 주변에 회화나무를 심었다. 도인은 회화나무가 크면 나무 그늘의 쉼터가 될 것을 예견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마을의 어르신은 회화나무가 죽을 고비를 넘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2000년대 초였다.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때 하천(개울)이 무너졌고, 그 때 하천과 인접하여 있던 회화나무도 큰 뿌리를 드러내면서 약간 기울어졌다. 드러난 뿌리가 특이하게도 2갈래로 갈라져 옆으로 뻗어 있었다. 뿌리의 굵기가 사람 몸뚱이만큼 굵었다. 그래서 버틸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하천을 복구하면서 드러난 회화나무 뿌리에 흙을 덮어 살려내었다. 현재 화화나무는 하천 방향으로 약간 기울어 있다. 한편, 이곳은 회화나무가 심어지기 이전에 이성계와 무학대사가 오가던 길이었다. 이성계가 왕이 되기 전이었다. 이성계와 무학대사가 이 길을 따라 회룡사를 종종 방문하여 나라의 앞일을 논의하였다. 훗날 이성계가 왕이 되자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끊이질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예전에 신목으로 여겨 제를 지내기도 하였으나 지금은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기도드리고 있다.



수도권

느티나무

귀 달린 뱀이 나타나는 느티나무

지정번호	하남-6
지정년도	1982
관리기관	경기
수령	360년
수고	25m
흉고둘레	6.7m

경기도 하남시 검단남로 48
37° 31′ 10.33″ N
127° 13′ 26.12″ E

도로와 기관의 건물 사이에 있는 보호수(하남-6) 느티나무는 천현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하산곡 4통 마을회관 뜰에 자라고 있다. 느티나무가 있는 동네는 하산곡동이지만 행정기관 이름은 옆 동네 이름의 천현동 행정복지센터이다. 느티나무는 나무나이가 360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나무높이는 25m, 가슴높이둘레는 670cm, 밑동둘레는 830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25m 가량이다. 원줄기는 높이 2.5m 정도에서 크게 4갈래로 갈라진 후 다시 가지가 갈라져 부채모양으로 펼쳐져 있다. 보호를 위하여 가지 줄기 몇 개가 절단되었고, 군데군데에 충전재 처리의 작은 흔적이 있으나 생육상태가 매우 양호하였다. 1999년 교통사고로 줄기에 피해를 입어서 외과수술을 실시하였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귀 달린 뱀과 관련이 있다. 옛날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날이었다. 한 어르신이 거센 비바람에 마을의 수호목인 느티나무가 쓰러질 것을 걱정하여 느티나무 아래로 다가가서 서성거렸다. 그때 어르신의 발아래로 커다란 뱀 한 마리가 지나갔다. 머리에는 희한하게도 귀가 뾰족 솟아 있었다. 통상적으로 보는 그런 뱀이 아니었다. 이상하게 생긴 모양에 깜짝 놀란 어르신은 뒷걸음질해서 뱀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그러다가 귀가 달린 뱀 모양이 너무도 특이하여 뱀에게 절을 하였다. 그 뒤 어르신의 집은 매년 농사가 잘되어 돈을 많이 벌었고, 식구들도 모두 건강하게 생활하였다. 또한 느티나무는 잎이 전체에서 한꺼번에 나면 풍년이 들고 부분적으로 나거나 조금씩 나면 흉년이 든다는 전설이 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느티나무를 신목으로 여겨 이 나무 앞을 지날 때 합장하고 지나간다. 제단이 설치된 곳은 펜스 설치가 없이 개방되어 있다. 벤치가 놓여 있다. 마을 입구의 마을회관 옆에 있어 여름철 휴식처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다.

천연기념물 절차를 밟았던 느티나무

지정번호 화성-37
지정년도 1982
관리기관 경기
수령 1,338년
수고 20m
흉고둘레 9.5m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증거리 468
37°08′31.06″N
126°58′28.92″E



대한민국 보호수 100개소 선정을 할 때에 경기도와 협의한 사항이다. 화성시에서 나무나이가 가장 오래된 보호수를 선정하여 현장조사를 마친 후 해당기관의 협의 검토를 부탁드렸는데, 당시의 보호수 담당 공직자는 다른 나무로 대체하면서 선정을 취소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당시에 취소 요청을 받은 보호수가 향남면 증거리의 느티나무이었다. 이 느티나무는 당시에 100개소 선정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후 화성시는 이 느티나무가 대한민국 현존 느티나무 중 3번째 오래도록 살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 보호수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은 바 있다. 이 느티나무는 나무나이가 1,338년의 노거수이다. 높이 20m, 가슴높이둘레 9.5m 정도이니 그 위용이 하늘을 찌를 듯하다. 예전에는 훨씬 더 크게 자랐는데 어느 날 벼락을 맞아 나무 위쪽이 꺾어져 날아갔다. 마을 사람들이 전하는 말에 따르면 원래 2그루가 마치 쌍둥이처럼 나란히 자라고 있었으나 한 그루가 죽어 현재 이 느티나무만 남아 있다. 그리고 마을에는 이 느티나무 외에도 같은 크기의 나무가 2그루 더 있었다. 한 나무는 벼락 맞아 갈라져 죽었는데, 사람들이 약에 쓴다고 조각조각 떼어서 없어졌다. 다른 한 나무는 구멍이 크게 나서 여름에 나무 밑에 소를 묶어 놓으면 구멍에 들어가서 쉬곤 하였다. 그냥 내버려두었더니 점점 쪼그라지다가 사그라졌다. 이 느티나무는 시골 마을의 가운데에서 오래도록 버티고 있다. 사실 좁은 골목길의 비탈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나무로 보였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곳이 그늘과 휴식, 편안함과 안식을 아낌없이 주는 쉼터로 여기고 있다. 옛날에는 이 나무 아래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사람도 있었다. 어린아이들의 놀이터이기도 하였다. 한량들이 모여 활을 쏘며 놀았던 활터였다. 이곳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고 친근한 장소였다. 주민들은 이 마을이 처음 생길 당시 이 느티나무 주변으로 둥그렇게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해 지금의 마을을 이루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 마을 뒷산은 예전에 주민들이 정월 대보름날이 되면 올라가 쥐불놀이도 하고 둥그렇게 떠오르는 달을 보며 망월을 즐기던 곳이다. 농사의 일손이 한가한 농한기에는 멍석을 함께 짜는 등 만능의 공간으로 활용되어오는 곳이다.

수도권

은행나무

어머니의 눈을 뜨게 한 신기한 은행나무

지정번호	양평-20
지정년도	1982
관리기관	경기
수령	710년
수고	13m
흉고둘레	7.2m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쌍학리 564-2

37° 24′ 50.44″ N
127° 44′ 40.69″ E



마을의 정자목이면서 수호목인 보호수(양평-20) 은행나무는 창촌마을의 인가와 개울 옆에서 자라고 있다. 쌍학2리 길가와 마을회관 앞의 공터에 있다. 은행나무의 나이는 710년으로 추정된다. 나무높이는 13m, 가슴높이둘레는 720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20m 가량이다. 원줄기는 높이 1m 정도에서 7~9개가 사방으로 갈라져 옆으로 넓게 퍼졌다. 갈라진 줄기는 다시 작은 가지를 내었고, 무성하게 잎을 달아 풍성하게 보인다. 동서 방향으로 길게 뻗은 가지는 지지대로 받치고 있지만 지지대를 받치기 전에는 지면에 닿았다. 1998년 태풍 때에 가지가 찢기면서 한 쪽으로 치우친 모양이다. 말라 죽은 줄기의 끝부분은 자른 상태이며, 밑동 부근의 맹아지에서 잎이 많이 나와 달려 있다. 눈높이에서도 성숙한 은행을 볼 수 있다. 생육상태는 중간 정도이다. 은행나무는 이천에서 이주해 온 박사문이라는 사람이 심었으며, 오랜 세월 동안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 역할을 하고 있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효자와 관련이 있다. 500여 년 전에 방영환이라는 효자가 있었다. 그는 80세 된 모친이 갑자기 눈이 멀어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에 동네 의원을 찾아다니며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좀처럼 나아지지 않게 되자 매일같이 이 은행나무 밑에서 모친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빌었다. 그가 10여 년간이나 오랫동안 정화수를 올리며 기도하여 어머니의 눈을 뜨게 하였다. 그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묘 앞에 움막을 짓고 7년 동안 시묘살이를 하였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이 은행나무를 '효자나무' 또는 '효목孝木'이라 이름하고 있으며, 젊은이들과 자식들에게 효행을 가르치는 표본으로 삼고 있다. 양동면 단석리 양동 레포츠공원 내에 있는 효열각은 이 은행나무에 10여 년을 빌어 어머니 눈을 뜨게 한 방영환의 효행을 기록하여 기리는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수시로 은행나무 주변에 화단을 만들고 정자를 단장하여 깨끗하게 정리하고 있다. 이 은행나무는 마을의 정자목이면서 수호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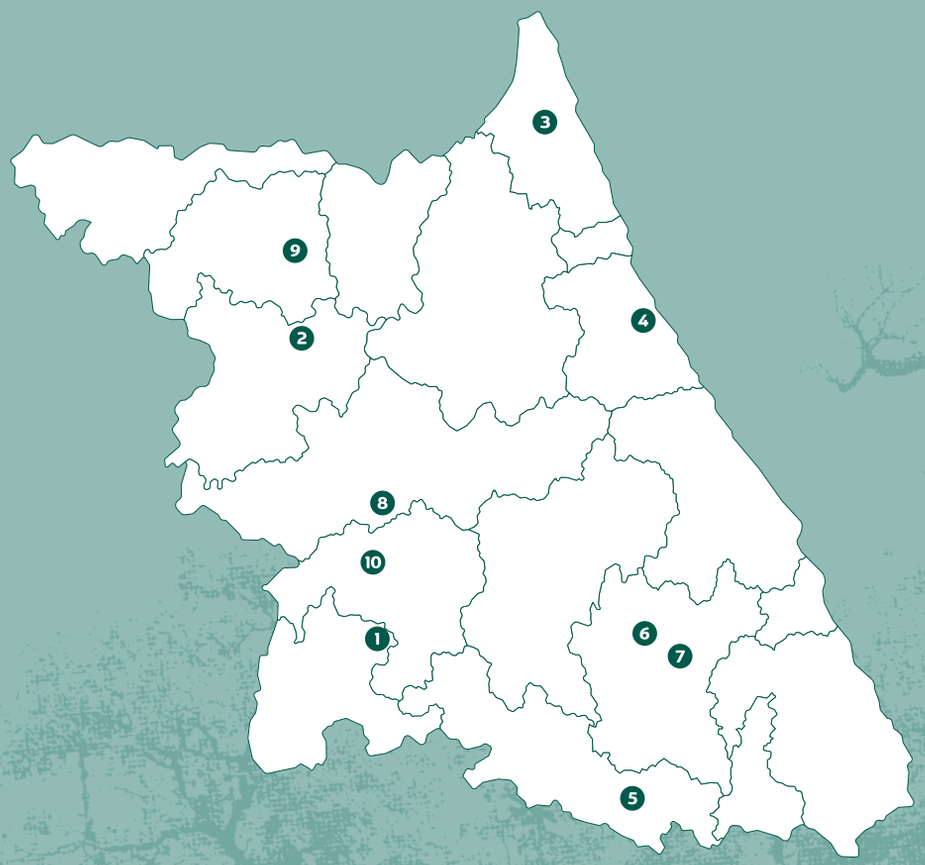
Chapter 2

강원지역

강원도

이야기가
있는
보호수 2

강원지역의 수종별 보호수 찾기



1	용이 승천하는 통로 역할의 **소나무**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258-1	p. 64
2	소양호와 청평사 역사를 간직한 **주목**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청평리 산 189-2	p. 66
3	몇 번의 화재에도 살아남은 **팽나무**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35	p. 68
4	반출 소동을 겪은 마을 수호목의 **소나무**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상운리 263	p. 70
5	소나무 고목과 함께 자라는 신목의 **음나무**	강원도 영월군 중동면 녹전리 966	p. 72
6	학교숲을 구성하는 **비술나무**	강원 정선군 정선읍 봉양4길 15	p. 74
7	신목이면서 예전 놀이터 장소의 **음나무**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894-2	p. 76
8	홍천향교 유묘를 옮겨 심어 자란 **느티나무**	강원 홍천군 동면 노천리 815-2	p. 78
9	흰빛 호랑이의 전설을 가진 **느티나무**	강원 화천군 화천읍 호음로 806	p. 80
10	황금빛 구렁이가 살았던 **느티나무**	강원 횡성군 공근면 청곡리 371	p. 82

용이 승천하는 통로 역할의 소나무

지정번호	강원-원주-69
지정년도	1982
관리기관	원주
수령	310년
수고	13m
흉고둘레	4m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258-1
37°26′04.32″N
128°04′01.69″E



줄기가 약간 꼬여 있는 보호수(강원-원주-69) 소나무는 마을의 완만한 구릉지에 자라고 있다. 소나무의 나이는 310년이다. 나무높이는 13m, 가슴높이둘레는 400cm 정도이다. 나무갓은 일부 가지가 아래로 드리워 있어 전체적으로 삿갓 모양이다. 원줄기는 높이 3.5m 정도에서 2갈래로 갈라지고, 한 줄기는 3갈래로 갈라져 한 몸인 것처럼 꼬여 엮여서 사방으로 뻗기도 하고, 일부가 지표면까지 처져 있다. 위쪽의 가지 줄기는 비틀린 용틀임을 하고 있는 모양이다. 줄기는 외과수술 흔적이 있으나, 생육상태는 양호하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용과 관련이 많다. 치악산 용소에 용이 9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그중 8마리는 하늘로 승천하였다. 승천하지 못한 1마리의 용은 용소물을 따라 내려오면서 용너미, 용고개를 지난 후 이 소나무를 통하여 승천하였다고 하여 '용소나무'라 불렀다. 또 다른 이야기는 치악산 구룡사 창건설화와 혼합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시기적으로 맞는 건 아니다. 의상대사가 구룡사의 절터로 점지한 연못에는 9마리의 용이 살고 있었다. 의상대사는 용과의 도술 시합에서 이겨 절을 짓게 되었고, 시합에서 패한 용들은 약속대로 모두가 하늘로 날아갔다. 9마리 중 8마리는 천지봉쪽으로 해서 동해로 날아갔는데, 1마리는 미처 날아가지 못하고 구룡사 위에 있는 용소에 머물게 되었다. 용소에 머물던 1마리는 용소의 물을 타고 내려오다 용고개를 넘어 마침내 소나무를 통하여 하늘로 날아갔다. 그래서 이 소나무를 '용소나무'라 불렀다. 구룡사는 의상대사가 668년 창건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으나 이 소나무의 나이가 310년이므로 시기의 차이가 많은 편이다. 마을 사람들은 소나무를 당산목으로 신격을 부여하여 3월 삼짇날이나 9월 중양절에 마을의 안녕과 화합을 위하여 정성껏 제를 올렸다. 또한 주민들은 대소사가 있을 때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정화수 한 그릇을 바치고 이 소나무에 소원을 빌며 마음의 평온을 찾았다.

소양호와 청평사 역사를 간직한 주목

지정번호 강원-춘천-2
지정년도 1982
관리기관 춘천
수령 810년
수고 12m
흉고둘레 2.2m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청평리 산 189-2
37° 59′ 12.47″ N
127° 48′ 30.84″ E



오봉산은 5개의 봉우리가 발달한 산이다. 춘천 시내에서 북동쪽으로 소양호의 물길을 따라 올라가는 골짜기를 품고 있다. 계곡 중심에 춘천의 자랑인 청평사淸平寺가 있다. 도교적 은둔관과 불교의 선禪 사상이 내재한 절이다. 청평사 회전문에 깃든 전설이 잘 알려져 있다. 옛날 중국의 어느 공주를 사랑하는 청년이 황제에게 죽임을 당하자 뱀으로 환생하여 사랑하는 공주의 몸을 감고 떨어지지 않았다. 한 스님으로부터 고려의 청평사에 가면 뱀을 떼어낼 수 있다는 말을 들은 공주는 몸을 감은 뱀에게 기도하고 오겠노라며 청평사로 갔다. 공주를 기다리다 지친 뱀이 공주를 찾아 청평사에 들어서다 회전문 앞에서 벼락을 맞고 폭우에 떠밀려 죽고 말았다. 계곡에는 상사뱀 전설이 있는 공주 동상이 있다. 청평사의 자랑은 이것만이 아니다. 흔히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을 간다'는 나무가 있다. 주목이다. 수식어에 걸맞게 이 나무는 높은 산야에 자라면서 위풍당당하게 크고, 죽어서도 세찬 눈보라와 비바람을 견디면서 그 모습을 오래도록 남겨둔다. 이런 나무가 그렇게 높지 않은 오봉산 자락의 청평사에 자라고 있다. 고목으로 자라는 주목은 2그루이다. 청평사에는 보호수(강원-춘천-2)로 지정한 주목이 커다랗게 자라고 있다. 경내가 아니라 언저리의 비탈면에 위치하고 있다. 하나는 나무나이가 810년이다. 지표면과 붙은 줄기부터 가슴높이까지의 붉은빛 줄기에 외과치료를 한 흔적이 있다. 수형은 사방으로 넓게 퍼져 있다. 청평사의 흥망성쇠를 지켜본 나무이다. 바로 옆의 주목도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이다. 나무나이가 500년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며, 바로 옆 주목의 후계목으로 여기고 있다. 이 나무는 생육상태가 양호한 편이며, 사찰과 잘 어울리는 풍광을 보여주고 있다. 청평사는 영화 '생활의 발견'에서 주인공이 남루한 일상을 벗어나 홀로 떠나간 첫 번째 여행지이었다. 춘천에서 가장 잘 알려진 여행지 중 하나가 오봉산 자락에 있는 청평사이다. 때문에 많은 방문객이 찾는다. 방문객들은 커다란 주목의 보호수 앞에 이르면 으레 나무 앞에 동전을 던지면서 소원을 빈다. 경내 초입에 높게 자란 은행나무의 위용도 감탄을 자아낸다.



강원지역

팽나무

몇 번의 화재에도 살아남은 팽나무

지정번호	강원–고성–10
지정년도	2008
관리기관	고성
수령	360년
수고	15m
흉고둘레	4.4m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35
38 ° 24 ′ 09.72 ″ N
128 ° 22 ′ 45.70 ″ E

사찰 건봉사 입구에 자라는 보호수(강원–고성–10) 팽나무는 몇 번의 화재로 대가람이 전소될 때도 살아남은 나무이다. 고성의 건봉사는 금강산에 속한 사찰이며, 이름이 있는 명소이다. 신라 법흥왕 7년(서기 520)에 지어진 사찰이라 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다. 조선 세조 10년에는 왕실의 후원 사찰로 지정을 받았을 정도로 이름이 널리 알려졌었다. 건봉사는 3,183칸이 1878년 4월 3일 산불로 소실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6·25한국전쟁 당시에도 큰불을 피하지 못하였다. 팽나무의 나이는 360년(지자체 행정기록 중심 추산)으로 추정되지만 마을 사람들은 500년 이상을 살고 있다고 말한다. 표지판의 나무 나이도 500년이다. 나무높이는 15m, 가슴높이 둘레는 440cm 정도이다. 원줄기는 2.5m 높이에서 크게 2갈래로 갈라졌다. 하나의 굵은 가지 줄기는 거의 곧게 위로 향하고 높이 4m 정도에서 3갈래로 갈라졌으며, 다른 가지 줄기는 옆으로 뻗은 후 높이 3m 정도에서 2갈래로 갈라져 위로 향하고 있다. 가지 끝이 말라 죽은 것이 있으나 생육상태는 양호하다. 팽나무는 개울가와 건봉사의 불이문不二門 사이에 서 있다. 불이문 옆에 자란다는 표현이 더 알맞다. 불이문은 진리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의미이다. 불이문은 건봉사의 출입문인데, 팽나무와 함께 6·25한국전쟁 때의 화마에도 불에 타지 않은 유일한 건물이다. 팽나무와 불이문이 불을 피해 간 것은 건물 기초석에 새겨져 있는 금강저(불교의식에 사용하는 용구)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전한다. 금강저가 수호의 기능을 하여 불이문과 그 옆의 팽나무를 지켜내었다. 반면에 마을 사람들은 불이 났을 때에 팽나무가 불이문을 지켜준 것으로 믿고 있다. 팽나무는 우리 민족과 오래전부터 인연을 맺어온 나무이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존재로 추앙을 받아왔다. 이곳의 팽나무는 한자 이름이 박수朴樹이다. 마을의 당산목에서 굿을 하는 남자무당을 박수무당이라 한다.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빌어주는 당산목이고, 건봉사 상징목이다.



강원지역

소나무

반출 소동을 겪은 마을 수호목의 소나무

지정번호	강원–양양–22
지정년도	2011
관리기관	양양
수령	262년
수고	17m
흉고둘레	4.5m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상운리 263

38° 02′ 36.29″ N
128° 40′ 52.33″ E

바닷가 인근의 마을 길이면서 농로의 3갈래 지점에 있는 보호수(강원–양양–22) 소나무는 낮은 산과 숲으로 둘러싸인 야산에서 주변과 조화를 이루어 자라고 있다. 풍치목이다. 보호수인 소나무 바로 곁에 또 다른 고목의 소나무가 자라고 있다. 소나무의 나이는 262년으로 추정된다. 나무높이는 17m, 가슴높이 둘레는 450cm 정도이다. 원줄기는 높이 1.5m 정도에서 2갈래로 갈라져 위로 향하고 있으며, 한 줄기는 높이 4m 정도에서 다시 2갈래로 갈라진 후 여러 가지를 퍼지게 하여 잎을 달고 있다. 곧은 줄기는 군데군데에서 고사한 가지 줄기를 자른 양상이다. 생육상태는 양호하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신목 및 반출 일화 등이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나무가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목으로 여겨 매년 이 소나무 아래에서 무사태평을 기원하는 제를 지내왔다. 일부 사람들은 어떠한 사연도 없이 그냥 제주도에서 건너온 소나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또한 마을 주민들이 마을 숲에 있는 소나무들이 훼손되는 것을 막아내 이야깃거리가 된 바 있다. 2013년의 일이다. 마을 주민들이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기는 소나무가 반출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러자 결국 동네의 소나무 소유자는 상운리의 수백 년생 소나무 20여 그루를 캐내기 위한 굴취 신청서를 군청에 접수하였다가 취하하였다. 이렇게 소나무 반출 소동이 마무리되었지만 상운리에서 소나무를 반출하려는 시도가 이대로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마을의 소나무 숲 일부가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소나무 반출 소동은 언제든 다시 재현될 수 있다. 주민들은 그때가 언제가 되든지 앞으로도 소나무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다. 마을 사람들은 지금까지 마을 숲에서 소나무가 외지로 나간 적은 한 번도 없고, 사람이 개인적으로 직접 손상을 입힌 적이 없다. 소나무 숲이 손상을 입은 것은 지금까지 2번에 불과하다. 6·25한국전쟁과 태풍 같은 천재지변이 있었을 때인데, 이때에도 주민들이 소나무 숲을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 이 마을의 '소나무 숲'은 그 자체가 명품이다. 소나무들 중에는 나무나이가 1,000년인 것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운리 소나무는 2010년에 양양군 소나무명품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경력도 있다.

소나무 고목과 함께 자라는 신목의 음나무

지정번호	강원-영월-30
지정년도	2003
관리기관	영월
수령	421년
수고	16m
흉고둘레	3.5m

강원도 영월군 중동면 녹전리 966
37° 07′ 57.78″ N
128° 43′ 28.55″ E



음나무는 엄나무라 부른다. 보호수(강원-영월-30) 음나무는 421년을 살고 있으며, 특이하게도 400년을 훨씬 넘긴 소나무가 그 옆에서 사이좋게 자라고 있다. 녹전리는 강원도 영월군 중동면에 속하는 마을로,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녹반리와 유전리의 지명에서 한 자씩 따서 '녹전리'가 되었다. 녹전리의 응고개는 31번 국도가 개통되기 전에 많이 이용하였던 고개이다. 이 고개 마을은 태백산 신령이 되어 가는 단종에게 머루를 바치는 영정이 모셔져 있었으나 1972년 당집과 함께 불태워졌다. 그러나 그 자리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음나무(개드릅나무, 엄나무) 당목이 남아 있다. 예전에는 음나무 당목이 있는 곳은 신성시되었는데, 정월 대보름날 돼지를 잡고 떡, 삼색실과, 메를 지어 놓고 고사를 지냈으며, 제를 지낸 후에는 좌상 어른이 마을에서 잘못한 사람을 꾸짖고, 싸운 사람들을 화해 시키는 등 마을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였다. 고사가 끝나면 돼지고기와 음식들은 마을에서 나누어 먹었다. 태백산 산신령이 되었다는 단종의 영정을 모신 유전리(지금은 녹전리에 포함)의 서낭당은 녹전초등학교를 지나 유전마을로 가는 도로 좌측에 있다. 응고개 서낭당은 1972년 새마을운동 때 미신 타파 정책에 따라 불태워졌지만 유전리의 당집은 불태운다는 소문이 나자 마을 어른들이 서낭당에 기거하면서까지 반대하여 소실되는 것을 막았다. 일설에는 단종이 세조에 의하여 영월에 안치되었다가 시해되어 돌아갔을 때 화가 미칠 것을 두려워하여 누구도 시신을 수습할 엄두를 못 내었다. 그러나 호장戶長 엄흥도嚴興道는 가족 대대로 멸할 위험을 무릅쓰고 이튿날 옥가獄街를 오가며 통곡한 후 관을 마련하여 아전과 백성들을 모아 영월의 북쪽 동을지冬乙旨에 장사 지냈다. 그 후 그는 벼슬을 내놓고 아들과 함께 숨어 살았다. 그 엄흥도가 죽어서도 단종을 보필하겠다고 음나무가 되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단종의 영혼이 영월을 떠나 태백으로 가서 태백산의 산신령이 된 것으로 믿고 있다. 이를 직시하면 영월에서 태백에 이르는 길 곳곳의 성황당(서낭당)은 신목으로 음나무를 심은 곳이 많다.

학교숲을 구성하는 비술나무

지정번호	강원–정선–22
지정년도	1982
관리기관	정선
수령	326년
수고	28m
흉고둘레	6.4m

강원 정선군 정선읍 봉양4길 15
37°22′41.34″N
128°39′43.23″E



학교숲을 이루는 보호수(강원–정선–22) 비술나무는 함께 사용하는 정선중학교와 정선고등학교의 운동장 끝 가장자리에서 자라고 있다. 이 보호수는 관공서 기록 및 일반 매스컴을 포함한 표지판에서 느릅나무라고 이름하고 있으나 실제로 커다란 이 나무는 느릅나무와 비슷한 비술나무이다. 정선중학교와 정선고등학교의 교목이 느릅나무인 것도 학교 교정의 이 나무를 느릅나무로 여겨 상징하는 것 같지만 학교숲의 나무는 느릅나무가 아니라서 아쉽다. 비술나무의 나이는 326년으로 추정된다. 나무높이는 28m, 가슴높이둘레는 640cm 정도이다. 원줄기는 높이 2.5m 정도에서 2갈래로 갈라져 있고, 높이 7m 정도에서 한 줄기가 2갈래로 다시 갈라진 후 올라가면서 몇 개의 가지 줄기가 갈라지고 가지를 내어 전체 나무모양을 만들고 있다. 높이 10m 정도에서 고사한 가지를 절단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생육상태는 양호하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특별히 알려진 것이 없지만 '정선중고학교숲'을 이루는 주요 나무이다. 학교숲은 학교 옥외 환경개선 및 녹지량 확충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함과 아울러 학생들의 정서 순화를 돕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교에 조성한 숲이다. 또한 학생들에게 자연체험 학습기회 및 자연학습의 장을 제공하여 주고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된 곳이다. 이곳의 학교숲은 좁은 면적이지만 떨기나무 몇 그루와 커다란 하나의 비술나무가 어우러져 있다. 마치 비술나무 하나가 숲을 이루는 것처럼 보인다. 학교숲은 '쓸모 있는 사람이 되자'는 표지석도 세워져 있다. 또한 비술나무 앞에는 2006년 개교 60주년을 맞이하여 2046년에 개봉할 수 있도록 한 '타임캡슐' 매장의 표석비도 있다. 한편 이 비술나무와 같은 학교 교정의 운동장에 있던 보호수 은행나무는 현재 말라 죽어 없어졌다.

신목이면서 예전 놀이터 장소의 음나무

지정번호	강원-정선-13
지정년도	1982
관리기관	정선
수령	330년
수고	14m
흉고둘레	4.2m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894-2
37° 21′ 39.01″ N
128° 46′ 40.43″ E



줄기에 가시가 많아 엄나무라고도 부르는 보호수(강원-정선-13) 음나무는 작은 마을의 입구(음지좌사길)에 자라고 있다. 음나무 주변은 지방도로와 맞닿아 있고, 밭이 펼쳐져 있으며, 인근에 시골집이 있다. 지방 도로와 마을 길의 좁은 모퉁이에 있기 때문에 철재 보호대(울타리)가 3m 너비로 한정되어 있다. 음나무 아래는 쉼터의 정자가 아니라 의자와 성황당 집이 있다. 음나무의 나이는 330년으로 추정된다. 나무높이는 14m, 가슴높이둘레는 420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10m 가량이다. 원줄기는 가시가 없으며 높이 2.5m 정도에서 가지가 2갈래로 갈라졌고, 갈라진 줄기는 다시 높이 6m, 9m 정도에서 갈라져 옆으로 퍼져 있다. 옆으로 뻗은 가지가 넓게 자란 것이 특징이다. 줄기는 높이 7m 정도에서 고사한 가지 줄기가 절단되어 충전재 처리가 되어 있다. 그리고 가운데 줄기는 맨 위쪽이 고사하여 절단한 상태로 나무높이가 25m에 이르던 것이 현재 10m 정도 줄어들었다. 전체적으로 생육상태는 중간 정도이다. 마을에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신목으로 제를 지내는 것 등이다. 마을 사람들은 음나무를 신성한 성황 당의 나무로 여기고 있다. 매년 정초에 마을의 풍년과 액운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사를 지내고 있다. 마을을 지켜주는 신목의 음나무이지만 예전에는 동네 아이들과 처녀들이 단오 때가 되면 옆으로 뻗은 가지에 그네를 매달고 뛰었다. 예전의 음나무 주변은 어린 아이들의 놀이터이기도 하였고, 여러 마을 사람이 만나는 장소의 이정표였다. 한편 음나무 가시가 귀신을 쫓는다 하여 문 위쪽인 외양간 등에 가지를 꽂아 두기도 하였다. 주로 귀신날에 내려와 신발을 훔쳐 간다는 야광귀신을 쫓아내기 위하여 음나무 가지를 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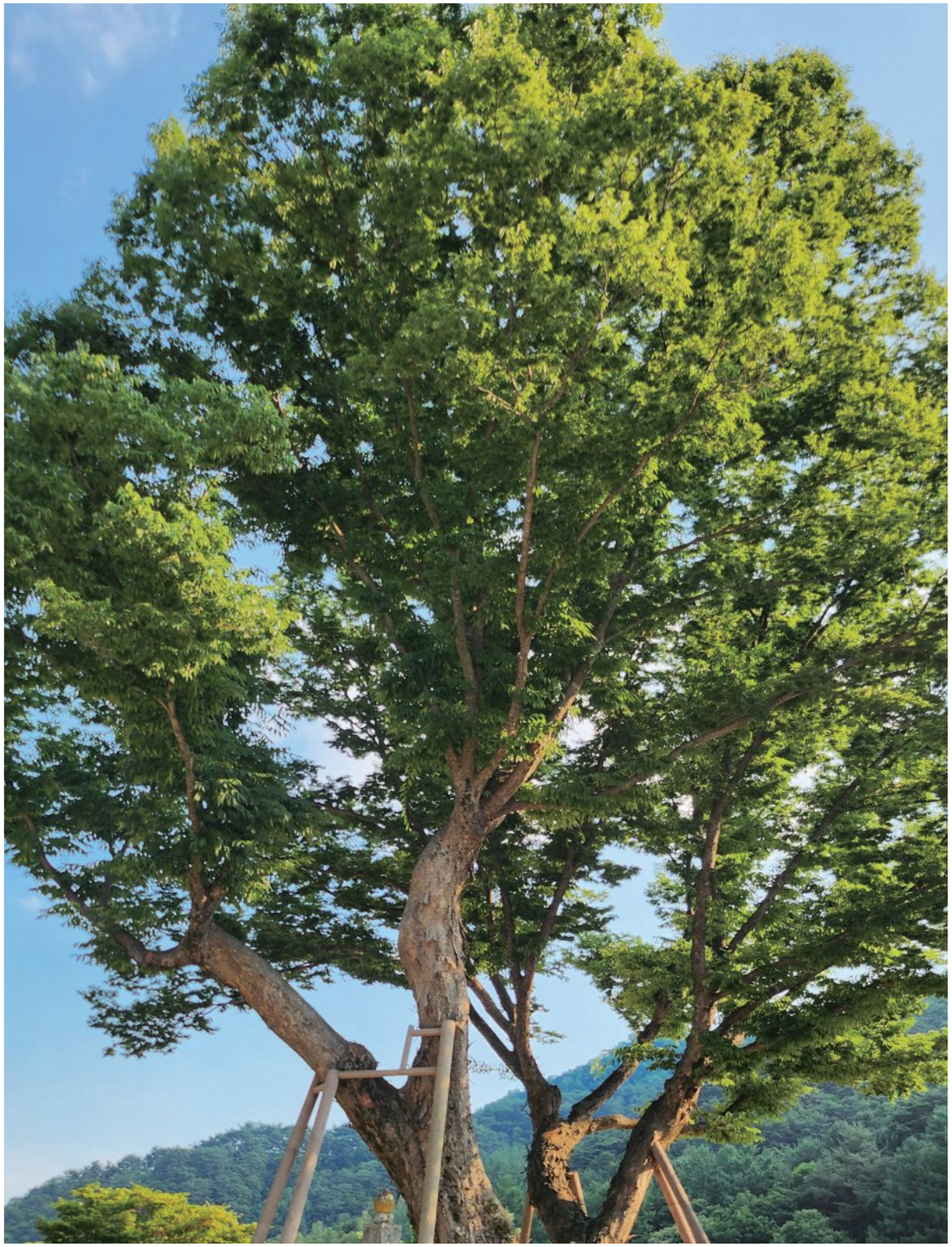
홍천향교 유묘를 옮겨 심어 자란 느티나무

지정번호 강원-홍천-15
지정년도 2002
관리기관 홍천
수령 270년
수고 20m
흉고둘레 4.8m(한쪽)

강원 홍천군 동면 노천리 815-2
37°40′05.59″N
128°01′38.81″E

2그루처럼 보이는 보호수(강원-홍천-15호) 느티나무는 덕우 자연마을 큰길가 덕우천 옆에 위치한다. 그래서 흔히 덕우느티나무라 부른다. 느티나무의 나이는 270년이다. 나무높이는 20m 정도, 가슴높이둘레(큰 것 한쪽) 4.8m 정도이다. 원줄기는 밑동에서 2갈래로 갈라져 2그루처럼 자란다. 갈라진 한 줄기는 높이 1m 정도에서 3갈래로 갈라졌고, 다른 줄기는 옆으로 누워 있으며 2갈래로 갈라졌다. 2009년에 지주대를 설치하였고, 2002년에 외과수술을 크게 하여 보호하고 있다. 생육상태가 양호하다. 마을에서 전승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250여 년 전에 순흥 안씨 19대손 세운이란 사람이 홍천향교의 느티나무 밑에 자라는 어린나무를 옮겨 심고서 정성껏 가꾸었기에 지금까지 잘 자라 노거수가 되었다. 그리고 옛날의 어느 날 마부가 느티나무에 잠시 말을 매어 놓고 쉬고 있었다. 말이 땅바닥의 잡풀을 뜯어 먹으려는 찰나에 갑자기 나무의 옆 가지가 벌어져 누우면서 말을 덮치려고 하였다. 그러자 말이 놀라 고삐를 끊고 주인을 버린 채 도망쳤다. 지금도 옆의 가지가 누워 자라는 것이 그 때문이라 한다. 또 다른 이야기는 이렇다. 누가 이 느티나무에 말을 매었는데 말이 갑자기 놀라 뛰며 고삐를 끊어서 뛰어나갔다. 말 주인이 이게 왜 그런지를 동네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어른들은 신기한 수구의 나무에 함부로 말을 매었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리고 말이 놀라면서 옆의 나무를 눕게 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봄에 느티나무잎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해의 흉작과 풍작을 예측하였다. 나뭇잎이 한쪽 가지에 나오지 않거나 늦게 나오거나 몇 층으로 나오는 해는 가뭄 등으로 마을 농사에 흉작이 온다. 반대로 한꺼번에 똑같이 나오는 해는 풍년이 든다. 2012년에도 잎이 잘 안 나오고 층이 많이 졌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해 봄에 가뭄이 많이 들었다. 마을 주민들은 가뭄이 있을 때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낸다. 느티나무는 마을에 들어오는 재앙이나 액운을 막아주는 지킴이 역할을 한다. 마을 사람들이 당산목으로 여기고 있지만 당산목이 아니라 주장하는 일부 주민도 있다. 느티나무 옆에는 '덕우정'이라는 정자가 있다. 마을 행사 때에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다. 초복 날은 느티나무 아래에서 초복 행사를 하였고, 예전에는 단오가 되면 그네를 매고 뛰었다.





강원지역

느티나무

흰빛 호랑이의 전설을 가진 느티나무

지정번호 강원-화천-3
지정년도 2005
관리기관 화천
수령 410년
수고 23m
흉고둘레 4.6m(한 줄기)

강원 화천군 화천읍
호음로 806
38°07′33.15″N
127°47′26.48″E

예전에 초등학생들의 놀이터였으며 지역 역사를 간직한 보호수(강원-화천-3호) 느티나무는 굽이굽이의 고개 하나를 넘어야 나타나는 산골 마을에 자란다. 이 느티나무가 서 있는 곳은 폐교한 동촌초등학교 교정이며, 현재는 경로당 등이 들어서 있다. 느티나무의 나무나이는 410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나무높이는 23m, 가슴높이둘레는 한쪽이 460cm, 다른 쪽이 450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20m 정도이다. 이 느티나무는 밑동이 특이하다. 커다란 줄기는 1m 거리를 두고 2갈래로 완전히 갈라졌고, 갈라진 한 줄기는 바로 옆에 또 다른 작은 줄기가 땅을 박아 한 몸이 되어 있다. 얼핏 보면 2그루 또는 3그루의 나무처럼 보인다. 원줄기는 밑동에서 충전재 처리의 외과수술 흔적이 있으며, 높이 7m 정도에서 가지가 갈라져 자라고 있다. 생육상태는 양호하다. 100년 전부터 전승하는 이야기는 호랑이와 관련한다. 마을의 어느 어르신의 꿈에 흰빛을 띠는 호랑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호랑이는 살려 달라고 애원하였다. 꿈에서 깨어난 어르신은 꿈이 너무도 생생하여 아들을 서낭당으로 내려보내 기도하고 상황을 살펴보라고 하였다. 서낭당에 도착한 아들은 커다란 나무에 불이 붙어 타고 있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였다. 아들은 급하게 물을 퍼 날라 불을 껐다. 다행하게도 나무 일부분만 불에 타서 죽고 대부분의 줄기가 살아남았다. 그 후 나무는 커다랗게 잘 자라났다. 이 나무가 바로 이곳의 느티나무이다. 주민들은 이 느티나무를 자신의 위기를 꿈을 통하여 알렸던 신기한 나무로 여기고 있다.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생각하고 있다. 또한 느티나무는 마을의 당산목으로 주민들의 생활과 함께하고 있다. 매년 10월 9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사를 이 느티나무 밑에서 지내고 있다. 마을에서는 꿈에 나타난 백호를 기리기 위하여 매년 호랑이 축제를 펼쳐 호랑이와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마을의 길과 산야도 호랑이 흔적이 남아 있는 이름이 있다.

황금빛 구렁이가 살았던 느티나무

지정번호	강원-횡성-10
지정년도	1982
관리기관	횡성
수령	360년
수고	28m
흉고둘레	10.3m(전체 외부)

강원 횡성군 공근면
청곡리 371
37°33′06.86″N
127°58′29.13″E



농로과 지방도로에 접하여 있는 보호수(강원-횡성-10호) 느티나무는 마을 가옥과 멀리 떨어진 밭과 벌판 사이에 홀로 서 있다. 느티나무는 농로에서 보면 사방이 열린 곳에 높이 솟아 있지만 지방도로가 지나는 곳과 인접하여 있으며, 줄기 밑쪽이 굵어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있다. 느티나무의 나이는 360년이다. 나무높이는 28m, 가슴높이둘레는 3갈래 외부 전체가 1,030cm, 밑동둘레는 910cm 정도이다. 원줄기는 밑동에서 3갈래로 완전히 갈라져 3그루처럼 보인다. 갈라진 2줄기는 높이 1.5m 정도에서 각각 2줄기로 다시 갈라져 비스듬히 퍼져 있다. 때문에 줄기는 높이 7m 정도에서 굵은 철삿줄이 서로의 줄기를 당기는 보호를 받고 있다. 철지주도 세워져 있다. 생육상태는 양호하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뱀과 관련한다. 6·25한국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이 느티나무와 그 주변에서 뱀의 출몰이 많았다. 뱀 중에서도 구렁이가 종종 나타났다. 특히 이 느티나무 줄기에는 황금빛의 금구렁이가 살고 있었다. 이 금구렁이는 여름이 시작 될 때 나타나서 마을 주민의 눈에 자주 띄면 흉년(가뭄)이 들거나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 지난 1950년 6월 중순에는 금구렁이가 밤낮으로 출몰이 많았다. 크게 놀라게 하였던 순간은 주민 몇 명이 저녁을 먹고 난 후에 이 느티나무 밑에 앉아 쉬고 있는데, 갑자기 가지 줄기에 있던 금구렁이가 쉬고 있는 사람 등 위로 떨어진 일이었다. 며칠 후 6·25한국전쟁이 발발하였다. 느티나무 주변은 정자, 의자 등 쉼터가 잘 만들어져 있고, 규모가 있는 임시 화장실까지 갖춰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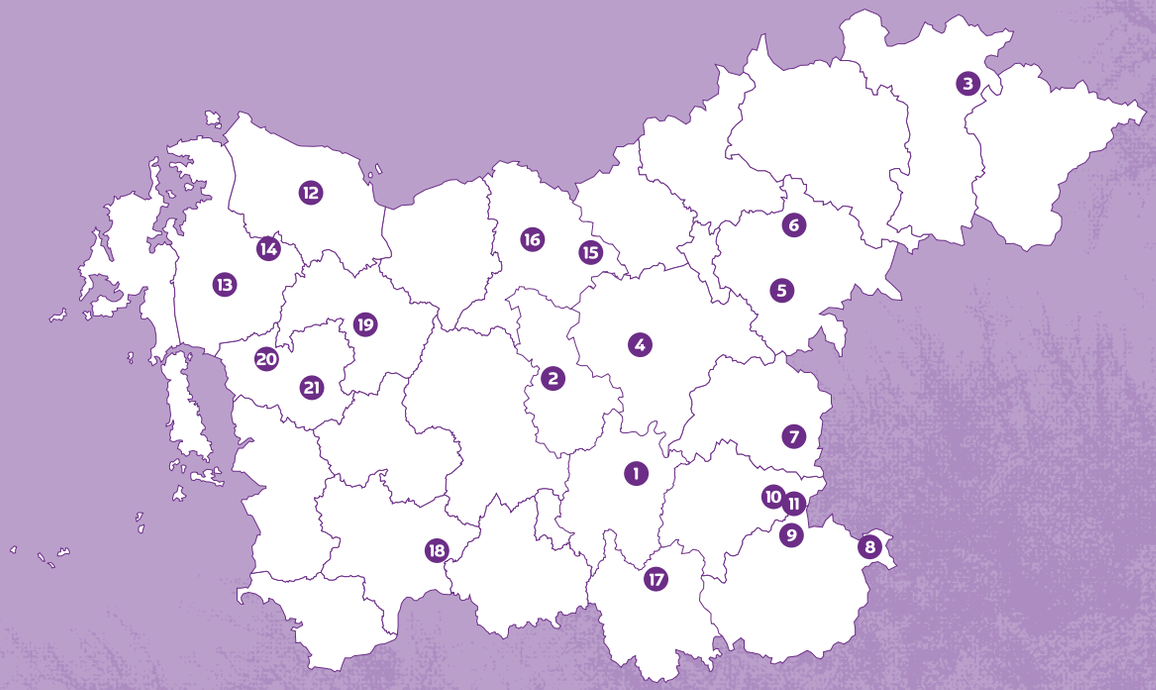
이야기가
있는
보호수 2

Chapter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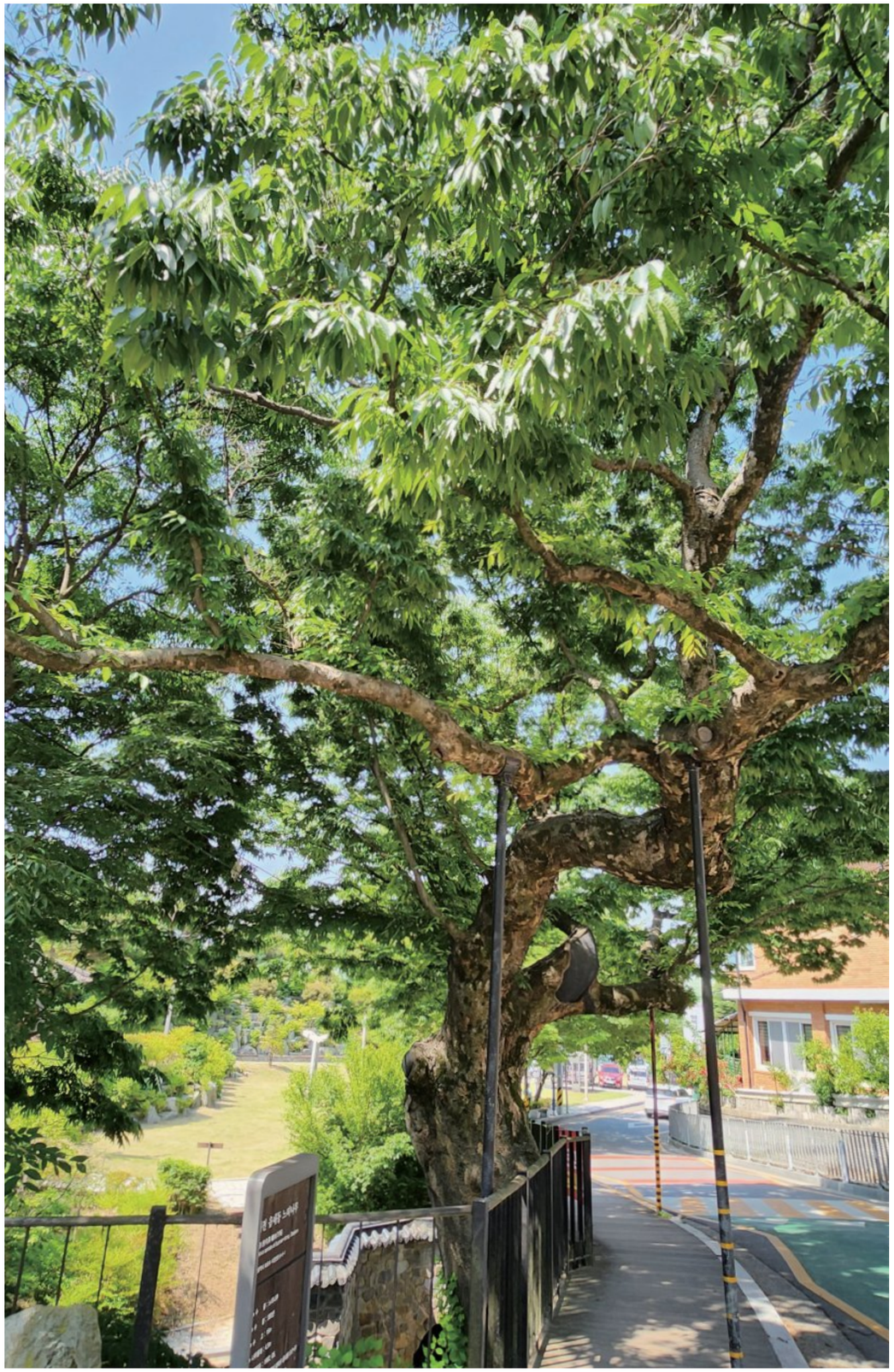
충청지역

충청도

충청지역의 수종별 보호수 찾기



1	개울의 수직바위에 자라는 **느티나무**	대전시 대덕구 읍내동 517-74	p. 88
2	마을 공동체 신앙 대상의 **느티나무**	세종시 장군면 용암리 산18	p. 90
3	주민 보호를 받는 마을 자랑의 **소나무**	충북 제천시 송학면 무도리 832-1	p. 92
4	장원급제 기념하여 심은 봉황송의 **소나무**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1677	p. 94
5	베일 위기에서 주민들이 지킨 **느티나무**	충북 괴산군 문광면 방성리 산 45-1	p. 96
6	자연마을 이름 향촌(행촌) 유래의 **은행나무**	충북 괴산군 불정면 신흥리 206(847)	p. 98
7	묘를 쓰지 못하게 심은 **느티나무**	충북 보은군 마로면 송현리 198-1	p. 100
8	왜군에게 겁을 주는 **은행나무**	충북 영동군 추풍령면 웅북리 367	p. 102
9	무학대사가 꽂은 지팡이에서 자란 **배롱나무**	충북 영동군 황간면 백화산로 652	p. 104
10	동학농민혁명 지휘소에 있던 **느티나무**	충북 옥천군 청산면 한곡리 320	p. 106
11	민족정기 박탈 쇠말뚝 대신 심은 **느티나무**	충북 옥천군 청산면 효목리 산 86-1	p. 108
12	다박솔(다복솔)이라 불리는 **소나무**	충남 당진시 시곡동 230	p. 110
13	고려시대 무술 훈련장소의 **은행나무**	충남 서산시 석남동 510-2	p. 112
14	문화재 석불입상을 보호하는 **소나무**	충남 서산시 운산면 여미리 15-17	p. 114
15	잠을 자던 바위 옆에 심은 **느티나무**	충남 천안시 동남구 동면 행암리 271-1	p. 116
16	풍흉을 예측하는 신목의 **느티나무**	충남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178-8	p. 118
17	일본 군인을 다치게 한 **느티나무**	충남 금산군 추부면 추정리 337	p. 120
18	조선시대 지방청사 동헌에 심은 **탱자나무**	충남 부여군 석성면 석성리 764-3	p. 122
19	아들을 갖게 한 신목의 **은행나무**	충남 예산군 응봉면 증곡리 198	p. 124
20	죽은 행자승의 영혼이 서린 **회화나무**	충남 홍성군 갈산면 내갈리 129	p. 126
21	암수 2그루 중 암그루만 살아남은 **은행나무**	충남 홍성군 구항면 청광리 602	p. 128



충청지역

느티나무

개울의 수직바위에 자라는 느티나무

지정번호 대전-6-5-1
지정년도 1982
관리기관 대전
수령 390년
수고 16m
흉고둘레 4.6m

대전시 대덕구 읍내동 517-74
36° 22′ 40.67″ N
127° 25′ 45.82″ E

계족산 자락의 용화사 가는 길에 있는 보호수(대전-6-5-1) 느티나무는 개울가의 수직 바위와 도로가 만나는 위치에 자라고 있다. 접근성은 도로에서 직접 만나거나 수직 바위 아래로 약간 돌아가서 위를 쳐다보는 방법이 있다. 느티나무의 나이는 390년으로 추정된다. 나무높이는 16m, 가슴높이둘레는 460cm, 밑동둘레는 560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20m 정도이다. 원줄기는 높이 3m 정도에서 크게 2갈래로 갈라졌으며, 남쪽의 3m 높이까지 충전재 처리의 외과수술 흔적이 있다. 생육상태는 도로와 수직 바위 사이의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으나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느티나무가 있는 바위에 새겨진 암각과 관련하고 있다. 보호수 아래에는 '임천林泉'이라는 글이 바위에 새겨져 있다. 임천은 우물의 이름이다. 조선 후기의 숨은 학자가 커다란 느티나무를 끼고 흐르는 개울의 물이 맑고 깨끗함을 기리기 위하여 돌에 임천이라는 글을 새겼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임천은 '수풀 속의 샘'이란 뜻으로 숨은 선비가 있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다. 임천이 우물 왼쪽 바위에 새겨진 것이라면 오른쪽 바위에는 '덕원德原'이라 쓰여 있는 바위가 있다. 덕원은 '회덕의 덕'으로서 덕의 근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느티나무 옆에는 송씨 성을 가진 사람 이름이라는 규원奎園의 암각 글씨도 있는데, 100년 전에 이곳 동네에 살았던 사람이 개발로 집 마당에 있던 암각이 갈 곳을 잃으면서 이곳 나무 옆에 세워놓았다. 느티나무를 지나면 서체를 변경하여 2007년에 복원된 덕원德原과 세외성산世外聖山의 표지도 있다. 세외성산은 세속 밖에 성스러운 산으로서, 인근의 용화사를 품고 있는 계족산을 일컫고 있다.

마을 공동체 신앙 대상의 느티나무

지정번호	세종-46(1982-3)
지정년도	1982
관리기관	세종
수령	592년
수고	12m
흉고둘레	3.7m, 5.3m

세종시 장군면
용암리 산18
36° 33′ 44.45″ N
127° 12′ 46.33″ E



신목인 동시에 정자목으로 이용하는 보호수(세종-1982-3) 느티나무는 마을회관 옆의 2갈래 마을 길모퉁이에 자라고 있다. 느티나무의 나이는 592년으로 추정된다. 나무높이는 12m, 가슴높이둘레는 한 줄기가 370cm, 다른 줄기가 530cm, 밑동둘레는 800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19m 가량이다. 원줄기는 1m 높이에서 2갈래로 크게 갈라져 퍼졌으며, 높이 2m까지 약간의 충전재 처리의 외과수술 흔적이 있다. 생육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다. 느티나무 주위는 흙을 잘 덮어 주고 둘레에 돌을 쌓아 보호하고 있다. 옆의 정자와 함께 휴식 장소로 이용하고 있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마을의 둥구나무와 관련하고 있다. 띠울마을에서 지내는 '띠울둥구나무제'는 매년 음력 정월 열 나흗날에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며 느티나무 아래에서 고목에 올리는 마을 제사이다. 띠울마을이 형성된 이후부터 전승되고 있는 공동체 의례로 추정하고 있다. 띠울둥구나무제의 신앙 대상은 띠울마을 입구에 있는 느티나무 고목이다. 제사를 지내기 전에 느티나무에다 금줄을 치고 제단 주변에 황토를 뿌린다. 의례는 유교식 제례 절차를 따라 예복 차림으로 초헌관이 분향한 다음 초헌관이 술잔을 바닥에 3번 나누어 부어서 신을 모신다. 초헌을 한 후 육적(제사에 사용하는 고기 전)을 올리고, 축문을 낭독하고, 어적(숭어)과 선적(닭고기)을 올린다. 종헌례가 끝나면 축문을 태운 후에는 초헌관이 소지를 올린다. 초헌관은 "이 소지는 새해를 맞이하여 목신에게 올리는 소지올시다. 천년만년 건강하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동민이 건강하고 태평하시며 하시는 일에 만복을 기원하는 소지올시다."하고 나면 마을회관으로 가서 마을 주민들이 제상에 올린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음복한다. 띠울둥구나무제는 마을제사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도 마을 이장과 노인회, 부녀회 등 마을 주민 중심으로 제사를 주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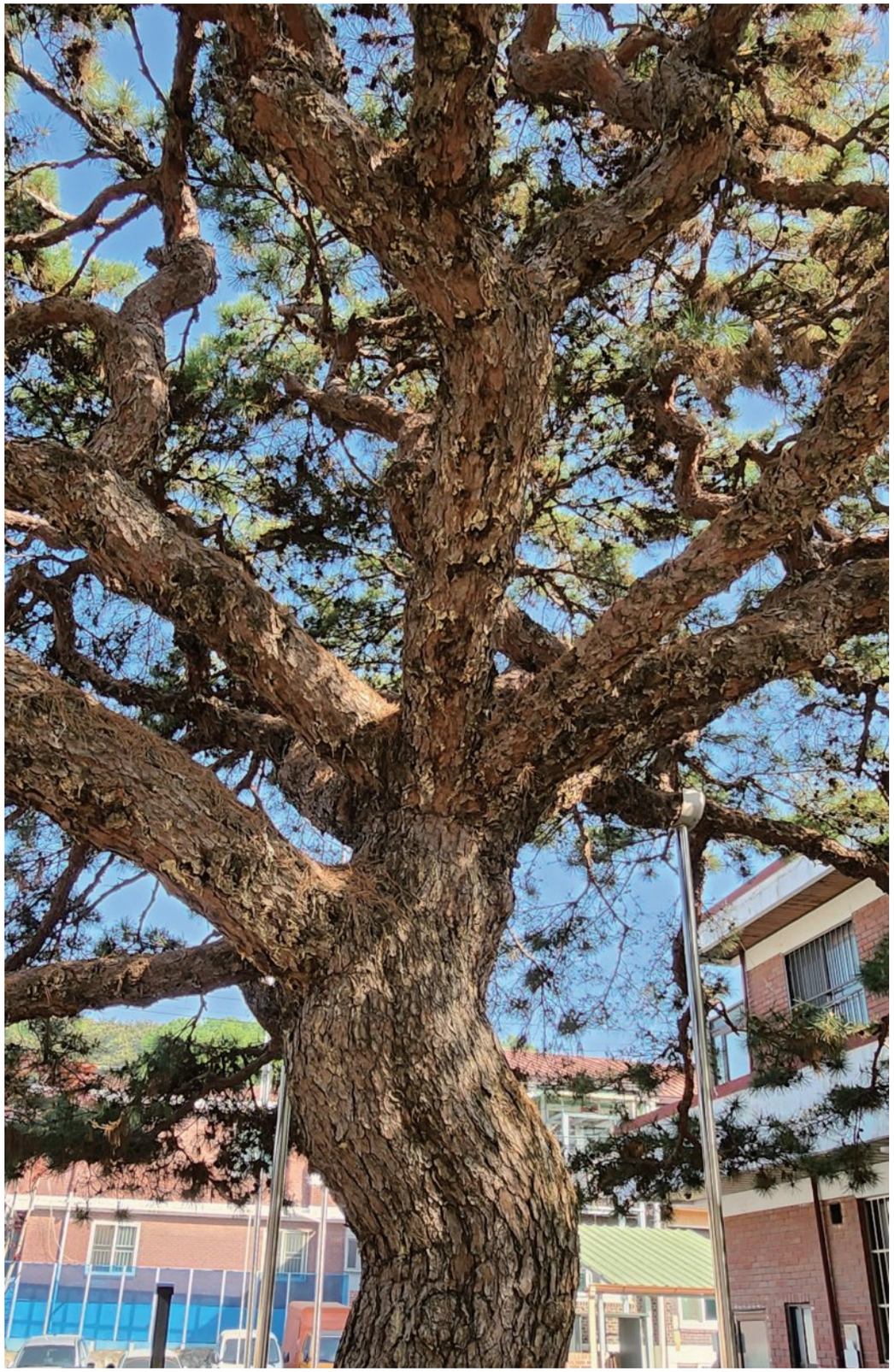
주민 보호를 받는 마을 자랑의 소나무

지정번호 제천-77
지정년도 2003
관리기관 제천
수령 610년
수고 13m
흉고둘레 4.5m

충북 제천시 송학면
무도리 832-1
37° 09′ 02.89″ N
128° 15′ 08.40″ E



마을의 들머리에 있는 보호수(제천-77) 소나무는 주변이 잘 정비되어 있는 길옆에서 수문장처럼 서서 잘 자라고 있다. 소나무의 나이는 610년으로 기록하고 있다. 나무나이는 이 마을에서 전하는 왕박산 이야기를 근거로 하여 추정된 듯하다. 즉 고려왕조의 패망과 함께 왕족이 이곳으로 피신하여 살면서 심은 나무로 여기는 것이다. 나무높이는 13m, 가슴높이 둘레는 450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17m 가량이다. 원줄기 1.5m 높이에서 가지가 3갈래로 갈라진 후 다시 작은 가지로 갈라졌다. 전체적으로는 부채모양을 하고 있다. 소나무는 오랜 세월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잃지 않고 있다. 제천시가 자랑하는 나무 중의 하나이다. 생육상태도 좋은 편이다. 나무와 관련하여 전승하는 그럴듯한 기록이나 전설은 찾기가 쉽지 않다. 관련하여 마을에서 잘 전하는 이야기는 왕박산 전설 정도이다. 무도리의 서문마을에 들어서려면 마을 동쪽을 둘러싼 낮은 산을 바라보아야 한다. 고려 패망의 역사를 담은 왕박산이다. 이곳으로 피신한 고려 왕족은 성을 박씨로 고치고 숨어 살았다. 왕족이 박씨로 성을 바꾸었다고 하여 왕박씨라 하였고, 그 뒷산을 왕박산이라 불렀다. 여기에서 왕박시루의 지명도 유래되었다. 이러한 이야기는 추강 남효온(1454~1492)의 추강냉화秋江冷話에 기록되어 전하고 있다. 소나무에 대한 마을 주민의 사랑이 얼마나 큰 지는 석비에 새긴 설명으로 알 수 있다. 마을에서는 이 소나무를 서낭당으로 모시면서 매년 음력 정월 초사흘날 밤에 마을 주민이 모두 모여 마을의 평안과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서낭제를 정성껏 올리고 있다. 또한 석비는 주민 모두 이 소나무를 영원히 보호하는데 온 정성을 다할 것을 밝히고 있다. 소나무를 사랑하는 마을 주민의 정성이 느껴진다. 마을 주민이석비에 쓴 소나무 찬가도 눈길을 끈다. 소나무 아래에는 성황신위城隍神位라 쓰인 돌 비석이 있다. 소나무가 서 있는 곳은 마을 주민과 이곳을 왕래하는 모든 행인의 편안한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다.



충청지역

소나무

장원급제 기념하여 심은 봉황송의 소나무

지정번호 청주-3
지정년도 1991
관리기관 청주
수령 411년
수고 9m
흉고둘레 2.4m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1677
36° 38′ 41.39″ N
127° 27′ 33.66″ E

청주시의 봉명동은 봉황 전설과 더불어 일부 구역이 봉황을 닮았다고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봉명 1동과 봉명 2송정동에 속하는 법정동이다. 송정동은 마을에 소나무와 정자가 있어서 유래한 지명이다. 봉황형국의 이곳은 소나무와도 관련이 많은 듯하다. 현재 어린이공원과 경로당(노인정)의 쉼터에 커다란 고목의 소나무 한 그루가 우뚝 서 있다. 소나무의 나이는 411년으로 추정된다. 나무높이는 9m, 가슴높이둘레는 240cm 정도이다. 1991년에 보호수로 지정하고 온 마을의 자랑으로 삼은 나무이다. 이 소나무는 보호수 가운데 누가 언제 심은 나무인지 밝혀진 보기 드문 나무이다. 소나무가 이곳(옛날의 백봉산 자락)에 심어진 사연은 이 나무의 유래비에서 읽을 수 있다. 유래비는 2018년에 '봉명2송정동 400년생 소나무명명추진위원회'가 봉황송鳳凰松 이름을 확정하고 생일을 정하여 마을의 상징으로 보존하기로 한 내력을 담고 있다. 이 유래비에 따르면 백봉공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의령 남씨 집성촌이 있었다. 이성계를 도와 개국공신 1등으로 의성군에 봉해진 남은南誾 선생이 그 가문이다. 선생의 5세손인 어모장군 남홍南鴻이 1540년에 낙향하여 이 일대에서 살았다. 세월이 흘러 12세손인 응호應浩와 응수應洙(장악원정을 지냄) 형제가 이곳에 터를 잡으면서 의령 남씨 집성촌이 되었다. 형인 응호는 공조판서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얼마 후 응호의 아들 대현大賢은 1618년(광해군 10)에 19세의 나이로 무관에 장원급제하였다. 응호와 응수 형제는 이런 경사스런날을 기념하여 1621년에 소나무 한 그루 심었다. 이 소나무가 봉명2송정동사무소 인근의 경로당 마당에 서 있는 봉황송이다. 또한 유래비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봉황은 새 중 으뜸이요, 백봉산 자락에서 대나무열매를 먹으며 힘차게 울었다는 전설이 있어 봉명동이니 봉황송 이름은 비단에 꽃을 얹은 격이다. 의령 남씨는 대를 이어 장원급제하였고, 고을에 인재가 그침 없으니 봉황송 정기의 덕이다. 봉황새 울던 백봉산에서 문무를 연마하던 선현의 뜻과 400년 꿋꿋이 하늘을 우러러 용틀임하는 봉황송 숨은 덕으로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고 지혜와 덕성을 지닌 인재가 연년세세 무궁무진함을 소망한다. 도심의 이 보호수 유형은 풍치목이다. 이곳은 시민의 쉼터로 애용되고 있다.

베일 위기에서 주민들이 지킨 느티나무

지정번호	괴산-97
지정년도	2000
관리기관	괴산
수령	960년
수고	20m
흉고둘레	8m

충북 괴산군 문광면
방성리 산 45-1
36°44′08.04″N
127°47′00.77″E



산등성이에 있는 보호수(괴산-97) 느티나무는 마을이 끝나는 해발고도 235m 정도에 자라고 있다. 느티나무가 산야에 있어서 그런지 나무 의자 및 운동 기구가 마련되어 있다. 느티나무의 나이는 960년으로 추정된다. 나무높이는 20m, 가슴높이둘레는 800cm 정도이다. 나무갓은 사방의 너비가 22m 정도이다. 원줄기는 높이 2m 정도에서 굵고 크게 3갈래로 갈라진 후 굵지 않은 가지 몇 개가 갈라졌다. 갈라진 주요 줄기는 높이 8m 정도에서 갑자기 굵기를 달리하여 여러 갈래로 갈라져 펼쳐졌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송씨 문중과 관련이 있다. 느티나무가 있는 곳은 송씨 문중의 땅이었고, 그 느티나무 앞에는 조상의 묘가 있었다. 이상하게도 이 묘소 주인의 후손이 아프거나 갑자기 죽는 등의 액운이 잦았다. 어느 날 송씨 후손들은 역술인을 찾아가 물어보았다. 후손들은 역술인으로부터 조상 묘 앞에 큰 느티나무가 앞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문중에서는 나무 장사를 하는 상인에게 느티나무를 베어 팔려고 하였다. 그런데 그런 결정을 한 이후 송씨 문중 사람들은 모두 밤이면 밤마다 나무의 큰 울림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였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송씨 문중이 겪고 있는 상황의 그 이유를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았는데, 느티나무가 서 있는 곳은 거북이 머리혈로서 느티나무가 마을을 보호해야 마을에 복이 깃든다는 말을 들었다. 그런 말을 들은 마을 대표는 송씨 문중에 느티나무를 베지 말고 마을에 팔기를 거듭 권유하여 결국 마을에서 논 3마지기를 주고 느티나무를 샀다.

자연마을 이름 향촌(행촌) 유래의 은행나무

지정번호 괴산-91
지정년도 1982
관리기관 괴산
수령 890년
수고 15m
흉고둘레 8.5m

충북 괴산군 불정면
신흥리 206(847)
36°52′21.72″N
127°47′54.41″E

정자목보다 신목의 성격이 강한 보호수(괴산-91) 은행나무는 시골의 마을 길과 밭 사이에 자라고 있다. 은행나무의 나이는 890년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마을 사람들은 1,000년에 가깝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나무높이는 15m, 가슴높이둘레는 850cm 가량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14m 가량이다. 원줄기는 높이 3m 정도에서 몇 갈래로 갈라졌으며, 줄기마다 위쪽 가지는 잘린 상태에서 새로운 가지를 내어 위쪽으로 향하고 있다. 줄기 밑동은 충전재 처리로 외과수술 흔적이 있고, 한쪽은 높이 3.5m 정도까지 충전재 처리로 썩음을 방지하고 있다. 생육은 양호하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마을 이름과 관련이 있다. 불정면 신흥리新興里는 괴산군 불정면에 속한 법정명이다. 고개 밑에 있는 농촌 마을이다. 신흥은 새로 일어나라는 뜻이다. 신흥리는 1964년 행정구역 세분화에 따라 향촌과 두촌으로 나누어졌다. 향촌은 예전에 개오개(고개 밑)라 불렀던 자연마을인데, 마을 입구에 커다랗게 자란 은행나무가 있어 붙여졌다. 은행나무에서 유래한 동명洞名이다. 향촌 이름은 은행나무와 쉽게 연결할 수 없는 듯하지만 은행나무마을의 뜻인 행촌杏村에서 유래하였다고 하면 이해가 될 것 같다. 두촌은 건개울(개울에 물이 항상 말라 있음), 두무절(두무사 절이 있었음), 모내일(연중 모내기를 함) 등을 합친 자연마을이다. 은행나무는 지금도 마을사람들과 함께 수살막이(시골 동네 어귀에 서 있는 돌이나 나무) 개념으로 주민들의 보호를 받고 있다. 주민들이 동제를 지내고 있다. 한편 신흥리는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개오개리, 모내일리와 충주군 불정면의 외석정리와 두촌리 각 일부를 병합한 법정명이다.



묘를 쓰지 못하게 심은 느티나무

지정번호 보은-7
지정년도 1982
관리기관 보은
수령 460년
수고 15m
흉고둘레 6.6m

충북 보은군 마로면
송현리 198-1
36°26′04.35″N
127°50′01.90″E

작은 동산 위에 있는 보호수(보은-7) 느티나무는 도로 옆에서 잘 자라고 있으며, 마을비와 정자가 함께 어우러져 있다. 느티나무의 나이는 460년으로 추정된다. 나무높이는 15m, 가슴높이둘레는 660cm 가량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18m 정도이며, 옆으로 퍼진 모양이다. 원줄기는 높이 3m 정도에서 몇 갈래로 갈라진 후 다시 작은 가지가 많이 갈라져 퍼졌다. 생육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느티나무와 함께 어우러진 정자는 송현정이다. 송현정 옆 마을비에는 한 편의 시가 새겨져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솔고개는 송현리 마을의 다른 지명이다. 송현리는 옛날에 큰 소나무 고개의 밑에 마을이 있어 마을지명을 솔고개 또는 송현으로 불렀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박씨 삼 형제와 관련이 있다. 연대 미상의 박씨 삼 형제는 뒷산 옥녀봉의 명기가 이곳에 모여 있어 묘를 쓰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이곳에 묘를 쓰지 못하게 하려고 3그루의 느티나무를 심었다. 현재는 1그루만 남아 있다. 의리가 있고 효성이 지극한 맏형이 심은 나무가 큰 나무이고, 둘째가 심은 나무는 작은 나무이며, 어질지 못하였던 막내가 심은 나무는 잘 자라지 못하여 죽었다. 이 나무가 죽자 막내의 후손이 끊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이 느티나무에 얽힌 전설을 교훈 삼아 이웃 간의 의리와 어른 공경을 전통으로 이어왔다. 느티나무는 잎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그해의 풍흉을 점치기도 한다. 또한 느티나무는 대소사를 의논하는 마을의 정자목이며, 그 아래는 동네 어르신들의 쉼터로 이용하는 곳이기도 하다.





충청지역

은행나무

왜군에게 겁을 주는 은행나무

지정번호 영동-20
지정년도 1982
관리기관 영동
수령 637년
수고 35m
흉고둘레 10m

충북 영동군 추풍령면
웅북리 367
36°15′10.52″N
128°01′31.33″E

마을 입구에 있는 보호수(영동-20) 은행나무는 몇 개의 굵고 가는 줄기가 뿌리에서 따로 나온 듯 하나의 나무로 뭉쳐 자라고 있다. 은행나무의 나이는 637년으로 추정된다. 삼국시대의 신라와 백제의 국경 표시로 옛 절터 마당에 심었다는 전설을 기준하면 현재 추정하는 나무나이와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다. 나무높이는 35m, 가슴높이둘레(곁줄기 포함)가 1,000cm 가량이다. 줄기는 밑동에서 몇 개가 곁줄기처럼 자라고 있다. 주변에 쉼터 표시가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인 정자가 있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신기한 나무와 관련이 많다. 나라에 큰일이 생기거나 마을에 일이 있을 때면 영험한 예견의 징조를 나타내었다. 임진왜란 직전의 일이다. 은행나무에서 땀과 같은 물이 흘러 흥건히 젖더니 얼마 안 있어 임진왜란이 터졌다. 그리고 당시에 왜병들이 추풍령에서 우리의 의병대와 격전이 벌어졌을 무렵에는 왜병들이 현몽(죽은 사람이나 신령이 꿈에 나타남)을 꾸었다. 전쟁에 참여한 왜병들은 눈만 감으면 꿈에 큰 은행나무가 나타나서 느닷없이 자신들의 진지로 들이닥쳤다. 그래서 그 고목 등걸 밑에 수많은 군인(왜병)들이 깔려서 죽는 꿈을 꾸곤 하였다. 왜병들이 하도 이상해서 큰 나무가 있는 곳을 수소문하여 찾아내었는데, 그 나무가 바로 지금의 보호수 은행나무이었다. 그 후 왜병들은 겁을 먹고 이 은행나무를 피해서 접근을 하지 않았다. 이 밖의 전설도 다양하게 전하고 있다. 나라의 궂은일이나 마을의 큰 변고가 있을 때에는 이 은행나무에서 땀이 흘러나와 흠뻑 젖었다. 경술년 한일병합 때에는 은행나무에 땀이 흐르고 이 나무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다. 병자년에는 은행나무가 울자 마을이 온통 큰 수해를 입었다. 마을 사람들은 부락의 수호신이 깃들어 있는 나무로 믿어 오래 전부터 제를 지내왔다. 매년 음력 정월 열나흘이면 마을 사람들이 깨끗한 마음으로 정성을 모아 한 해의 풍년과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있다.

무학대사가 꽂은 지팡이에서 자란 배롱나무

지정번호	영동-13
지정년도	1994
관리기관	영동
수령	525년
수고	8m, 7m
흉고둘레	1.5m, 1.2m

충북 영동군 황간면
백화산로 652
36°15′50.22″N
127°54′32.32″E



반야사의 명물인 보호수(영동-13) 배롱나무는 2그루가 극락전 앞의 3층석탑을 배경으로 양옆으로 나란히 서 있다. 배롱나무의 나이는 525년으로 추정된다. 큰 것(정면에서 왼쪽)의 나무높이는 8m, 밑동둘레는 150cm 가량이다. 작은 것의 나무높이는 7m, 밑동둘레는 120cm 정도이다. 큰것은 원줄기 1m 높이에서 가지가 5갈래로 갈라졌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무학대사와 관련이 있다.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한 전후에 무학대사를 국사로 임명하여 곁에 두고 주요 정책을 시행할 때마다 자문을 구하였다. 이성계와 무학대사는 간혹 도읍지를 정할 때 함께 다니기도 하였으며, 도읍지 조성 현장을 같이 다니기도 하였다. 어느 날 무학대사가 이성계의 명을 받고 지방을 시찰하던 중 우매리를 지나다가 반야사에 들린 적이 있다. 이때에 무학대사가 지팡이를 꽂아 두었는데, 그 지팡이가 2개로 쪼개지면서 배롱나무로 자라났다. 한편 반야사는 세조와 문수보살에 얽힌 설화가 있다. 언젠가 몸이 불편한 세조가 반야사를 중창한 후 회향법회를 열어 여러 보살들께 공양을 올렸다. 그랬더니 문수보살이 사자를 타고 홀연히 나타나 영천으로 인도하여 목욕할 것을 권하였다. 그리고 문수보살은 불심이 갸륵하여 부처님의 자비가 따른다는 말을 남기고 사자를 타고 홀연히 사라졌다. 그 후로 세조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 절의 이름을 반야사라 한 것도 문수보살의 지혜를 상징하는 것이다.

동학농민혁명 지휘소에 있던 느티나무

지정번호	옥천-35
지정년도	1995
관리기관	옥천
수령	526년
수고	17m
흉고둘레	7.3m

충북 옥천군 청산면 한곡리 320
36°18′32.78″N
127°47′50.57″E



동학농민군과 혁명운동의 탐방길 주변에 있는 보호수(옥천-35) 느티나무는 사람의 발길이 많지 않은 산골 산책로의 바위 옆에서 자라고있다. 느티나무는 동학과 관련한 유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역사의 현장에 남은 나무이다. 인근에는 동학기념공원이 있다. 느티나무의 나이는 526년으로 추정된다. 나무높이는 17m, 가슴높이둘레는 730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거의 20m에 이른다. 원줄기는 사람 키 높이에서 가지가 2갈래로 갈라졌다. 갈라진 한쪽 가지는 곧게 자라고 있으며, 다른 가지는 비스듬히 뻗다가 다시 2갈래로 나눠지면서 넓게 펼치고 있다. 생육상태는 양호하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스님이 심은 나무라는 것과 동학농민혁명과 관련이 있다. 옛날 이곳에 절이 있던 시절에 너럭바위 자리를 좋아한 스님이 자주 나와 쉬곤 하다가 바위 바로 옆에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가 지금의 보호수 느티나무이다. 그리고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에 이 느티나무 아래는 동학농민군을 훈련시키던 지휘부의 지휘소이었다. 그 주변은 동학농민군의 훈련장이었다. 한곡리 일원의 마을은 제2대 교주 최시형(1827~1898)의 주도로 수천 명의 동학교도들이 집회를 열었던 곳이다. 최시형은 이 마을에 머물면서 여러 곳에 흩어진 농민군과 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동학군의 지도자들은 농민군을 훈련시켰는데, 그 훈련소를 마련한 곳이 바로 이 느티나무 주변의 공터이었다. 지금은 이 곳이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느티나무 옆의 너럭바위는 훈련을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지휘소 역할을 하던 곳이었다. 너럭바위는 한때 스님의 쉼터이었고, 또한 민족정기를 드높이기 위한 농민군의 지휘소였던 것이다. 한편 이 마을에는 특별한 산책로가 있다. 동학역사 탐방길이다. 이 길에서 동학과 관련한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은 보호수의 느티나무가 유일하다. 느티나무는 동학기념공원에서 저수지와 이어지는 산책길을 오르다 보면 만날 수 있다.



충청지역

느티나무

민족정기 박탈 쇠말뚝 대신 심은 느티나무

지정번호 옥천-33
지정년도 1994
관리기관 옥천
수령 427년
수고 19m
흉고둘레 6.3m

충북 옥천군 청산면
효목리 산 86-1
36° 18′ 41.00″ N
127° 49′ 30.68″ E

마을의 끝 언덕 위에 있는 보호수(옥천-33) 느티나무는 단아한 재실 옆의 돌 축대 언덕 위에 우뚝 서 있다. 보기 좋은 돌담과 기와지붕이 있는, 숭덕정사라는 재실은 전주 이씨 집성촌인 이 마을 선조의 제사를 모시기 위하여 지은 것이다. 또한 그 옆에는 사람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정자가 있다. 느티나무의 나이는 427년이다. 나무높이는 19m, 가슴높이둘레는 630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30m 정도이다. 원줄기는 높이 2.5m 정도에서 가지 줄기가 크게 2갈래로 갈라진 후 다시 작은 가지를 사방으로 고르게 펼친 모양이다. 생육상태는 좋은 편이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명나라 군대와 관련하여 오래도록 이어오고 있다. 임진왜란 시기이었다. 명나라 군사들이 마을 뒷산에 주둔하며 산봉우리 아래에 쇠말뚝을 박으려고 하였다. 쇠말뚝으로 우리 민족의 정기를 박탈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자 마을의 선비들이 나섰다. 선비들은 명나라 군사들이 돌아간 뒤에 민족의 정기를 회복하기 위하여 느티나무를 심었다. 현재의 보호수 느티나무는 그때 심은 나무 중의 하나이다. 마을의 정자목이면서 수호목으로 오래도록 살고 있다. 한편 느티나무가 있는 효목리의 목동마을은 예전에 나무가 많아서 목골이라 부르기도 하였고, 못이 있는 마을이어서 못골이라 부르다가 목동마을이 되었다. 전주 이씨 집성촌이라 할 수 있는 이 마을에서 전하는 또 다른 전설이 있다. 옛날에 이 고을 사또의 어여쁜 딸이 있었다. 딸은 인근의 느티나무에서 잘 노는 소녀였다. 소녀는 그러던 중 병이 들었는데, 이때 절에서 일하는 소년이 간호하여 병을 낫게 하였다. 그런데 소녀는 사또가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가면서 함께 가야만 하였다. 그 후 소년은 정들었던 사또의 딸을 그리워 하다가 바위 위에서 죽었다.

다박솔(다복솔)이라 불리는 소나무

지정번호	당진–82–78
지정년도	1982
관리기관	당진
수령	577년
수고	16m
흉고둘레	6.5m

충남 당진시
시곡동 230
36°53′17.00″N
126°40′27.00″E



다박솔로 불리는 보호수(당진–8–78) 소나무는 반송의 모양으로 자라고 있다. 다박솔은 다복솔의 사투리이며, 줄기와 가지가 빈틈없게 많이 퍼져 소복하게 된 소나무이다. 흔히 반송을 일컫기도 한다. 즉 주가 되는 줄기가 없고, 둥치 부위에서 여러 개의 줄기가 자라서 나무갓이 우산모양을 하는 소나무다. 이곳의 소나무는 많은 가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다박솔이다. 아주 크게 자라 웅장하게 보이는 반송이라 부르는 것이 나을 듯하다. 소나무(다박솔)는 창녕 성씨 종중에서 관리하고 있는 선산에 자라고 있으며, 수군절도사를 지낸 성준길의 묘 오른쪽의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나무높이는 18m, 가슴높이둘레는 650cm, 밑동둘레는 510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23m 정도이다. 서쪽 방향의 가지는 말라 죽어잘린 상태이고, 동쪽 방향의 가지는 말라 죽는 상태가 진행 중이다. 소나무(다박솔)는 성준길(1579~1624)이 사망 후 그의 후손이 심었다고 전하므로 나무나이가 400년 정도인 것으로 추측되지만 여러 기록을 종합하면 577년이다. 원줄기의 1m 높이에서부터 10여 개의 커다란 가지 줄기가 퍼져있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국가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하고 있다. 나라에서 큰 변고가 있을 때마다 나뭇가지가 하나씩 말라 죽어 사건을 사전에 계시하였다는 전설이 일반적이다. 4.19학생의거와 5.16사태 및 12.6사태 당시에도 가지가 고사되었다. 나뭇가지를 자르려던 사람들이 다쳐 자연적으로 없어지곤 하였단다. 또한 일제 강점기에는 어느 일본인이 이 나무를 캐어 일본으로 반출하려고 하였으나 창녕 성씨 문중 및 마을 주민들이 필사적으로 반대하여 지켜내었다. 한편 이 소나무 바로 옆에 또 다른 소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데 위에서 기술한 소나무(다박솔, 반송)보다 전체적으로 작은 편이다.

고려시대 무술 훈련장소의 은행나무

지정번호	서산-8-71
지정년도	1982
관리기관	서산
수령	637년
수고	30m
흉고둘레	8.3m

충남 서산시
석남동 510-2
36° 45′ 50.04″ N
126° 27′ 51.36″ E



남원마을에 있는 보호수(서산-8-71) 은행나무는 행정구역상 서산시 석남동의 작은 밭 사이에 자란다. 은행나무는 수나무이며, 나무나이는 637년이다. 나무높이는 30m, 가슴높이둘레는 830cm, 밑동둘레는 980cm 정도이다. 가지 길이는 동쪽으로 11.3m, 남동쪽으로 11.7m, 남서쪽으로 10.6m, 북동쪽으로 11m이다. 은행나무는 활력이 좋지만 북서쪽의 상층부 잔가지가 부러져 있는 상태이다. 늘어진 가지를 지탱하는 지탱목이 있어서 보호되고 있다. 남동쪽 아래로 처진 가지는 받침대 2개가 지탱하고 있으며, 수관을 넓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정씨 문중과 관련이 있다. 정신보鄭臣保는 서산 정씨의 시조인데, 그는 송나라가 망하자 고려에 귀화하여 서산 지역에서 살았다. 은행나무는 그 당시에 심은 것이다. 서산의 위인으로 알려진 정인경鄭仁卿 장군은 정신보의 아들인데, 은행나무 아래에서 무술을 익혀 고종 말엽에 침입한 몽골군을 크게 물리치는 전공을 세웠다. 나라에서는 정인경의 공로를 높이 사서 일시 폐군시켰던 부성군을 서산군으로 개칭하여 복속해 주기도 하였다. 지금도 은행나무 아래의 바위에는 말발굽 자국이 있는데, 그때 말을 타고 훈련하던 흔적이라 전해진다. 또한 예로부터 그 바위나 은행나무를 훼손하면 재앙이 따른다는 이야기가 전하고 있다. 마을에서는 매년 7월 은행나무에 제사를 올리고 마을의 안녕과 각자의 소원 성취를 빌기도 하였다. 오래도록 살고 있는 은행나무는 원줄기에 어린 사철나무, 쥐똥나무, 구기자나무 등이 개체수준으로 함께 자라고 있다.



충청지역

소나무

문화재 석불입상을 보호하는 소나무

지정번호 서산-8-5-26(38473)
지정년도 2005
관리기관 서산
수령 314년
수고 17m
흉고둘레 2.7m

충남 서산시 운산면
여미리 15-17
36°49′26.16″N
126°34′26.34″E

석불과 함께 있어 유명해진 보호수(서산-8-5-26) 소나무는 마을로 가는 도로 옆의 동산에 자라고 있다. 커다란 소나무와 석불이 같이 서 있는 조합이 특이하다. 소나무의 나이는 314년으로 추정되나 마을 사람들은 800여 년을 살아 왔다고 믿고 있다. 나무높이는 17m, 가슴높이둘레는 270cm, 밑동둘레는 300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16m 가량이다. 원줄기는 높이 3m 정도에서 갈라져 위를 향한 후 위쪽에서 가지가 여러 갈래로 갈라졌다. 생육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소나무의 전설 이야기는 기록이나 구전으로 전하는 것이 없다. 다만 이곳의 소나무는 귀중한 석불(불상)이 오랫동안 안전하게 서 있도록 언덕의 일부를 양보하고 그늘이 되어 주고 있다. 소나무가 석불을 보호하는 셈이다. 석불의 정식 이름은 미륵불의 증거가 없어 그냥 서산여미리 석불입상이다. 여미리석불입상은 1970년대의 용장천 정비사업 때에 하천에서 주민이 발견하여 1km 떨어진 현재의 위치로 옮긴 것이다.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용장천 냇가에서 5km 정도 거슬러 올라간 상류에 2구의 불상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떠 내려온 것이라고 하나 정확하지는 않다. 이 석불입상은 1989년 12월 29일에 충남 유형문화재 제132호로 지정되었다. 사다리꼴의 얼굴에 관을 쓰고 여기에 작은 부처를 새겼는데 심하게 닳아 있다. 얼굴 바로 밑에는 3줄로 삼도三道를 표현한 목주름이 있다. 눈은 퉁퉁 부은 모습이다. 옷은 왼쪽 어깨에서 걸쳐 내려와 반원 모양을 그리고 있다. 왼손은 치켜들고 오른손은 아래로 받쳐 들고 있다. 석불입상은 전체적인 조각 수법이 형식적이고 입체감이 없어서 고려시대에 지방화된 불상이라고 말하고 있다. 옆과 뒷면에는 거친 못자국이 남았고 목이 부러져 있던 것을 붙인 흔적이 있다. 소나무 바로 인근에 있는 선정묘는 조선 정종의 4남 선성군의 신위를 봉안한 사당이다. 선성군의 사당은 본래 파주에 있었으나 후손이 끊기면서 여미리의 전주 이씨 후손들이 제향을 대신 맡고 있다.

잠을 자던 바위 옆에 심은 느티나무

지정번호 천안-8-17-356
지정년도 1982
관리기관 천안
수령 462년
수고 16m
흉고둘레 4m

충남 천안시 동남구 동면 행암리 271-1
36°47′59.42″N
176°21′06.17″E

명승 낙수암落水巖 바위와 인접한 보호수(천안-8-17-356) 느티나무는 개울 옆의 도로변에 자라고 있다. 낙수암은 큰 바위가 누워 있는 사이로 개울물이 폭포처럼 흐른다는 뜻이다. 바위의 서쪽면에는 '落水巖(낙수암)'이라는 글자가 한자로 새겨져 있는데, 이는 조선 효종 때의 유학자 우암 송시열의 글씨이다. 그 옆에 새겨져 있는 오언절구는 행암거사 주석영周錫永이 쓴 글씨이다. 느티나무의 나이는 462년으로 추정된다. 나무높이는 16m, 가슴높이둘레는 400cm 정도이다. 원줄기는 사람 키 높이 정도에서 몇 개의 굵은 가지가 갈라졌으며, 비스듬히 자라다가 위쪽 가지를 높이 들고 있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나무 식재와 관련이 있다. 남쪽 지역의 어느 선비가 과거시험 준비를 마치고 시험 며칠 전에 한양으로 출발하였다. 과거시험 보러 가는 길에 시냇물이 맑고 깨끗한 곳에 쉬기 좋은 너른 바위가 있었다. 선비는 바위가 좋아 그곳에서 잠을 청하였는데, 과거시험이 바로 임박하였으니 빨리 서울로 올라가서 맨 앞에 줄을 서라는 꿈을 꾸게 되었다. 선비는 비몽사몽 꿈에서 깨어나 서둘러 시험장으로 가서 시험을 치렀다. 선비는 시험을 잘 치러 과거에 급제하였다. 선비는 그 후 행암리의 윗산을 몽각산이라 칭하고 잠을 자던 곳에 느티나무 8본을 심었는데, 그 나무 중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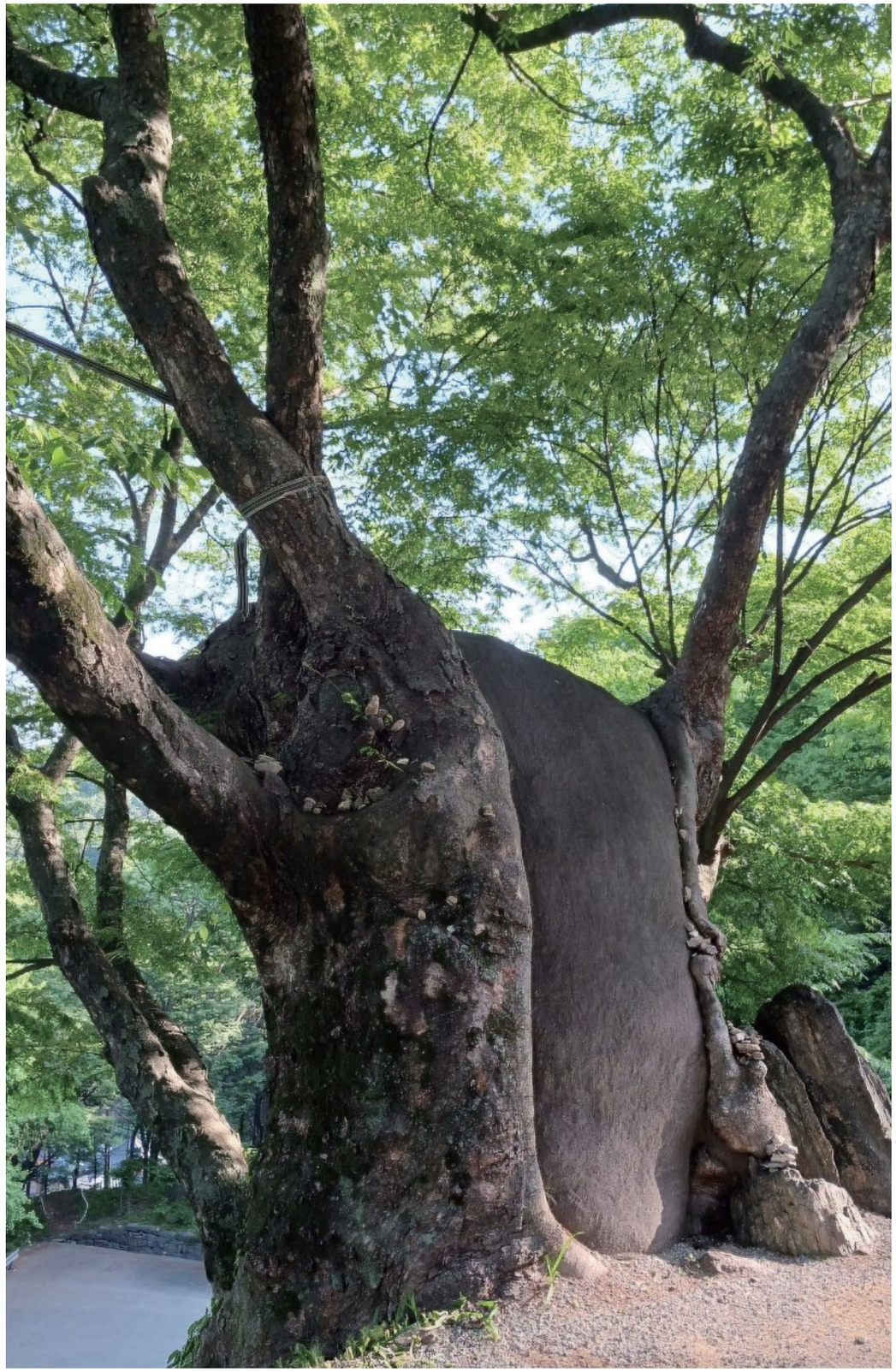


풍흉을 예측하는 신목의 느티나무

지정번호 천안-8-3
지정년도 1982
관리기관 천안
수령 842년
수고 13m
흉고둘레 5.5m

충남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178-8
36° 49′ 42.84″ N
127° 11′ 48.93″ E

천안에서 가장 오래 살고 있는 보호수(천안 -8-3) 느티나무는 태조산太祖山 기슭의 성불사 비탈면에 자라고 있다. 태조산은 예전에 성거산聖居山이라 부르다가 이태조가 기도하였다고 하여 태조산이라 부르게 되었다. 느티나무의 나이는 842년으로 추정된다. 나무높이는 13m 정도이며, 원줄기가 고사하지 않고 살아있을 때에는 높이 25m에 이르기도 하였다. 가슴높이둘레는 550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15m 가량이다. 원줄기는 높이 2.5m 정도까지 뭉뚝하고 그 위쪽이 고사하여 새로운 가지 줄기가 나와 퍼져 있다. 뭉뚝한 원줄기는 한쪽 부분에 충전재 처리의 외과수술 흔적이 있다. 생육상태는 보통이다. 동남구 안서동 느티나무는 나뭇잎 개서開絮 여하에 따라 풍년과 흉년, 그리고 홍수와 가뭄을 예측하였다는 구전이 있다. 느티나무는 충남문화재자료 제10호로 지정된 성불사成佛寺에 있다. 대웅전 뒤의 암벽에 흰 학이 부리로 쪼아 불상을 만들다가 완성하지 못한 절이라 하여 성불사成不寺라 불렸다. 성불사 경내에는 대웅전, 산령각(산신각), 칠성각 등이 있다. 산령각은 불교와 민간신앙이 결합한 것인데, 소원을 빌거나 재앙을 방지하는 기도와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곳이다. 산령각을 찾은 사람들은 고목의 느티나무에도 기도를 드리곤 하였다. 성불사 경내에는 이 느티나무와 몇 십 미터의 거리에 또 다른 느티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느티나무가 있는 성불사에서 내려다보는 천안 시가지의 확 트인 모습이 참으로 멋지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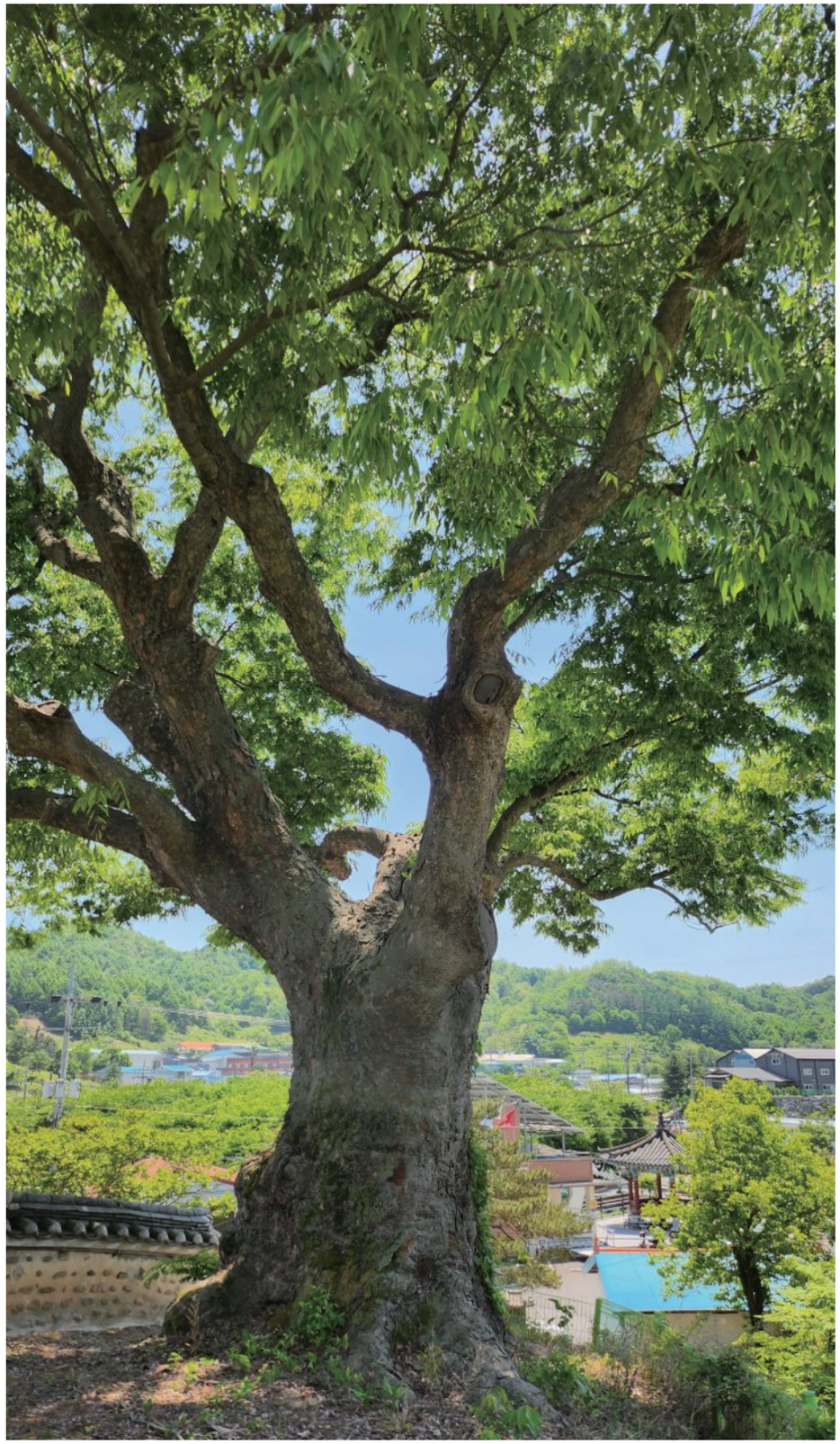


일본 군인을 다치게 한 느티나무

지정번호 금산-8-3-35(금산-60)
지정년도 1997
관리기관 금산
수령 410년
수고 20m
흉고둘레 6.5m

충남 금산군 추부면
추정리 337
36° 10′ 33.88″ N
127° 28′ 20.62″ E

마을의 작은 동산에 우뚝 솟아 있는 보호수(금산-8-3-35) 느티나무는 금산지역 장군의 위패를 모신 사당(충렬사) 곁에 자라고 있다. 느티나무는 나무나이가 410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나무높이는 20m, 가슴높이둘레는 650cm, 밑동둘레는 920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20m 가량이다. 원줄기는 높이 4m 정도에서 2갈래로 갈라졌고, 2갈래 중 한 가지는 높이 6m 정도에서 몇 갈래로 다시 갈라져 전체 나무 모양을 만들고 있다. 생육상태는 양호하였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항일의병 역사와 관련이있다. 금산 지역의 정인조 장군은 조선초기였던 1402년에 노략질을 일삼던 왜구들이 민간의 재물을 약탈하고 아녀자를 농락하여 민생이 도탄에 빠지자 의병을 모아 추부면 일대에서 왜구를 물리쳤다. 임금은 이를 전해 듣고 정인조 장군에게 '충렬忠烈'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금산의 유림은 장군의 의로움을 추모하기 위하여 애를 썼다. 1989년에 장군의 위패를 모신 사당의 충렬사가 조성되었다. 충렬사가 조성되기 전까지는 사당 옆에 자리잡은 느티나무가 정인조 장군을 추모하고 기억하고 있었다. 일본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금산의 항일의병 유적지를 폭파시키거나 헐어버리면서 모두 훼손하였다. 그러나 이곳의 의병 역사는 살아남은 노거수의 느티나무를 통하여 여러 이야기가 입으로 전해 내려오면서 주민들의 기억 속에 남을 수 있었다. 충렬사는 정인조 장군의 하마비와 느티나무의 이야기 한 토막이 남아 있다. 일제강점기에 한 일본군이 말을 타고 정장군돌비석(하마비)이 있는 고목의 느티나무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일본군은 말에서 내려 느티나무와 비석 앞에 인사하고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일본군은 느티나무 앞을 지나가자마자 곧바로 말에서 떨어져 다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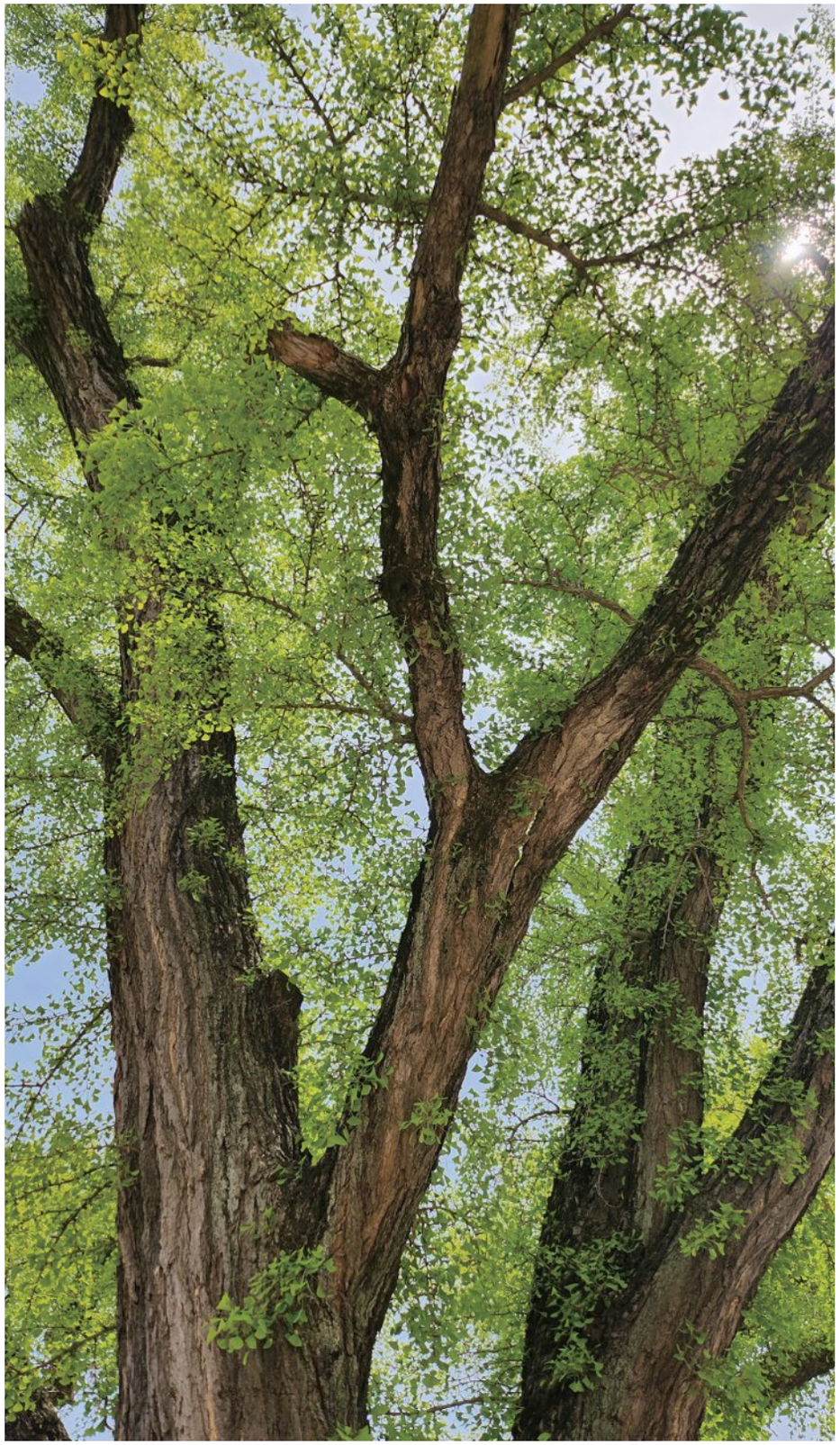
조선시대 지방청사 동헌에 심은 탱자나무

지정번호	부여-116
지정년도	1979
관리기관	부여
수령	380년
수고	7m
흉고둘레	0.7m

충남 부여군 석성면 석성리 764-3
36° 13′ 27.96″ N
126° 59′ 21.00″ E



남귤북지南橘北枳의 고사가 있다. 남쪽 땅의 귤나무를 북쪽에 옮겨 심으면 탱자나무로 변한다는 뜻이다. 회하라는 강을 기준으로 남쪽과 북쪽을 갈랐다.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속담으로 쓰기도 한다. 같은 뜻의 고사가 귤화위지橘化爲枳이다. 사람이 처해있는 주위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지만 탱자의 쓸모가 귤보다 못함을 포함하기도 한다. 탱자나무 열매는 단맛이 적어 식용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생약재의 사용은 많다. 줄기는 귤나무나 유자나무의 접붙이기 때에 대목으로 쓸모가 많았다. 부여 석성리 동헌(충남 유형문화재 제124호) 앞마당에는 오래된 탱자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다. 이곳 동헌은 조선시대 지방 현의청사로 사용되던 건물이다. 조선 인조 6년(1628)에 석성현의 현감이 공무를 볼 동헌을 지었다. 탱자나무는 그 당시에 동헌 앞마당에 심은 것이라 하니 그 나이가 380년이다. 가슴높이 둘레 70cm에다 높이가 7m까지 잘 자란 큰 나무이다. 동헌의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곧바로 보이는 자리에 서 있다. 동헌의 탱자나무는 줄기가 어른 무릎높이에서 크게 갈라진다. 가지는 사방으로 뻗어나가다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땅 쪽으로 늘어져있다. 전체적으로 둥그스름한 터널 모양이다. 때문에 가지에 잎이 무성하게 달리면 가운데의 굵은 줄기가 보이지 않는다. 나뭇가지가 만들어내는 안쪽의 터널 공간으로 들어가야 날카롭게 솟아나온 가시가 눈에 들어오고, 기둥 줄기를 볼 수 있다. 탱자나무는 무엇보다 울타리로서의 쓰임새가 가장 요긴하였다. 이외에도 탱자나무의 가시가 귀신을 막아주고 악귀를 쫓아내는 벽사辟邪의 의미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남성형 귀신은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나타나고, 여성형 귀신도 땅에 끌리는 치마를 입고 나타나는데, 옛사람들은 이 귀신들이 집으로 찾아들다 탱자나무 가시에 걸리면 깜짝 놀라 도망친다고 믿었다. 동헌의 탱자나무는 안타깝게도 식재 기록을 찾을 수 없다. 울타리용으로 심은 것 같지는 않다. 다른 나무와 함께 식재된 것이 아니라 앞마당에 홀로 서 있기 때문이다.



아들을 갖게 한 신목의 은행나무

지정번호 예산-8-69
지정년도 1982
관리기관 예산
수령 678년
수고 23m
흉고둘레 6.3m

충남 예산군 응봉면
증곡리 198
36°39′18.00″N
126°46′41.28″E

줄곧 경사가 있는 마을길에 있던 보호수(예산-8-69) 은행나무는 최근 수평으로 작업하여 놓은 곳에서 하늘 높이 우뚝 솟아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모양이 자연스럽지가 않았다. 외과수술로 위쪽의 나뭇가지가 많이 잘린 모습이었다. 최근 기력을 잃어 죽어가는 것을 살리기 위하여 부패한 나무줄기를 크게 제거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고 웅장하게 보이는 자태만큼은 여전하다. 은행나무의 나이는 678년으로 추정되지만 일부 자료에는 880여 년으로 기록하고 있기도 하다. 나무높이는 23m 정도이지만 가지가 잘리기 전에는 거의 30m에 달하기도 하였다. 가슴높이둘레는 630cm, 밑동둘레는 625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20m 정도이다. 원줄기는 밑쪽 둥치가 건강하였으나 가지 줄기가 여러 개로 크게 갈라진 후 끝부분이 고사하여 대부분 잘려나갔다. 생육상태는 좋지 않은 편이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아들을 낳게 하는 효험이 있는 나무로 알려져 있다. 1930년대의 일이다. 마을에 사는 한 여인이 1년 내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새벽에 이 은행나무 아래에서 치성을 드렸다. 이 여인은 결혼 후 5년이 지났지만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되자 동네의 큰 나무를 신목으로 생각하여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던 것이다. 그래서인지 여인은 치성을 드린 지 1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되었으며 이듬해에 아들을 낳았다. 이후 이러한 소문이 마을에 퍼지면서 아이를 낳으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찾아와 나무에 치성을 드렸다. 기록에는 선녀들이 이 은행나무에 내려왔다고 하여 선녀골이라 부르고 있으나 마을 주민은 자손을 보지 못한 사람이 나무에 기도하여 자손을 얻었다고 하여 선녀골이라 부르고 있다고 하였다. 은행나무 곁에서 만난 마을 주민은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마다 가지가 갈라지거나 꺾였는데, 6·25한국전쟁 당시에 가지가 많이 부러졌다고 강조하였다. 마을에서는 은행나무가 영험한 것으로 여겨 가을 추수가 끝나고 나면 이 나무 아래에서 제를 지내고 있다. 한편 굵은 가지가 갈라진 부근에서 앵두나무가 기생하여 자라고 있다.



충청지역

회화나무

죽은 행자승의 영혼이 서린 회화나무

지정번호	홍성-8-12-10-245
지정년도	1982
관리기관	홍성
수령	316년
수고	23m
흉고둘레	2.3m, 1.9m

충남 홍성군 갈산면 내갈리 129
36°36′31.26″N
126°33′59.04″E

1982년에 지정된 보호수(홍성-8-12-10-245)회화나무는 시골 마을의 끝자락에 자라고 있다. 옆과 앞에는 농가가 있고, 뒤쪽은 밭과 동산이 있는 곳이다. 회화나무의 나이는 316년으로 추정되지만 주민들은 550여 년 이상을 살고 있다고 주장한다. 안내 표지판이 소실되어 보이지 않아 나무나이의 정량적인 특징을 참고하기가 어려웠다. 나무높이는 23m, 가슴높이둘레는 2갈래 중 1개가 230cm, 다른 1개가 190cm 정도이고, 밑동둘레는 410cm 가량이다. 원줄기는 1m 높이에서 크게 2갈래로 갈라져 전체적인 나무모양을 만들고 있으며, 낮은 산야의 언덕배기 경사지에서 약간 비스듬하게 서 있다. 쉼터의 정자가 경사지의 보호수 아래쪽과 맞닿아 있으며, 회화나무의 뿌리가 뻗은 밑동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옹달샘이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옹달샘을 '젯샘'이라 부르고 있다. 동네의 마을 주민은 옹달샘의 물이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고 물맛이 좋기로 유명하다고 말하지만 언뜻 보기에 식수로 쓸 정도로 맑지 않았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행자승의 상사병 및 옹달샘의 '젯샘' 이름유래와 관련한다. 옛날 회화나무 위쪽에 조그만 절이 하나 있었고, 그 절에는 노승이 살고 있었다. 노승은 어느 날 오갈 곳이 없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행자로 삼아 훗날 후계자로 여기며 키우고 있었다. 이 아이는 성인이 되면서 속세의 처녀를 짝사랑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처녀의 부모는 딸이 행자승과 애틋한 사랑에 빠지기 전에 서둘러 어느 부잣집 총각과 결혼을 시켰다. 그 후 행자승은 불사에 관심이 없고 출가한 처녀만 생각하다 상사병에 걸려 죽고 만다. 그러자 철철 넘쳐 흐르던 옹달샘의 물이 눈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줄어들고, 자주 회화나무 가지가 부러지면서 옹달샘 위로 떨어져 샘물이 보이지 않게 막았다. 노승은 이를 행자승의 눈물이며 영혼이라 여겨 이를 달래려고 온종일 기도를 하였다. 마을에서는 정월보름날이면 이 회화나무 아래의 옹달샘에서 제를 지냈다, 그래서 이 옹달샘을 젯샘이라 부르고 있다. 지금도 마을 단위가 아니지만 근처의 몇 농가에서 정월보름날에 젯밥을 올린다.

암수 2그루 중 암그루만 살아남은 은행나무

지정번호 홍성-8-63
지정년도 1982
관리기관 홍성
수령 790년
수고 27m
흉고둘레 7.1m

충남 홍성군 구항면
청광리 602
36°33′30.00″N
126°39′03.00″E

청광리 소반마을에 있는 보호수(홍성-8-63) 은행나무는 마을길의 가운데인지 농가의 마당 언저리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곳에 우두커니 서 있다. 은행나무의 나이는 790년으로 짐작되는 큰 나무이다. 열매가 많이 달리는 암나무이다. 나무높이는 27m, 가슴높이둘레는 710cm, 밑동둘레는 800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23m정도이다. 은행나무는 원줄기의 3m 높이에서 몇 개의 가지가 갈라져 위로 자라고 있으며, 원줄기의 1.5m 높이에서는 오랜 세월을 살아가는 것과 맞물려 유주(밑으로 길게 자라는 혹)를 만들고있었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은행나무 수나무와 관련한 내용이다. 소반마을의 은행나무는 원래 암수 한 쌍이 있었다. 땅주인이 크게 자란 수나무를 베어서 팔았는데, 얼마 후 잘 자라던 아들을 잃었다. 그 후에도 집안에 우환이 끊이질 않았다. 몹시 불안한 땅주인은 가정에서 좋지 않게 발생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은행나무 수나무를 베어버린 탓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무속인을 찾아갔다. 무속인은 땅주인을 보자마자 은행나무 수나무를 잘라 버렸기 때문에 자꾸 집안에 궂은 일이 생긴다고 일러주었다. 그러면서 무속인은 은행나무의 노여움을 풀어주는 제사를 지내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은행나무는 암수그루가 따로 있기 때문에 베어낸 수나무의 그루터기와 남아있는 암그루 모두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하였다. 땅주인은 무속인의 말을 듣고 나서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은행나무 아래에서 제를 지냈다. 그 뒤로는 집안에 이어지던 우환이 거짓말같이 없어졌다. 제사는 처음에 땅주인 혼자서 마련하였으나 점차 마을 사람들이 한두 집씩 함께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제사는 은행나무의 영험함이 마을을 지켜준다는 믿음을 갖게 해주었고, 마을사람 모두가 참여하게 되었다. 은행나무에 제를 올리는 때는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정월이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이곳의 은행나무 열매를 채취하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다. 땅에 떨어진 가지조차 집에 가져가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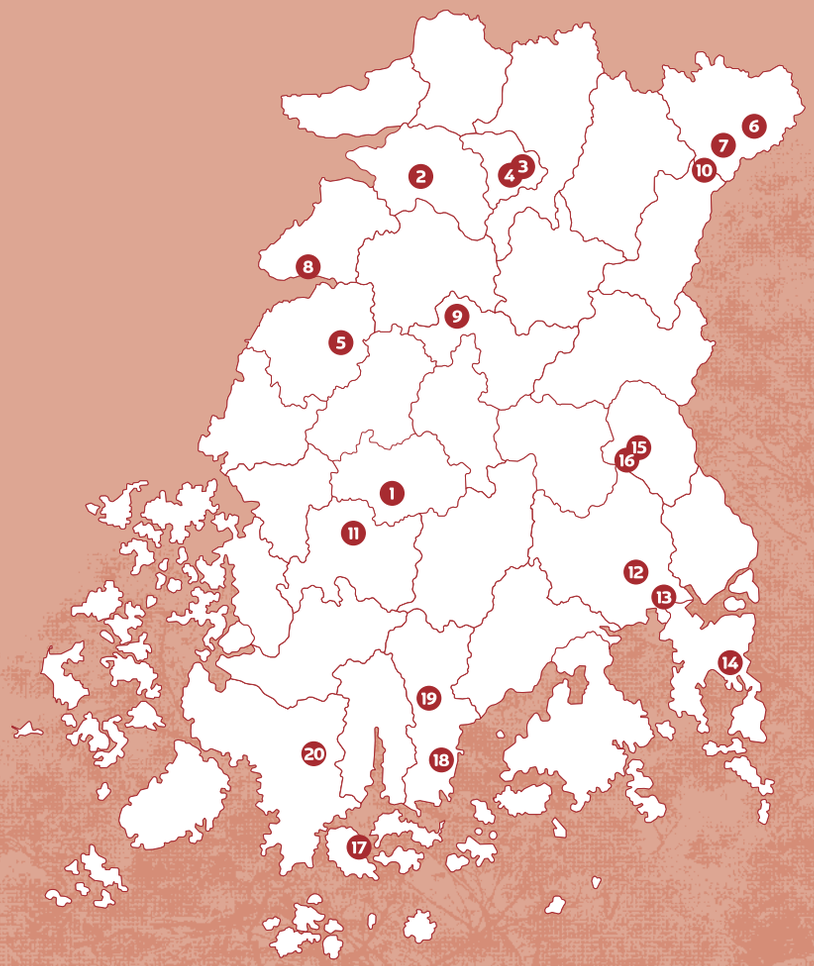
Chapter 4

전라지역

전라도

이야기가
있는
보호수 2

전라지역의 수종별 보호수 찾기



1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심은 **느티나무**	광주시 광산구 장록동 364-2	p. 134
2	김제 관아(동헌)에 심어져 있는 **회화나무**	전북 김제시 교동 7-3	p. 136
3	여동생이 죽어 화신한 **느티나무**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교동 65-67	p. 138
4	친구 우정의 징표로 심은 **은행나무**	전북 전주시 완산구 향교길 13	p. 140
5	애절한 부부의 사랑을 상징하는 **은행나무**	전북 고창군 고창읍 석정2로 173	p. 142
6	당신과 나의 표지석 문구가 독특한 **느티나무**	전북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410-24	p. 144
7	마을 액운을 막아주는 당산목의 **느티나무**	전북 무주군 안성면 금평리 583	p. 146
8	내소사 일주문 할아버지 당산의 **느티나무**	전북 부안군 진서면 석포리 산 84-1	p. 148
9	마을 성립 당시에 심은 **느티나무**	전북 순창군 쌍치면 금평리 818	p. 150
10	탈이 나지 않게 쉬고 가는 **느티나무**	전북 장수군 계북면 원촌리 1235-1	p. 152
11	공자의 고향에서 가지고 온 **은행나무**	전남 나주시 교동 32-3	p. 154
12	돌무더기 임청대 옆에 자라는 **느티나무**	전남 순천시 임청대길 7	p. 156
13	마을 지키는 할아버지 당산의 **은행나무**	전남 순천시 해룡면 중흥리 240	p. 158
14	만인공덕을 위해 심은 **느티나무**	전남 여수시 오림동 422-2	p. 160
15	이순신이 쉬던 정자 옆에 심은 **왕버들**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 295-1	p. 162
16	할머니 굽은 허리모양 신목의 **느티나무**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2231	p. 164
17	당굿과 당제를 지내는 신목의 **느티나무**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 14-8	p. 166
18	고려시대 명기(기생)가 심은 **느티나무**	전남 장흥군 관산읍 방촌리 420	p. 168
19	고려시대 절터에 남은 신성한 **비자나무**	전남 장흥군 장흥읍 행원리 188	p. 170
20	해남윤씨 고택 녹우당에 심은 **은행나무**	전남 해남군 해남읍 녹우당길 135	p. 172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심은 느티나무

지정번호 광주-1982-36
지정년도 1982
관리기관 광주
수령 310년
수고 17m
흉고둘레 6.6m(줄기 전체)

광주시 광산구 장록동 364-2
35° 08′ 10.05″ N
126° 46′ 44.56″ E



황룡강을 끼고 영산강까지 장록습지가 지나는 마을의 보호수(광주-1982-36) 느티나무는 마을 안쪽 깊숙한 곳의 좁은 마을 길 옆에 자라고 있다. 느티나무의 나이는 310년으로 추정된다. 나무높이는 17m, 가슴높이둘레(줄기 전체 외부)는 660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17m 가량이다. 원줄기는 밑동에서 3~4갈래로 갈라지고, 높이 1m 정도에서 다시 4~5갈래로 갈라져 비스듬히 위로 향하고 있다. 가지 줄기 1개는 이미 고사한 상태로 남아 있다. 갈라진 줄기가 사방으로 퍼진 후 다시 가지 줄기를 내어 전체적인 나무모양을 만들고 있다. 생육상태는 양호하다. 주변에는 낮고 좁은 석축이 쌓여 있으며, 그 위는 시멘트 처리로 다져 놓았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마을의 유래와 관련이 있다. 1993년 광주시에서 조사한 자료에서 마을의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시기는 임진왜란 이후이었다. 김해 김씨 후손, 장수 황씨 후손, 인동 장씨 후손이 시골 마을로 귀향을 가는 도중에 해가 저물어 어느 당산 근처에서 하룻밤을 머물렀다. 그들은 꿈에 신령님이 나타나서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들의 꿈에서 들은 말은 이곳이 금계포란의 형국이므로 사람이 살면 좋지만 지대가 낮아 홍수가 우려되니 주변에 나무를 심으면 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세 사람이 3곳에 나무를 심고 정자 3개를 지어 살기 시작한 것이 마을의 유래이다. 느티나무는 마을이 형성된 이후에 홍수를 피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심은 나무 중에 살아남은 것이다. 어느 해에 홍수로 가옥이 침수되었지만 마을 사람들이 심은 느티나무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면하였다. 그 후 마을에서는 커다란 느티나무에 제단을 쌓고 정월 대보름날에 당산제를 지냈다. 단을 만들어 놓은 보호수 느티나무는 할아버지 당산이고, 마을 서쪽의 휴서정 옆에 있는 나무는 할머니 당산이라 부르고 있다. 한편, 장록동은 원(院)이 있어 장록원으로 불렀다. 여행자에게 숙식 편의를 제공하던 공공여관을 원院이라 불렀고, 보통 말을 보관하였던 곳을 역驛이라 하였던 것으로 보면 옛날 장록동(장록원)에는 공공 여관과 역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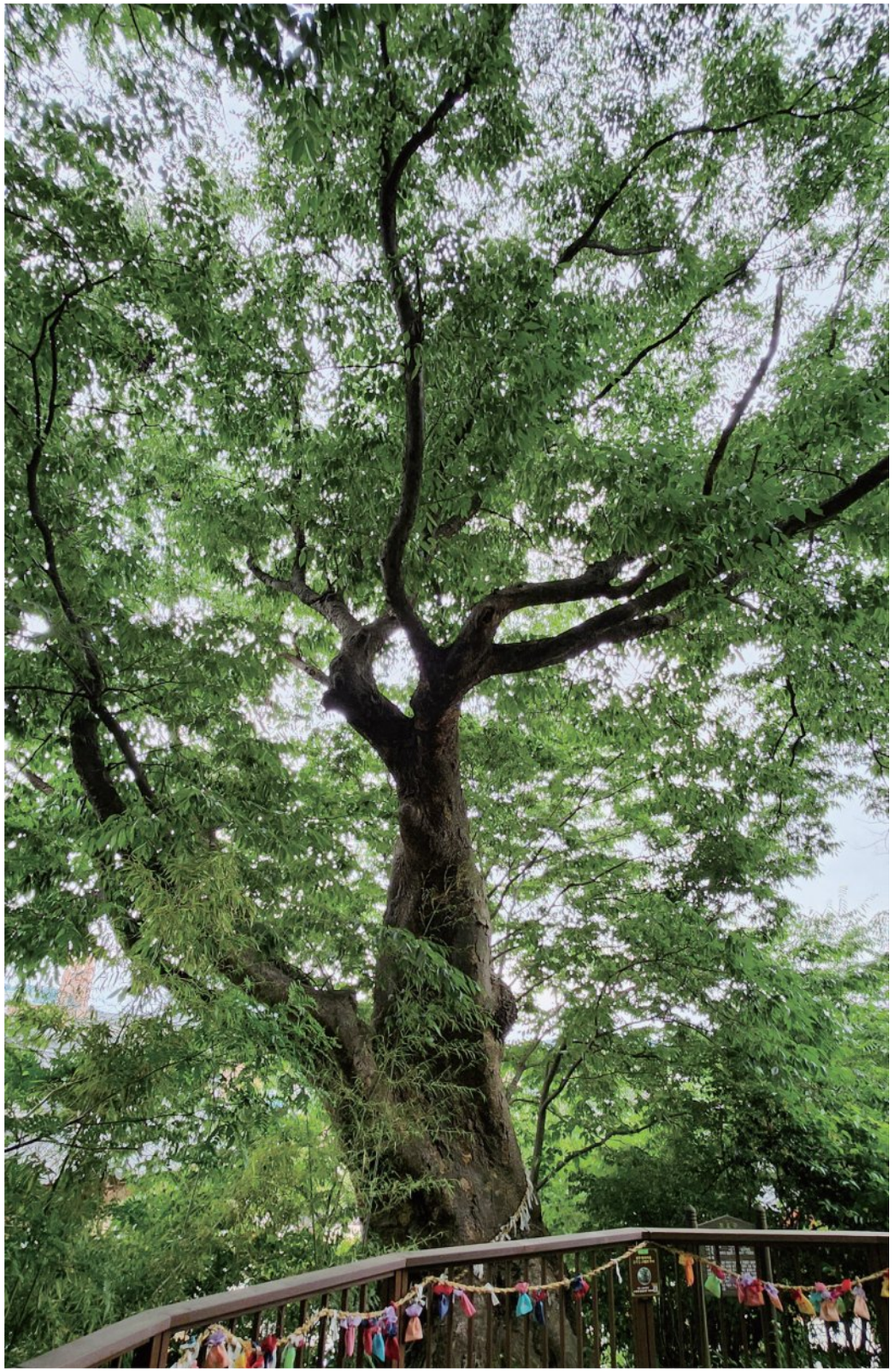
김제 관아(동헌)에 심어져 있는 회화나무

지정번호 김제-9-16-21-1
지정년도 1992
관리기관 김제
수령 341년
수고 17m
흉고둘레 2.7m

전북 김제시 교동 7-3
35° 48′ 02.85″ N
126° 52′ 55.99″ E

출세한 사람이나 양반들이 좋아하는 보호수(김제-9-16-21-1) 회화나무는 김제 관아의 동헌 건물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다. 회화나무의 나이는 341년으로 추정된다. 나무높이는 17m, 가슴높이둘레는 270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10m 가량으로 무성한 편이 아니다. 원줄기는 높이 4.5m 정도에서 처음으로 가지를 내고 있으며, 그 위쪽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마디마다 여러 갈래의 작은 가지를 펼치고 있다. 줄기는 곧게 위로 올라간 듯하지만, 관아 건물의 정문 쪽에서 보면 왼쪽으로 기울어있다. 줄기 밑동은 높이 1.5m 정도까지 충전재 처리의 외과수술 흔적이 있다. 위쪽 가지는 말라죽은 것이 있다. 생육상태는 보통이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지만 보호수 회화나무가 있는 곳이 김제 동헌(전북유형문화재)이라는 데에 의미가 있다. 회화나무는 김제 관아를 들어서면 바로 보이며, 그 뒤쪽으로 김제 내아(2022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 예고)가 자리하고 있다. 회화나무는 동헌 옆의 오른쪽에 있고, 동헌과 내아 사이에도 팽나무, 은행나무 등 다른 고목이 자라고 있다. 김제 동헌은 고을의 공무를 수행하던 관아 건물이다. 1667년(현종 8년)에 처음 지었으며, 1699년(숙종 25년)에 수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면 7칸, 측면 4칸의 겹처마 팔작지붕 건물이다. 지방관리 가족이 생활하는 내아는 유일하게 동헌과 함께 남아있어 건축사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내아는 일반적으로 동헌과 멀리 떨어져 있으나 이곳은 동헌과 내아가 가까이에 있다. 한편, 보호수 회화나무가 있는 김제 관아 바로 인근의 성산공원과 김제향교에도 아름드리의 보호수와 함께 여러 고목들이 자라고 있다.





여동생이 죽어 화신한 느티나무

지정번호 전주-9-1-30
지정년도 2015
관리기관 전주
수령 510년
수고 12m
흉고둘레 4.5m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교동 65-67
35° 48′ 48.95″ N
127° 09′ 11.29″ E

전주시의 오목대 입구에 있는 보호수(전주-9-1-30) 느티나무는 전주한옥마을이 내려다보이는 둘레길의 동산 비탈에 자라고 있다. 오목대梧木臺는 고려 우왕 6년(1380) 이성계가 남원 운봉 황산에서 왜구를 무찌르고 돌아가는 길에 이 곳에 들려 종친들과 전승 축하잔치를 벌인 곳으로 유명하다. 이를 기념한 고종의 친필비가 서 있다. 현재 이곳은 기린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느티나무는 산책길의 급경사지에 있다. 느티나무의 나이는 510년으로 추정된다. 나무높이는 12m, 가슴높이둘레는 450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13m 가량이며, 위쪽이 주변의 나무들과 겹쳐 있다. 원줄기는 밑동에서 작은 가지가 옆으로 뻗어 있으며, 주 줄기는 높이 3m 정도에서 2갈래로 갈라져 있다. 줄기 밑동의 한쪽은 높이 4m 정도까지 충전재 처리의 외과수술 흔적이 있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죽은 자의 넋과 관련이있다. 옛날 이곳에는 몹쓸 전염병에 걸린 부모가 살고 있었다. 부모는 자식에게 전염병이 옮기면 가족 모두가 죽을 것 같아서 멀리 숨어버렸다. 한겨울이었다. 아들은 며칠째가 돼도 부모가 나타나지 않자, 부모를 찾기 위하여 먼 길을 나섰지만 눈이 많이 쌓인 산속을 헤매다가 얼어 죽었다. 여동생은 오빠가 죽은 줄도 모르고 언덕에서 오매불망 기다리다가 배고픔과 추위로 얼어 죽었다. 여동생이 죽은 자리에서 한 그루의 느티나무가 자라났다. 마을 주민들은 전설에 나오는 여동생의 넋을 기리고 마을의 안녕을 빌기 위하여 정월 대보름날에 이 느티나무 아래에서 제를 지내고 있다. 즉 정월 대보름날은 커다란 느티나무에 하얀 천을 끼운 새끼를 칭칭 두르고 제를 지내면서 축제를 하는 날이다. 동네 사람들은 이 느티나무가 전주한옥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지켜온 당산목으로 여기고 있다. 최근에는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많은 방문객들이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소망하여 이 느티나무를 찾고 있다.

친구 우정의 징표로 심은 은행나무

지정번호 전주-9-1-3
지정년도 1982
관리기관 전주
수령 423년
수고 27m
흉고둘레 6.4m

전북 전주시 완산구 향교길 13
35° 48′ 46.63″ N
127° 09′ 25.30″ E



전주향교가 지어질 당시 심은 보호수(전주-9-1-3) 은행나무는 향교 내에 여러 그루가 각기 달리 자라고 있다. 각각의 은행나무는 모두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으며, 열매를 맺는 것이 있어 가을이면 냄새가 고약하다. 명륜당 옆의 은행나무의 나이는 423년으로 추정된다. 나무높이는 27m, 가슴높이둘레는 640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17m 정도이다. 이 은행나무는 할머니 나무라 부르고, 인근의 은행나무는 할아버지 나무라 불린다. 원줄기는 우뚝 솟아 있으며, 높이 3m 정도에서 2갈래로 갈라진 후 높이 5m 정도에서 다시 3갈래의 가지 줄기를 내어 나무모양을 만들고 있다. 줄기 중간의 고사한 가지 줄기는 군데군데에 충전재 처리의 외과수술 흔적이 있다. 생육상태는 양호하다. 향교 안쪽이기 때문에 담장 등의 설치가 없어 답압이 심한 상태이다.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전하는 이야기는 친구와 관련이 있다. 어느 동네에 아주 친한 친구 5명이 있었다. 그들 중 3명은 가난하고, 2명은 부자였다. 이들은 성장하면서 향교에서 함께 공부하게 되었다. 이 향교에는 5그루의 은행나무가 자라고 있었는데, 친구 5명은 각자 자기 나무를 정해 놓고 가꾸면서 서로의 우정을 다졌다. 그리고 부자 친구들은 가난한 친구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등 여러 도움을 주면서 우정을 더욱 키워 나갔다. 친구들이 각자 지정한 은행나무는 5그루 중 3그루만 열매를 맺었다. 열매를 맺는 은행나무는 가난한 친구들이 가꾸는 나무였다. 이를 두고 후세 사람들은 열매를 맺는 3그루는 늘 받기만 하던 가난한 친구 셋이 죽어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기 위하여 환생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늘 베풀었던 친구 두 사람은 죽어서 친구들이 열매를 맺어 베푸는 것을 자랑스럽게 바라본다고 생각하였다. 주민들의 일부는 음양의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김해동이란 사람이 암나무 옆에 수나무를 심었다고 말하고 있다.



전라지역

은행나무

애절한 부부의 사랑을 상징하는 은행나무

지정번호	광주-1982-36
지정년도	1999
관리기관	고창
수령	430년
수고	21m
흉고둘레	4.6m

전북 고창군 고창읍
석정2로 173
35° 25′ 52.20″ N
126° 44′ 27.79″ E

보호수 은행나무가 있는 곳은 석정리의 외정마을이었다. 돌이 많고 산으로 둘러싸인 외정마을은 석정리 외곽의 자연마을이다. 온천단지가 조성되면서 마을 주민은 모두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다. 은행나무는 조양 임씨 세거터에 있다. 온천단지가 알려지면서 외정마을을 찾는 것보다 석정온천 입구를 찾는 것이 더 쉽다. 은행나무는 암그루와 수그루가 아주 가까이에 있으나 붙어있지 않다. 죽어서도 부부가 된 전설 이야기가 잘 알려져 있다. 이곳의 주인이었던 임도령은 한양 참판댁 딸과 약혼한 사이였는데, 임도령에게는 사랑하는 여인이 따로 있었다. 천민의 소사이었다. 임도령은 무과에 급제하면 결혼하자는 맹세로 은행나무 한 그루를 심었고, 소사는 자신의 머리를 잘라 미투리(신발)를 만들어 임도령에게 주었다. 하지만 임도령은 임무 수행 중에 전사하였고 소사는 유품에서 미투리를 발견하고 통곡하다 숨을 거두었다. 얼마 후 임도령이 심은 수그루의 은행나무옆에 소사의 혼이 담겨 있는 암그루가 자라게 되었다. 죽어서 부부가 된 임도령과 소사는 지금까지 부부의 도를 지키듯 마주하여 해마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 이곳의 보호수 은행나무는 이 외에도 또 다른 이야기가 전한다. 옛날에 한 부부가 외정마을에 살았다. 부부는 서로 사랑이 매우 깊었다. 아내는 남편이 전쟁터에 나간 날부터 남편을 기다리며 은행나무 아래에서 매일같이 기도를 드렸다. 남편은 전쟁터에서 큰 공을 세웠고, 무사히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다. 하지만 남편을 기다리며 은행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던 아내는 남편을 만나자 너무 기뻐서 그 자리에 쓰러진 후 일어나지 못하였다. 남편은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며, 아내의 넋을 기리기 위하여 마을에 은행나무 2그루를 심었다. 이 은행나무는 마을 주민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며, 지금도 마을을 지키고 있다. 은행나무는 높이가 21m 정도이고, 큰 개체의 가슴높이 둘레가 460cm 정도가 되는 거대한 나무이다. 2그루 나무는 마주하여 서 있으며, 가까이 가면 마치 입맞춤하는 모습을 하고 있어 이색적이다. 나무나이가 430년으로 다른 고목의 은행나무에 비하여 오래 살고 있는 편이 아니지만 온천단지가 있어 방문객이 많고 잘 조성한 공원 언저리에 있으며 흥미로운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어 의미가 있다.

당신과 나의 표지석
문구가 독특한 느티나무

지정번호 무주-9-8-3-8
지정년도 1982
관리기관 무주
수령 356년
수고 20m
흉고둘레 4.1m

전북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410-24
35°53′46.40″N
127°46′33.08″E

덕유산 자락의 덕유마을에 있는 보호수(무주-9-8-3-8) 느티나무는 등산로가 시작되는 들머리의 길가 옆에 자라고 있다. 느티나무의 나이는 356년으로 추정된다. 나무높이는 20m, 가슴높이둘레는 410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22m 가량이며, 우산을 펼친 모양처럼 보인다. 원줄기는 높이 2.5cm 정도에서 우산살처럼 여러 갈래로 갈라졌고, 다시 가지 줄기를 많이 내어 풍성한 나무모양을 만들고 있다. 주변은 석축으로 크게 둘러져있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지만 덕유산을 찾는 사람들이 눈여겨보는 나무이기에 여기에서 소개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느티나무는 백련사 방향 산행의 시작 지점에 있으며, 구천동의 어사길을 향하는 초입부에 자리하고 있고, 관광특구에서도 멀지 않으므로 접근이 용이하다. 느티나무 밑에 표지석(표지판)이 있는데, 다른 보호수 안내의 글 내용과 약간 다르게 독특한 점이 있다. 그대로 적어 보면 '나는 당신을 위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 땅에 일어났던 모든 재난 속에서도 오직 당신을 위해 의연히 서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아끼고 사랑해 주신다면 당신과 당신의 후손들 곁에서 억겁을 살으렵니다.'이다. 덕유산德裕山은 덕이 넉넉한 산이다. 이성계가 덕유산에서 무술 수련을 할 때에 맹수들이 득실거렸음에도 해를 입지 않았다고 하여 덕이 넉넉한 산으로 알려져 있다. 구천동은 옛날 성불공자 구천인九千人이 살았다는 설이 전해지고, 어사 박문수가 이 고을에 구具과 천千씨의 큰 다툼을 해결하였다고 하여 구천동具千洞이라 이름을 지었다는 설이 있는데, 현재는 구천동九千洞이라 부르고 있다.



마을 액운을 막아주는 당산목의 느티나무

지정번호	무주-9-8-5
지정년도	1982
관리기관	무주
수령	506년
수고	20m
흉고둘레	6.9m

전북 무주군 안성면 금평리 583
35°52′36.33″N
127°41′39.96″E



둑을 보호하는 호안목의 역할을 하는 보호수(무주-9-8-5) 느티나무는 두문마을의 농로길이면서 3갈래의 마을길 옆에 자라고 있다. 느티나무의 나이는 506년으로 추정된다. 나무높이는 20m, 가슴높이둘레는 690cm, 밑동둘레는 720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20m 정도이며, 가지가 잘 자라서 잎이 무성하다. 원줄기는 높이 2.5m 정도에서 크게 2갈래로 갈라졌으며, 그 위쪽에서 다시 여러 갈래로 갈라졌다. 생육상태는 양호하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선비의 장원급제를 비롯하여 뱀과 관련하고 있다. 옛날에 학업을 열중하지 않던 선비가 어느 날 신선을 만난 후 마을에 내려와 지팡이를 꽂아 두었다. 지팡이를 꽂은 이유는 지팡이에서 싹이 돋을 때까지 학업에 정진하겠다는 다짐을 하기 위함이었다. 선비는 지팡이에서 잎이 나올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였기에 과거에 급제하여 세상을 이롭게 하였다. 또한 마을 사람들이 이 느티나무를 여러 차례 베어내려 하였으나, 그때마다 황구렁이 한 마리가 큰 가지에 똬리를 틀고 앉아 사람들을 해칠 듯 널름거렸다. 어느 해 마을 사람들이 의논하여 가지를 꺾으려고 다가가니 황구렁이 한 마리가 나무를 휘감아 베지 못하였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후부터는 작은 가지 하나도 꺾지 않았다. 또한, 마을 사람들은 느티나무 잎이 나오는 것을 보고 한 해 모내기 일을 예견하였다. 봄에 느티나무 잎이 동시에 나오면 온 마을의 모내기가 일시에 이루어져 풍년이 들고 나뭇잎이 가지마다 나오는 시기가 일정하지 않으면 가뭄이 들어 모내기 일도 어려워진다. 두문마을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이 느티나무의 잎이 피는 모양을 보고 농사를 지어왔다. 마을 사람들은 액운을 막아주는 마을의 수호목 또는 당산목이면서 쉼터의 역할을 하는 정자목으로 여기고 있다.



전라지역

느티나무

내소사 일주문 할아버지 당산의 느티나무

지정번호	부안–9–15–7–1
지정년도	1982
관리기관	부안
수령	351년
수고	25m
흉고둘레	5.6m

전북 부안군 진서면
석포리 산 84–1
35° 36′ 43.87″ N
126° 35′ 21.96″ E

할아버지 당산나무(당산목) 구실을 하는 보호수(부안–9–15–7–1) 느티나무는 내소사로 들어가는 일주문 앞에서 자라고 있다. 내소사 느티나무는 경내에 있는 고목의 보호수(예전에 이미 기록 소개)가 할머니 당산이고, 일주문에 있는 것이 할아버지 당산이지만 그 반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느티나무의 나이는 351년으로 추정되나, 여러 자료는 500년 또는 700년으로 기록하고 있다. 나무높이는 25m, 가슴높이둘레는 560cm 정도이다. 원줄기는 높이 3.5m 정도에서 여러 갈래로 갈라지기 시작하여 다시 가지 줄기를 내어 잎을 펼치고 있다. 줄기는 썩거나 충전재 처리가 거의 없이 생장이 왕성한 편이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당산제와 관련이 있다. 느티나무는 '수목대신'으로 축원하는 나무이며, 사찰을 지키는 나무로 알려지기도 하였다. 매년 정월에 진행되는 내소사 당산제는 오랫동안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며 불교와 민속신앙이 어우러진 행사이며, 토속신앙을 통하여 사찰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는 대표적인 행사이다. 1980년 명맥이 끊어진 것을 2009년부터 내소사와 마을 주민들이 전통을 되살리고 있다. 이 당산제의 중요한 의미는 오랜 세월을 거쳐 불교신앙과 민속신앙이 만나 탄생한 민속문화인 동시에 마을공동체 의식이다. 자연합일을 통하여 공동체의 안녕과 풍요를 바라던 소박한 마을신앙과 중생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동체대비同體大悲의 불교정신이 당산제로 결합한 것이다. 한편, 내소사의 주소가 여러 개가 있어 느티나무 보호수를 찾아가기 위하여 여러 주소를 검색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느티나무 당산나무(당산목)도 일주문과 경내의 것에 대한 할아버지 당산과 할머니 당산이 엇갈리는 경우가 있어 혼동이 있을 수 있다.

마을 성립 당시에 심은 느티나무

지정번호 순창-9-12-64
지정년도 1999
관리기관 순창
수령 310년
수고 20m
흉고둘레 5.5m

전북 순창군 쌍치면
금평리 818
35° 29′ 53.58″ N
126° 59′ 23.52″ E

정자나무(정자목)이면서 신목으로 알려진 보호수(순창-9-12-64) 느티나무는 마을의 일반도로와 마을길 사이의 빈터에 자라고 있다. 느티나무의 나이는 310년으로 추정된다. 나무높이는 20m, 가슴높이 둘레는 550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23m 가량이며, 넓게 퍼져 있다. 원줄기는 높이 2.5m 정도에서 크고 굵게 2갈래로 갈라진 후 다시 가지줄기가 갈라져 전체 나무모양을 만들고 있다. 줄기 밑동은 부분적으로 충전재 처리의 외과수술이 진행되었으며, 중간의 굵은 줄기도 충전재 처리가 되어 보호되고 있다. 생육상태는 보통 이상이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정자나무(정자목) 식재유래와 관련이 있다. 마을의 형성 초기에는 만수동으로 넘어가는 제밀과 박씨 나뭇골 금정굴에서 몇몇 가구가 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금정굴에서 지금의 장소로 이주하여 마을을 이루었는데, 느티나무는 그 당시에 심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조선 효종 때이었다. 사람들이 추령천 인근에 펼쳐진 뜰의 농토를 따라 터를 잡았는데, 이때 스님이 마을을 지나가다가 앞의 강변을 파면 금이 나온다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마을 앞의 강가를 파기 시작하였다. 그랬더니 그곳에서는 금이 아니라 맑은 물이 솟아 나왔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을 '금정'이라 불렀고, 그곳에 자라고 있던 나무를 금정마을 느티나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그 때부터 함께 한 느티나무는 1960년대에 어린아이의 불장난으로 나무 중심부가 일주일간이나 타 많은 가지가 고사하였다. 그 후 주민들의 정성 어린 보살핌과 수술로 다시 살아났다. 마을 사람들은 이 같은 시련에도 꿋꿋이 생명을 지켜 가는 느티나무를 보며 삶의 위안을 얻었다. 마을 주민들은 느티나무를 사람들의 안식처이자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기고 있다. 느티나무 옆에는 '모정茅亭'이 세워져 더운 여름날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다. 호남지방에서는 사람들이 앉아서 쉴 수 있도록 짚이나 새 따위로 지붕을 인 정자를 모정이라 부른다.





탈이 나지 않게 쉬고 가는 느티나무

지정번호	장수-9-9-25
지정년도	1982
관리기관	장수
수령	320년
수고	14m
흉고둘레	5m

전북 장수군 계북면
원촌리 1235-1
35° 48′ 43.06″ N
127° 37′ 49.07″ E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지방도로와 바로 인접한 보호수(장수-9-9-25) 느티나무는 민가가 있는 3갈래 도로 옆에 자라고 있다. 느티나무의 나이는 320년으로 추정된다. 나무높이는 14m, 가슴높이둘레는 500cm, 밑동둘레는 788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17m 가량이다. 원줄기는 곧게 자라다가 갈라지며, 남서쪽 방향의 높이 3m 정도까지 충전재 처리의 외과수술 흔적이 있다. 큰 가지는 높이 9m 정도에서 잘라져 충전재로 마감하여 보호하고 있고, 높이 10m 가량에서 가지를 절단하여 보호하고 있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쉼터, 소원 등과 관련이 있다. 느티나무 바로 옆에 작은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는 예전에 왕이 지나갔다고 하여 '왕경다리'라고 부르고 있다. 일설에는 왕이나 원님이 이 다리를 지나가려고 할 때면 언제나 느티나무 밑에서 잠시 쉬었다가 갔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가는 길에 탈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느티나무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전하면서 여러 행인들도 다리를 지나기 전에 쉬어 갔다. 또 다른 느티나무 이야기는 다른 곳에서 전승하는 느티나무 고목의 전설과 비슷하다. 동구 밖에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에 치성을 드리면 아들을 낳게 된다고 하여 자식을 못 가진 아낙네들이 소원을 빌었다. 아들을 갖기 위한 소원목의 하나였다. 그리고 봄에 잎이 나오는 모습으로 그해 농사의 풍년과 흉년을 점쳤는데, 잎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나오면 풍년이고 그렇지 않으면 흉년이 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아래 잎이 풍성하면 풍년이 들고, 위쪽 잎이 메마르거나 풍성하지 않으면 흉년이 든다고 믿었다.

공자의 고향에서 가지고 온 은행나무

지정번호 나주-15-4-16-2
지정년도 1982
관리기관 나주
수령 550년
수고 25m
흉고둘레 6.7m

전남 나주시 교동 32-3
35° 01′ 59.38″ N
126° 42′ 41.80″ E



고을을 지켜온 수호목이자 신목인 보호수(나주-15-4-16-2) 은행나무는 나주향교의 대성전 옆의 담벼락과 인접하여 자라고 있다. 나주향교는 조선 전기에 창건되었다. 제사 공간인 대성전이 앞에 있고, 학문을 배우는 명륜당이 뒤에 있다. 향교의 대성전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독특한 점은 창건될 때 공자의 고향인 산둥지방에서 흙을 가져와 대성전의 벽에 발랐다. 은행나무의 나이는 550년으로 추정된다. 나무 높이는 25m, 가슴높이둘레는 670cm 정도이다. 나무 갓은 사방의 너비가 14m 가량이다. 원줄기는 밑동이 굵고 위쪽으로 곧게 올라갔으며, 군데군데에서 가지 줄기를 내어 전체 나무모양을 만들고 있다. 지면으로 보면 하늘 높이 수직으로 자란 것이 아니라 약간 비스듬하게 서 있다. 밑동은 맹아에서 자란 어린 가지가 무성하다. 줄기는 한쪽면의 밑동에서부터 높이 8m 정도까지 군데군데에 충전재 처리가 되었는데, 이는 예전에 속이 비어 있는 것을 채운 것이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식재의 유래와 관련이 있다. 은행나무는 옛날에 향교에 많이 심어졌다. 향교에 심는 내력은 공자가 은행나무 아래에서 제자를 가르쳤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하며, 또한 곧게 자라는 은행나무처럼 유생들이 올바른 길을 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심었다. 벌레가 잘슬지 않아 관직에 진출할 유생들이 부정에 물들지 말라는 뜻에서 향교와 서원에 많이 심었다. 유교와 관련한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이다. 나주향교의 은행나무는 조선 태조 이성계가 심었다. 이성계는 나주를 방문하여 정도전과 새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밤새도록 의논할 때에 은행나무를 향교에 심는 것까지 논의하였다. 이 은행나무는 묘목상이 공자의 고향에서 가지고 온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그리고 이 은행나무는 1960년대 초의 어느 초겨울에 어린이들이 속이 빈 곳에서 불장난을 하다가 불이 나서 껐으나 3일 동안 연기가 멈추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에 의미를 더하여 행운을 가져다주는 나무로 여기고 있다. 나주향교의 은행나무는 나주의 '금성관' 후원의 700살 쌍자매 은행나무와 도보로 5분 거리에서 마주 보고 있으며, 넓은 그늘을 만들어 돌담길의 행인들에게 푸근함을 안겨주고 있다.



전라지역

느티나무

돌무더기 임청대 옆에 자라는 느티나무

지정번호 순천-15-3-13-1
지정년도 1974
관리기관 순천
수령 510년
수고 17m
흉고둘레 4.8m

전남 순천시 임청대길 7
35° 57′ 08.98″ N
127° 28′ 44.70″ E

옥천서원의 인근 개울가에 접하여 있는 보호수(순천-15-3-13-1) 느티나무는 주택 및 길가 옆의 임청정원에 자라고 있다. 임청정원은 옥천 개울가와 정자 및 동그랗게 돌을 쌓아 놓은 곳을 중심으로 꾸민 청정구역이다. 느티나무의 나이는 510년으로 추정된다. 나무높이는 17m, 가슴높이둘레는 480cm 정도이다. 나무갓은 15m 가량이다. 원줄기는 높이 3m 정도에서 크게 2~3갈래로 갈라진 후 다시 가지 줄기를 내어 펼치고 있다. 위쪽 가지 줄기는 잘라졌으므로 새로운 가지를 내어 위쪽으로 향하고 있다. 줄기 밑동은 한쪽 부분에 충전재 처리의 외과수술 흔적이 있다. 개울가 옆에 자라는 느티나무의 생육상태는 양호하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임청대臨淸臺'와 관련이 있다. 느티나무는 '임청대기'와 '강남악부'에 기록되어 있는 나무이다. 매계가 1502년에 쓴 '임청대기문'은 순천부 서쪽에 시내가 있는데 물이 매우 맑고 바위가 매우 기이하며, 나무(현재의 느티나무로 추정)가 우거져서 해를 가리고 있다고 하였다. 강남악부는 1784년에 조현범이 순천 지역의 인물, 풍속, 신기한 일 등에 관한 이야기를 모아서 엮은 책이다. 느티나무는 임청대 옆에 서 있다. 임청대는 1498년 무오사화로 인하여 순천 지역으로 유배된 조위(1454~1503)와 김굉필(1454~1504)이 동그랗게 돌을 쌓아 만들어 교유하던 곳이다. 조위가 '항상 마음을 깨끗이 가지라'라는 뜻으로 임청대라 이름 지었다. 또한 1565년 순천부사로 부임한 이정(1512~1571)이 그들의 덕을 기리기 위해 임청대비를 세우고 옥천서원도 건립하였다. 임청대의 앞면 글씨는 퇴계 이황(1501~1570)이 썼다. 느티나무는 20여 년 전까지도 마을의 당산제를 지냈던 당산나무(당산목)였으며, 지금도 매년 마을 공동으로 간단하게나마 동례를 행하는 관례가 있다.



마을 지키는 할아버지 당산의 은행나무

지정번호 순천-15-3-8-3
지정년도 2011
관리기관 순천
수령 713년
수고 25m
흉고둘레 5.3m

전남 순천시 해룡면 중흥리 240
34°53′51.65″N
127°32′07.25″E

비탈면에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듯한 보호수(순천-15-3-8-3) 은행나무는 마을의 좁은 골목길 끝에 있는 산야의 초입에 있다. 은행나무의 나이는 713년으로 추정된다. 나무높이는 25m, 가슴높이둘레는 530cm 정도이다. 원줄기는 3개가 위쪽으로 곧게 뻗어 있고 곁가지를 내어 나무모양을 만들고 있으나 가운데 줄기는 말라죽은 상태이므로 비어 있는 공간이 큰 편이다. 밑동은 충전재 처리의 외과수술 흔적이 많고, 나무껍질에서 새순이 나와 자라고 있다. 생육상태가 좋은 편이 아니다. 주변에는 석축이 쌓여 있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신목과 관련이 있다. 당산나무(당산목)는 마을을 지켜 주는 나무이다. 당산나무는 신령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여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중흥마을의 은행나무는 마을의 수호신처럼 여기는 나무이다. 해룡면에서는 중흥마을의 은행나무를 할아버지 당산나무라 하고, 인근의 대가마을(대가리) 은행나무를 할머니 당산나무라 하여 함께 마을의 안녕을 기원할 때에 제를 지내고 있다. 나무갓은 원추형에 가까운 모양을 하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어른 5명이 안아도 팔이 10cm가 부족하다는 속설이 있는 나무라고 전한다. 예전에는 동네에서 어린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숨바꼭질하는 놀이 장소로 가장 많이 알려진 나무이다. 한편 중흥마을의 은행나무 앞에는 임야 175㎡(53평)를 제주 양씨 순천 종중에서 1995년 5월에 중흥리 주민에게 희사하였다는 표지석을 2009년에 중흥리 주민 일동 이름으로 만들어 세웠다.

만인공덕을 위해 심은 느티나무

지정번호 여수-15-2-12-2
지정년도 1982
관리기관 여수
수령 610년
수고 28m
흉고둘레 6m

전남 여수시 오림동 422-2
34° 45′ 31.18″ N
127° 00′ 16.35″ E

남편의 극락왕생을 위하여 심은 보호수(여수-15-2-12-2) 느티나무는 오림동 이마트 맞은편의 대로변에 2그루가 자라고 있다. 고목의 느티나무 2그루가 모두 보호수이다. 2그루 중 한 그루의 보호수(여수-15-2-12-1) 느티나무는 2016년 대한민국 보호수 100 선정에서 소개를 한 바 있다. 이번에 소개하는 느티나무는 그 옆의 보호수(여수-15-2-12-2)이다. 이 느티나무가 있는 곳은 옛날 좌수영성 서문에서 5리 지점에 있다는 뜻의 '오리정'이 있던 곳이다. 지금은 오리정이 있었던 곳에 '오림정'이 새롭게 지어졌다. 나무나이는 610년으로 추정된다. 나무 높이는 28m로 기록하고 있으나 주요 줄기가 고사하였으므로 이보다 낮으며, 가슴높이둘레는 600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24m 가량이다. 원줄기는 높이 3m 정도에서 몇 갈래로 갈라진 후 다시 작은 가지가 나와 펼쳐져 있다. 주요 줄기가 고사하여 보호를 받은 후에 새로운 가지가 나온 형태이며, 생육상태는 좋지 않은 편이다. 2008년 초에는 보호수 일부가 불에 타기도 하였다. 이 느티나무는 홀어미 느티나무 또는 육모정 느티나무라 일컫는 전설을 지니고 있다. 전설은 한곳에 있는 보호수 2그루가 동일하며, 지난 2016년에 이미 소개한 바 있으므로 이번에는 이야기를 축약한다. 옛날에 오림동에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남편은 병을 얻어 투병 생활을 하다가 숨을 거두었다. 부인은 삼일장으로 남편의 장례를 치른 후부터 밤이 되면 죽은 남편의 가냘픈 울음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이와 같은 일이 밤마다 계속되는 어느 날 부인이 대들보에 목을 매어 자살을 기도하였다. 그 순간 길을 가던 노승은 이 같은 현장을 목격하고 생명을 구한 후 부인에게 "남편은 저승으로가지 못하고 구천을 헤매고 있으니 만인공덕을 쌓아야 극락을 가게 됩니다"라고 말하였다. 부인은 "재물이 없으니 어찌 만인공덕을 할 수가 있습니까"하고 노승에게 물었다. 이에 노승은 "만인공덕은 재물만이 아니라 정성이 있으면 됩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고, 개천에 돌다리를 놓으며, 길가는 행인에게 쉬는 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모두 만인공덕입니다"라고 말하고는 가던 길로 떠났다. 그 후 부인은 남편의 극락왕생을 위한 만인공덕을 생각한 끝에 부부처럼 느티나무 한 쌍을 심었다. 부인은 이 느티나무가 크게 자라 그늘이 우거져 오고가는 행인이 쉬어가는 자리가 되는 것도 만인공덕이라 여겼다.





이순신이 쉬던 정자 옆에 심은 왕버들

지정번호	구례-15-9-1-19
지정년도	2010
관리기관	구례
수령	510년
수고	19m
흉고둘레	5.5m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 295-1
35° 12′ 31.47″ N
127° 27′ 47.73″ E

구례읍사무소 현관 왼쪽에 위치하는 보호수(구례-15-9-1-19) 왕버들은 물가를 좋아하는 나무이지만 지자체의 여러 기관과 주택이 들어선 곳에서 자라고 있다. 왕버들나무의 나이는 510년으로 추정된다. 나무높이는 19m, 가슴높이둘레는 550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21m 정도이다. 원줄기는 밑동이 굵고 약간 뒤틀린 모양으로 비스듬한 듯이 곧게 자라고, 높이 3.5m 정도에서 2~3갈래의 가지 줄기로 갈라져 있다. 원래 4갈래의 줄기였으나 1개의 줄기가 고사하여 잘려 나갔다. 줄기 밑동에 약간의 충전재 처리의 외과수술 흔적이 있으나 생육상태는 양호이다. 주변은 돌을 박아 놓아 경계를 하고 있으며, 안내판이 설치되었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이순신과 관련이 있다. 왕버들 앞에는 '명협정蓂莢亭'의 정자가 있다. 명협정은 이순신이 휴식을 취하던 정자를 복원한 것이다. 왕버들도 정자와 함께 이순신과 당시 장군을 따르던 많은 구례 주민의 쉼터가 되었을 것이다. 1597년 4월 26일 이순신은 삼도수군통제사에서 해임되어 백의종군의 명으로 고난의 여정을 걸을 때 구례에 들렀다. 이 때 구례현감 이원춘과 군관 손인필 등 구례군민으로부터 극진한 환대를 받았다. 이순신은 제찰사 이원익을 만나 전시 상황을 듣고 전략을 논의하였는데, 이러한 논의를 하고 쉬었던 곳이 동헌과 명협정이었다. 지금은 인근 주민들이 쉼터이면서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하는 문서는 예전 구례 관아에 연못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물가를 좋아하는 왕버들이 있는 이곳이 연못이 있던 곳일 수도 있단다.

할머니 굽은 허리모양 신목의 느티나무

지정번호	구례-15-9-1-6
지정년도	1982
관리기관	구례
수령	260년
수고	5m
흉고둘레	2.5m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2231
35°12′03.34″N
127°27′17.79″E



마을의 정자나무(정자목)이면서 당산나무(당산목)의 보호수(구례-15-9-1-6) 느티나무는 구례향교 앞길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 느티나무의 나이는 260년으로 추정된다. 나무높이는 5m, 가슴높이둘레는 250cm 정도이다. 예전에는 나무높이가 지금의 두 배 정도로 크게 자랐으나 어느 해에 벼락을 맞은 후 지금의 형태로 자라고 있다. 원줄기는 곧게 서지 않고 한쪽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등이 약간 굽은 형태이다. 마치 할머니의 굽은 허리처럼 보이는 등 쪽의 줄기는 충전재 처리의 외과수술 흔적이 있고, 앞부분은 넘어지지 않게 쇠기둥의 받침목을 대고 있다. 느티나무는 말라 죽은 위쪽 가지 줄기가 남아 있으며, 생육상태는 보통이다. 주변은 자연석으로 둥그렇게 두르고 있으며, 그곳에 작은 느티나무를 심어 놓았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당산나무(당산목)와 관련이 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느티나무를 할머니 당산 또는 할머니 당산나무라 부른다. 예전에는 할아버지 당산, 할머니 당산, 아들 당산의 3당산을 각각 모셨다. 할아버지 당산은 감나무이고 향교의 뒤쪽에 있으며, 아들 당산은 마을 옆으로 흐르는 시냇가 옆에 작은 흙무더기 위의 편편한 돌이다. 1990년 무렵부터는 할머니 당산의 느티나무 아래에서 한꺼번에 3당산 합동의 당산제를 지내고 있다. 당산제는 섣달 그믐날 자시 경에 지내며, 제관 혼자 조용히 모시고 축문을 읽지 않는다. 제관으로 선정된 사람만이 참석하여 제를 올리는데, 당산제를 올리기 며칠 전부터 목욕재계를 하며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다. 금줄은 새끼로 둘둘 감고, 썩을 때까지 그대로 둔다. 마을 사람들은 느티나무가 봄에 전체적으로 일제히 싹을 틔우면 풍년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흉년이 든다고 믿고 있다. 또한 위쪽에서 먼저 싹이 나오면 풍년이고, 아래쪽에서 싹이 먼저 나오면 흉년이 든다고 믿었다.

당굿과 당제를 지내는 신목의 느티나무

지정번호	완도-15-20-1-2
지정년도	1982
관리기관	완도
수령	537년
수고	20m
흉고둘레	7.2m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 14-8
34°21′40.00″N
126°43′47.00″E



옛날 화살을 쏘는 무술연마의 장소에 있는 보호수(완도-15-20-1-2) 느티나무는 고목(노거수)의 팽나무와 한자리에서 이웃하여 잘 자라고 있다. 느티나무의 나이는 537년으로 추정되나 마을 사람들은 600년이 넘었다고 주장한다. 나무높이는 20m, 가슴높이둘레는 720cm 정도이다. 원줄기는 밑동이 굵으며 사람 키 높이에서 3갈래로 크게 갈라진 후 가지 줄기가 사방으로 퍼져 있다. 군데군데에서 외과수술을 받은 흔적이 있으나 생육상태가 양호하다. 주변은 뿌리 보호를 위하여 흙을 북돋아 주었고 담장을 설치하여 잘 관리하고 있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장좌리 당굿 및 당제(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28호)와 관련이 있다. 당제를 지내는 당집은 2곳인데, 한 곳은 마을 안쪽 사장나무(느티나무와 팽나무) 거리에 있고, 다른 한 곳은 마을에서 300m 떨어진 장도라는 섬에 있다. 당제는 정월 초 사흘날부터 준비하여 대보름날 해가 떠오를 시각에 맞추어 행해진다. 사장나무는 활쏘기하는 곳 사장射場의 나무를 말하며, 현재 느티나무와 2그루의 팽나무가 모두 한곳에 모여 있다. 당제를 준비할 때는 우선 사장나무 주변에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상왕봉에서 파온 흙으로 신성지역을 상징하는 금표를 한다. 또한 사장나무에는 금줄을 둘러 신성한 곳임을 표시한다. 오늘날에는 당굿과 길굿, 선상굿, 샘굿, 사장굿을 치고 당주(제주) 집에서 지신밟기를 끝으로 당제를 끝낸다. 당제 날 샘굿에 이어 마지막으로 굿을 치는 곳이 사장나무이다. 사장굿은 3그루 모두에서 차례대로 친다. 이는 사장나무가 병에 걸리지 않고 일 년 동안 무성한 숲을 이루고 잘 자라도록 기원하는 의미에서 치는 것이다. 마을 주민들은 새들이 느티나무에 둥지를 틀고 알을 까면 마을에 좋은 일이 생기는 것으로 믿었다. 또한 팽나무의 잎이 고르게 잘 나오면 논밭에 풍년이 들며, 바다에서 고기가 잘 잡히고 김, 미역 등이 잘 자라났다. 느티나무는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하는 나무이고, 마을의 자랑이며 상징적인 나무이기도 하다.

고려시대 명기(기생)가 심은 느티나무

지정번호	장흥-15-12-2-2
지정년도	2010
관리기관	장흥
수령	700년
수고	18m
흉고둘레	4m

전남 장흥군 관산읍 방촌리 420
34° 32′ 45.00″ N
126° 56′ 55.00″ E



고인돌이 흩어진 곳에 함께 있는 보호수(장흥-15-12-2-2) 느티나무는 마을의 편평한 들판에 우두커니 자라고 있다. 느티나무의 나이는 700년으로 추정되나 주민들은 800년 이상으로 주장한다. 나무높이는 18m, 가슴높이둘레는 400cm 정도이다. 원줄기는 높이 4m 정도에서 몇 갈래로 갈라진 후 위를 향하고 있다. 다시 갈라진 줄기 가지는 위와 옆으로 퍼져 나무모양을 만들고 있다. 생육상태는 양호하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나무 식재 및 정자 이름과 관련하고 있다. 느티나무는 고려시대 회주의 명기인 명월과 옥경이 심었다. 3그루의 느티나무를 식재하였으므로 '여기정女妓亭'이라 불렀다. '동국여지승람'에 본 기록이 있으며, '수림총보'에 여기정은 장생 불로목이라 칭하며 풍흉을 점쳐주는 노거목이라 하였다. 그러나 여기정 이름은 1898년 3월경에 천관산 유람을 마친 연재 송병선(1836~1905)이 방촌 마을에 이르러 삼괴정三槐亭으로 개칭하였다. 삼괴정은 3그루의 느티나무가 있는 정자라는 뜻이다. 처음에는 3그루를 심었다고 하지만 현재 고목은 한 그루와 그 앞에 2그루의 어린 나무가 심어져 있다. 느티나무 주변은 현재 그럴듯한 정자가 없으나 청동기시대의 고인돌 5~10기가 놓여 있다. 그중 커다란 고인돌에는 '三槐亭'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이곳은 더운 여름철에 낮잠을 자면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였고, 선조들은 술잔을 기울이면서 득량만 바다와 완도 금당도를 바라보면서 수창등 풍류를 즐겼던 방촌 팔경의 하나로 여기고있다. 그리고 이곳에는 들돌(독)이 있다. 6월 유두(음6/15), 7월 칠석(음7/7), 백중(음7/15) 등 더위에 지친 여름 농사철 그늘진 당산나무 아래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장정 사내들이 들돌로 힘을 겨루면서 더위를 잊는 여름철 농경문화가 있었다. 이 들돌을 들어 어깨 위로 넘기면 힘센 장사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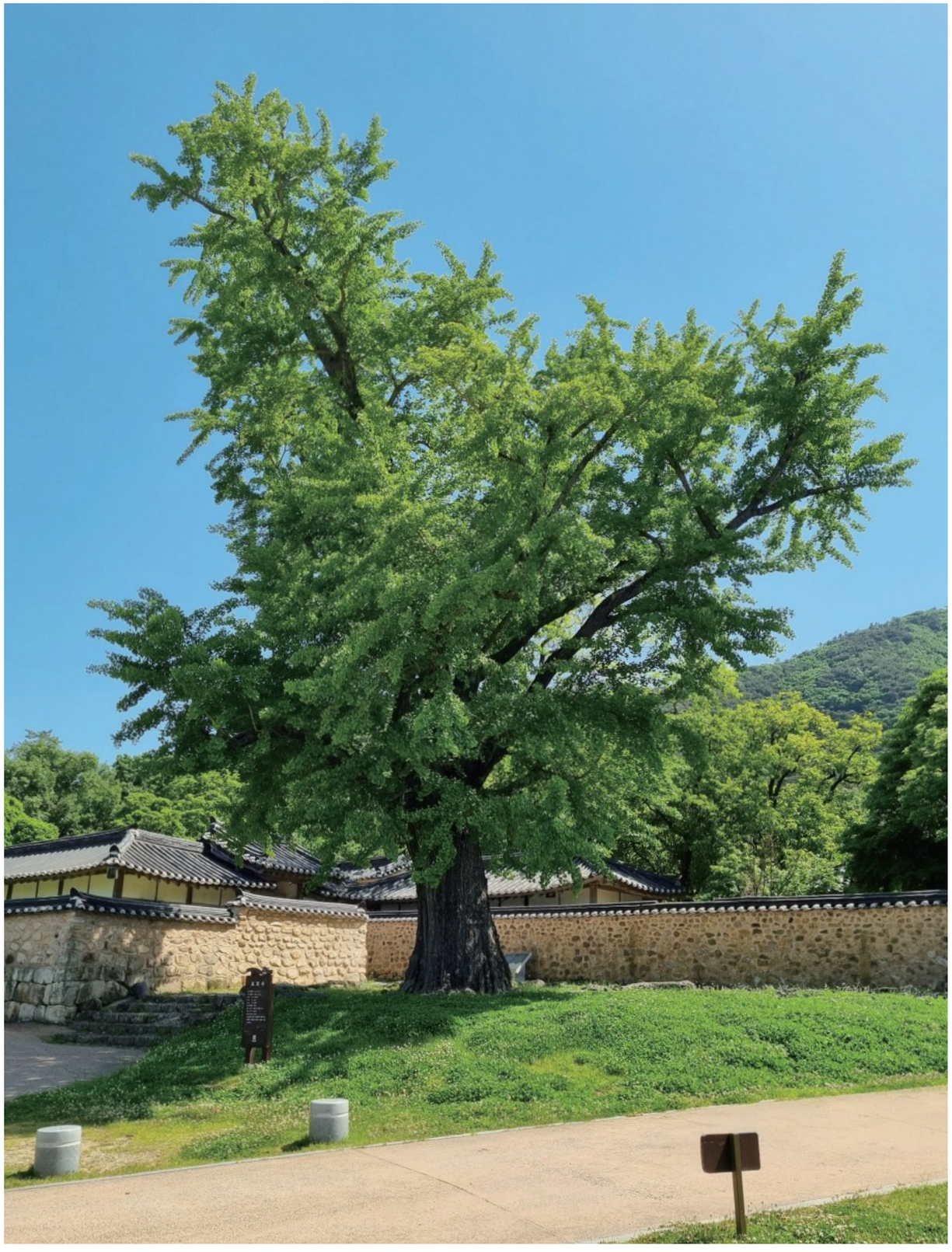
고려시대 절터에 남은 신성한 비자나무

지정번호 장흥-15-12-1-1
지정년도 1982
관리기관 장흥
수령 630년
수고 15m
흉고둘레 4m

전남 장흥군 장흥읍
행원리 188
34°42′04.00″N
126°54′45.00″E

주로 한반도 남부지방에 심어진 보호수(장흥-15-12-1-1) 비자나무는 마을 뒤쪽 해발고도 120m의 산비탈에서 동백나무 등의 다른 나무들과 함께 자라고 있다. 비자나무의 나이는 630년으로 추정된다. 나무높이는 15m, 가슴높이둘레는 400cm 정도이다. 원줄기는 곧게 서고 있으나 높이 2m 정도에서 여러 갈래의 가지줄기가 갈라져 있다. 원줄기 중간과 밑쪽의 가지줄기는 늘어졌으므로 마치 우산을 펴 놓은 모양을 하고 있다. 생육상태는 양호하다. 주변은 산비탈인데, 적절히 네모난 돌을 쌓아 몇 겹의 단을 만들고 있다. 비자나무가 있는 곳은 초행일 경우 가는 길을 찾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식재 내역과 관련이 있다. 비자나무는 고려 성종 때의 백림사(또는 해원사)라는 절터에 심은 나무이다. 조선시대 초에 교리 김협이 입향하여 절을 신흥관서로 옮기게 하고, 김협의 13대 손인 김영씨가 '만년수'라 이름을 지었다. 그리고 비자나무 밑에 축대를 쌓고 군대를 세워 아침저녁으로 왕의 만수무강을 빌었다는 전설도 있다. 또한 비자나무는 신령스러워 이 나무를 베는 자는 신벌을 받았다. 잘 알려진 신벌은 1948년의 일이다. 중년의 어느 주민이 땔감을 위하여 이 비자나무의 가지를 마구 찍어 내어 잘랐다. 그는 그후 시름시름 앓다가 며칠 후에 사망하였다. 또한 광산 김씨 문중에서는 이 비자나무를 신성하게 여겨 잘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정월대보름날에 비자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지금 비자나무 한 그루만이 남아 있지만 예전에는 사찰 주변으로 보다 많은 비자나무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여러 비자나무는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사찰의 퇴락과 함께 하나둘 사라진 석조물들처럼 하나씩 둘씩 이러저러한 사유들로 베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라지역

은행나무

해남윤씨 고택 녹우당에 심은 은행나무

지정번호	해남-15-14-1-7
지정년도	2003
관리기관	해남
수령	510년
수고	23m
흉고둘레	6m

전남 해남군 해남읍
녹우당길 135
34° 33′ 03.00″ N
126° 37′ 20.00″ E

녹우당의 상징인 보호수(해남-15-14-1-7) 은행나무는 기와 돌담으로 이어진 대문 바로 앞에 우뚝 서 있다. 연동마을의 녹우당綠雨堂은 해남윤씨 고택의 유적이며 유물이다. 녹우당은 1501년 윤선도의 4대 조부 윤효정(1476~1543)이 이곳으로 이주하면서 시작되었다. 해남윤씨 집안은 윤효정 이후 5대에 이어지며 과거 급제자가 나와 명문으로 이어졌고, 해안 간척지를 개척하여 재력가가 되었다. 남인을 이끌던 윤선도가 벼슬에 미련을 버리고 녹우당으로 귀향할 때에 수원(화성)의 사랑채를 옮겨오고, 백련지 연못을 큰 규모로 개수하였다. 사랑채는 효종이 자신의 스승이었던 윤선도에게 하사하여 지어준 살림집이다. 이를 1668년에 뱃길로 남부지방의 해남까지 옮겨왔던 것이다. 윤선도의 증손인 윤두서 이후의 녹우당은 더욱 풍성해졌다. 이전의 종갓집에 보태어 1821년 가묘와 3개의 사당이 중건되었다. 이어 행랑채를 신축하고, 1938년에 녹우당 뒤 재각인 추원당을 신축하였다. 현재의 녹우당은 그렇게 400년간의 증축과 개수의 과정을 겪은 결과물인 것이다. 은행나무의 나이는 510년으로 추정된다. 나무높이는 23m, 가슴높이둘레는 600cm 정도이다. 녹우당 앞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대문 앞에 우뚝 서 있는 은행나무이다. 주변에 크고 작은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있지만 이 집을 대표하는 나무는 단연 대문 앞에 우뚝 서 있는 이 은행나무이다. 전승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윤선도의 4대 조부인 어초은이 그의 아들이 과거에 급제한 것을 기념하며 심은 것이다. 은행나무는 처음에 아들 4형제처럼 마을 동산에 4그루를 심었는데 지금은 2그루만 남았다. 해남 윤씨 집안은 선조들이 대를 이어 집 주위에 나무를 많이 심었다. 녹우당에는 은행나무 이외에도 몇 수종이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다. 3백 살을 넘긴 곰솔(해송)과 나이가 비슷한 회화나무가 그것이다. 한편 뒷산 9만 여 평에 이르는 '해남연동리 비자나무숲'은 천연기념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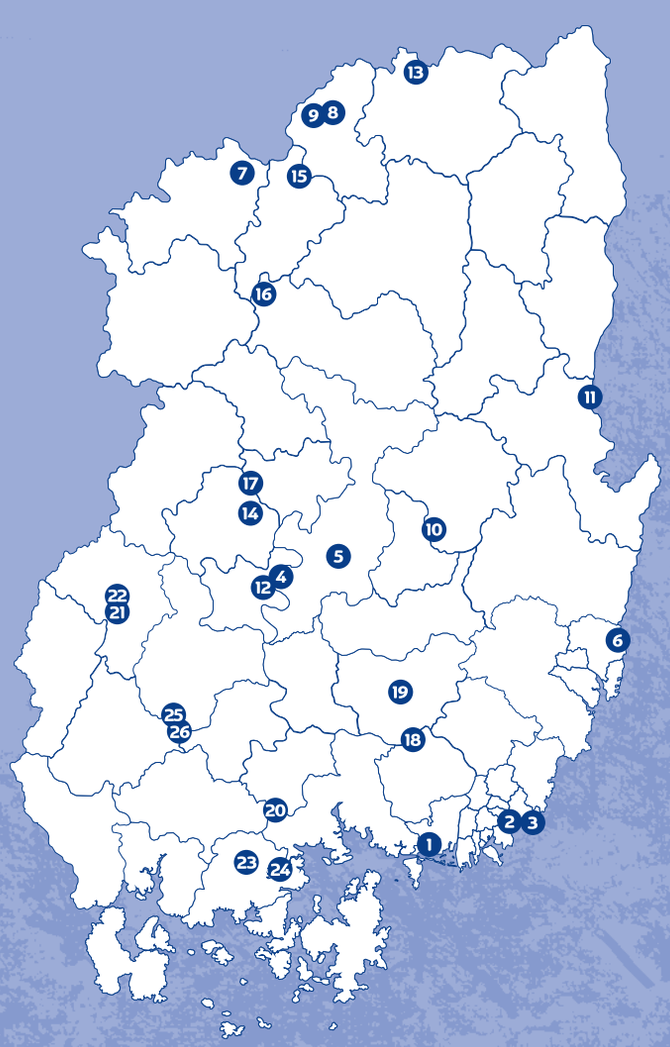
Chapter 5

경상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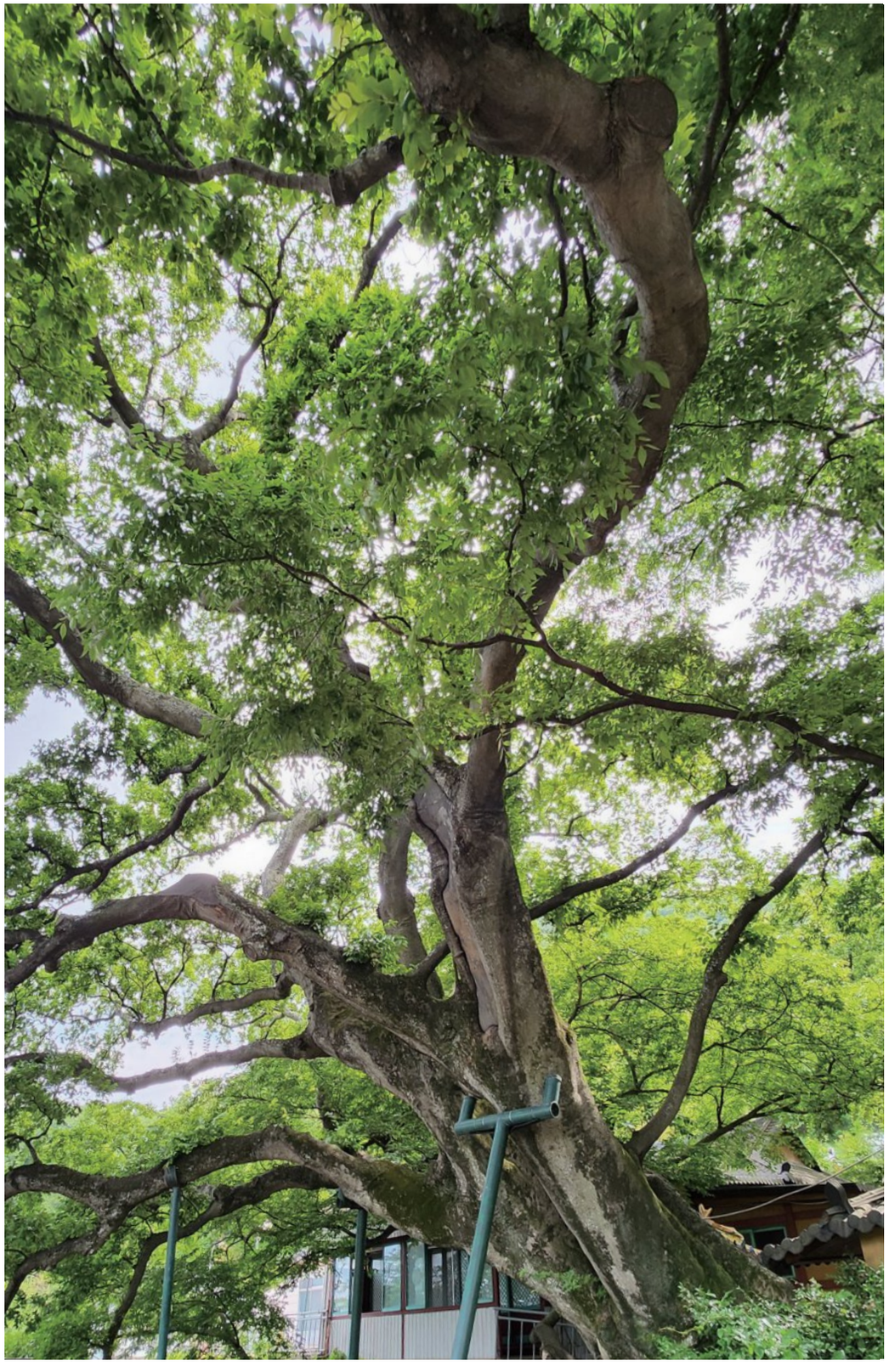
경상도

이야기가
있는
보호수 2

경상지역의 수종별 보호수 찾기



1	당산이 서낭당으로 변한 할배나무의 **팽나무**	부산시 강서구 녹산동 730	p. 178
2	가덕도에서 육지로 옮겨온 **팽나무**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494	p. 180
3	고기잡이 나간 남편을 기다리던 곳의 **곰솔**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594-1	p. 182
4	대홍수 때 사람을 묶었던 **굴참나무**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비슬로 1788-1	p. 184
5	일부러 불을 붙였으나 타지 않은 **느티나무**	대구시 수성구 수성1가동 642	p. 186
6	울산시의 최고령 나무로 등재한 **소나무**	울산시 북구 정자동 산 20	p. 188
7	구불구불 가지가 춤추는 모양의 **소나무**	경북 문경시 동로면 적성리 965	p. 190
8	한곳 3그루 모두 보호수로 지정한 **느티나무**	경북 영주시 순흥면 배점리 184	p. 192
9	효험의 약초 위치를 알려준 **소나무**	경북 영주시 풍기읍 삼가리 617	p. 194
10	나쁜 기운 물리치는 구렁이 사는 **왕버들**	경북 영천시 대창면 대창리 1076-153	p. 196
11	가지 자른 자에게 벌을 내린 **느티나무**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방석리 218	p. 198
12	사랑하는 처녀 총각이 심은 **왕버들**	경북 고령군 성산면 어곡리 410	p. 200
13	일본 순사들도 베지 못한 신목의 **느티나무**	경북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산 237	p. 202
14	귀가 달린 황구렁이가 사는 **왕버들**	경북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125	p. 204
15	느티나무 고목과 함께 자라는 **음나무**	경북 예천군 은풍면 은산리 184-1	p. 206
16	예전에 경북 대표 보호수였던 **회화나무**	경북 의성군 다인면 평림리 543-4	p. 208
17	잎으로 아들과 딸을 점지하는 **은행나무**	경북 칠곡군 기산면 각산3길 113	p. 210
18	마을형성 초기에 입촌 기념으로 심은 **팽나무**	경남 김해시 한림면 금곡리 581-3	p. 212
19	별서(별장)를 지은 기념으로 심은 **은행나무**	경남 밀양시 활성동 582-1	p. 214
20	타고 다닐 호랑이가 머무는 **소나무**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여양리 산 38	p. 216
21	풍수역할 동호숲 끝에 있는 **느티나무**	경남 거창군 웅양면 동호1길 171-1	p. 218
22	나무를 자르려던 톱자국이 있는 **느티나무**	경남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837-1	p. 220
23	젖꼭지 모양의 유주를 만든 **은행나무**	경남 고성군 대가면 척정리 1052	p. 222
24	7대손 아들을 낳게 해준 **느티나무**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곡리 566	p. 224
25	이순신 내륙 행차 때 쉼터였던 **팽나무**	경남 합천군 삼가면 두모리 442	p. 226
26	대학자 남명 조식의 유적을 지킨 **느티나무**	경남 합천군 삼가면 외토리 1374	p. 228



경상지역

팽나무

당산이 서낭당으로 변한 할배나무의 팽나무

지정번호	부산-2-12-6-1
지정년도	1982
관리기관	부산
수령	303년
수고	22m
흉고둘레	5.5m

부산시 강서구 녹산동 730
35° 06′ 38.03″ N
128° 52′ 11.03″ E

금슬이 좋은 부부나무라 부르는 보호수(부산-2-12-6-1) 팽나무는 햇볕이 잘 드는 산양마을의 산양사 앞에 자라고 있다. 산양사 입구에는 3그루의 팽나무 고목이 자라는데, 그중 할배나무라 부르는 나무가 보호수이다. 팽나무의 나이는 303년으로 추정된다. 나무 높이는 22m, 가슴높이둘레는 550cm 정도이다. 원줄기는 밑동에서 크고 굵게 갈라진 후 다시 큰 가지 줄기를 내어 퍼져 있다. 군데군데에 충전재 처리의 외과수술 흔적이 있다. 생육상태는 양호하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당산나무(당산목)와 관련이 있다. 봉화산 아래의 산양마을 사람들은 마을에 있는 3그루의 커다란 팽나무 중에 2그루를 신성한 나무로 여기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이 팽나무를 각각 할배나무, 할매나무라 부르고 있다. 하늘을 향해 넓게 가지를 뻗은 채 자라는 나무가 할배나무이고,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 자라는 나무가 바로 할매나무이다. 할배나무는 남근男根의 모양을 하고 있고, 할매나무는 여근女根의 형태를 하고 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2그루의 나무를 하늘이 맺어 준 부부라고 말한다. 그 옆에는 또 하나의 다른 그루가 있다. 할배나무 아래에는 마을을 수호하는 서낭신을 모셔 놓은 '서낭당'이 있다. 40~50년 전까지는 이 마을에 서낭당이 아닌 '당산'이 있었는데, 당산을 없앤 이후 기이하게도 마을의 젊은이 여럿이 죽는 등 안 좋은 일이 일어나서 서낭당을 만들었다. 그 이후에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동티(나무나 돌 등을 잘못 건드려 땅의 신을 화나게 해 재앙을 받는 일)가 염려되어 팽나무의 죽은 가지도 함부로 손대지 않는다. 나무를 가지치기 할 때에도 스님께 염불을 부탁드려 두 나무가 노하지 않도록 조심한다. 또한 이 나무로 불을 때면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몸에 이상이 생긴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정월 대보름에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당산제를 팽나무 아래에서 지내고 있다. 팽나무는 산양마을의 수호목 또는 당산나무(당산목) 역할을 하고 있으며, 소원성취를 비는 나무이다. 때로는 넓고 탁 트인 휴식처를 제공한다.



경상지역

팽나무

가덕도에서 육지로 옮겨온 팽나무

지정번호	부산-2-9-5
지정년도	2012
관리기관	부산
수령	500년
수고	13m
흉고둘레	2.9m, 2.2m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494
35° 10′ 01.55″ N
129° 07′ 41.12″ E

부산의 나루공원은 정보통신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센텀시티가 조성되면서 주상복합 용도와 더불어 탄생한 공원이다. 나루공원의 명물은 해운대로 들어가는 관문인 수영교를 건너자마자 입구에 서 있는 2그루의 노거수 팽나무이다. 나무나이가 500년이 된 할아버지 팽나무(할배나무)와 300여 년이 된 할머니 팽나무(할매나무)이다. 할아버지 팽나무의 나무높이는 13m, 가슴높이둘레는 갈라진 줄기 2개가 각각 290cm와 220cm 정도이다. 할머니 팽나무의 나무높이는 15m, 가슴높이둘레는 310cm 정도이다. 할아버지 팽나무는 높이 50cm 정도에서 원줄기가 2갈래로 크게 갈라졌으며, 생육상태가 불량한 편이다. 할머니 팽나무는 높이 3m 정도에서 원줄기가 3갈래로 갈라졌으며, 생육상태가 양호하다. 이 팽나무는 본래 이 자리에 있지 않았다. 부산의 서쪽 끝자락 섬 가덕도에 있던 노거수였다. 그동안 율리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해왔던 당산목이었다. 신항만 컨테이너 배후부지 조성 및 가덕도 일주도로 개설 예정지에 있던 이들 팽나무는 원래 위치에서 보존하려고 일주도로 노선 일부를 변경하는 등 노력했지만 여의치 않아 잘려 나갈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자 부산시가 이것을 거액의 경비를 들여 동쪽 끝 해운대 APEC 나루공원으로 옮겨 심은 것이다. 이 팽나무들은 2척의 바지선으로 해상 운반되었다. 바지선에 실린 팽나무는 60여km를 뱃길로 이동한 뒤 해운대 우동항에 도착하였다. 이어 트레일러로 1km 떨어진 나루공원으로 운반하여 신속하게 식재하였다. 그루당 평균 밑동 지름 1.5m, 높이 20m, 무게 70t에 달하는 거대한 팽나무들을 옮겨 심는 과정은 수목 전문가 및 공사 관계자 등 50여명과 바지선, 대형 트레일러, 굴착기, 크레인 등이 동원돼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였다. 나루공원까지는 차량 통행이 뜸한 깜깜한 새벽에 왕복 8차선 도로를 통제한 채 육교와 전신주를 아슬아슬하게 피해갔다. 팽나무 2그루는 2010년 3월 30일 나루공원으로 이사를 하였고, 나루공원에 뿌리를 내린 후 2012년 7월 17일 부산시 보호수로 지정되었다. 한편, 팽나무 2그루는 현재 고층빌딩이 즐비한 센텀시티를 배경으로 서 있어 매우 이국적인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경상지역

곰솔

고기잡이 나간 남편을 기다리던 곳의 곰솔

지정번호	부산-2-9-1
지정년도	1980
관리기관	부산
수령	310년
수고	14m, 10m
흉고둘레	3.2m, 2.7m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594-1
35° 09′ 37.77″ N
129° 11′ 27.95″ E

당산나무(당산목)이면서 '망부송'으로 부르는 보호수(부산-2-9-1) 곰솔(해송)은 청사포 해안도로에서 경로당으로 향하는 곳의 길목 언덕배기에 자라고 있다. 표지판 및 여러 자료는 소나무로 기록하고 있으나 실제 자라는 것은 곰솔이다. 곰솔의 나이는 310년으로 추정된다. 2그루 중 하나의 나무높이는 14m, 가슴높이둘레 320cm 정도이다. 다른 하나는 나무높이가 10m, 가슴높이둘레가 270cm 정도이다. 원줄기는 높이 4m 정도에서 2갈래로 크게 갈라진 후 다시 가지 줄기를 내어 옆으로 넓게 퍼져 있다. 바닷가와 가까운 곳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자라고 있다. 생육상태는 양호하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망부송'과 관련이 있다. 옛날에 청사포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고기잡이가 생업이었다. 남자들이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간 후 마을에 남은 아낙네와 가족들은 이들을 걱정하면서 마을 어귀에 있는 바위 위에 걸터앉아 남자들을 기다렸다. 그 당시 같은 동네에 살다가 혼인한 정씨와 임씨 부부는 남달리 금실이 좋았다. 평생을 어업으로 생활하는 이들 부부는 남편이 고기를 잡으러 가면 부인은 바위 위에 앉아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집으로 돌아오곤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고기잡이 나간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기다리다 지친 어부의 부인이 곰솔 두 그루를 심고 그 나무에 의지하여 바다를 바라보았으나 수년을 기다려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았다. 어느 날 바닷물을 가르고 푸른 구렁이(용왕)가 부인 앞에 나타나 물길을 인도하여 남편과 상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남편은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다. 또 다른 이야기도 비슷하다. 정씨 부인이 바위 위에 앉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다리다가 더 멀리 먼바다를 보기 위하여 곰솔 위에 올라가서 수평선을 바라보며 끝내 돌아오지 않는 지아비를 기다리다 지쳐 죽었다. 그래서 앉아 기다렸던 바위를 '망부석'이라 하며, 올라가 바라보던 곰솔을 '망부송'이라 부른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이곳에 사당을 지어 외롭게 죽어 간 부부의 혼을 위로하였고, 이 곰솔을 어촌의 수호신으로 모시고 해마다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기 위하여 봄과 가을에 제사를 지내고 있다.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나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이 소나무에 정성을 다하여 기도를 드리고 있다.

대홍수 때 사람을 묶었던 굴참나무

지정번호 대구-8-12
지정년도 1982
관리기관 대구
수령 310년
수고 23m
흉고둘레 4m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비슬로 1788-1
35° 46′ 26.28″ N
128° 25′ 17.88″ E



하천이 인접한 곳에서 노거수로 있는 보호수(대구-8-12) 굴참나무는 금포시장 건물 사이의 빈터에 자라고 있다. 굴참나무의 나이는 310년으로 추정된다. 나무높이는 23m, 가슴높이둘레는 400cm, 밑동둘레는 410cm 가량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17m 정도이다. 원줄기는 높이 2.5m 정도에서 굵은 가지가 몇 갈래로 갈라져 있으며, 썩은 위쪽 가지가 크게 절단된 후에 새로운 가지가 나와 높이 자라고 있다. 현재 한쪽 원줄기가 충전재 처리로 외과수술을 하였으며, 나뭇잎이 병들어 있는 상태이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대홍수의 피난과 관련이 있다. 굴참나무는 배씨성을 가진 한 주민이 심었다. 배씨는 아주 오래 전에 장마철이 되면 종종 마을에 대홍수가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그러나 현재 살아남아 있는 것은 이 굴참나무 한 그루뿐이다. 굴참나무는 심은 목적에 맞게 홍수방지 역할을 충분히 하였는데, 100여 년 전 마을에 대홍수가 났다. 마을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어느 어르신이 굴참나무에 밧줄을 매달고 사람을 묶기 시작하였다. 그 덕분에 여러 사람이 큰물에 떠내려가지 않고 피신할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주민을 구해준 굴참나무를 마을의 당산목으로 신성하게 여겨 정월대보름에 너럭바위 위에 제물을 놓고 제사를 지내기도 하였다. 그리고 굴참나무가 있는 쉼터에는 너럭바위의 선사시대 고인돌 상석(덮개돌)이 있는데, 상석은 제를 지내기 위하여 가져다 놓은 것으로 추정된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바위가 온전하였으나 나무뿌리가 자라면서 깨졌다고 말하고 있다. 주민이 시멘트로 상석을 접합하기도 하였으나 깨진 돌의 간격은 더 벌어지고 있어 파손될 위험이 있다. 한때 굴참나무 아래에 있는 상석에 성혈(性穴)로 보이는 알 구멍 수십 개가 발견되어 학계의 관심을 끌기도 하였다. 민속에서 알 구멍, 알 바위, 알 뫼 등으로 불리는 성혈은 일반적으로 다산을 기원하는 주술적 의미와 별자리 등을 상징한다.



경상지역

느티나무

일부러 불을 붙였으나 타지 않은 느티나무

지정번호	대구-6-2
지정년도	1982
관리기관	대구
수령	360년
수고	17m
흉고둘레	5.5m

대구시 수성구
수성1가동 642
35° 46′ 26.28″ N
128° 25′ 17.88″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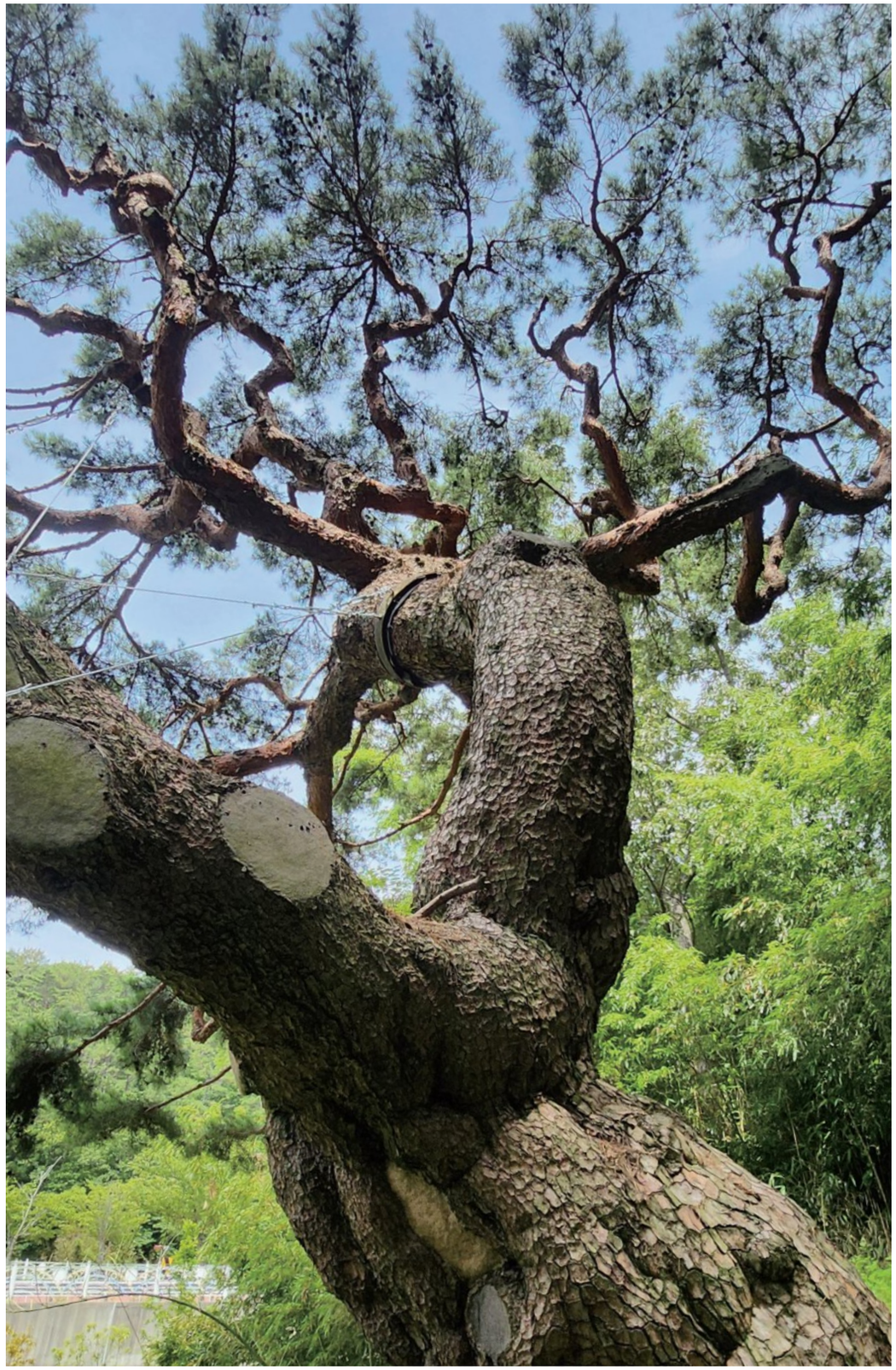
도심의 아파트 담장 사이에 있는 보호수(대구-6-2) 느티나무는 3그루가 각각 3~5m의 간격을 두고 나란히 자라고 있다. 느티나무의 나이는 360년으로 추정된다. 3그루 보호수 중 가장 큰 것의 나무높이는 17m, 가슴높이둘레는 550cm, 밑동둘레는 650cm 정도이다. 나무갓은 3그루 전체가 너비 40m 정도를 펼치고 있다. 느티나무는 썩은 부분을 충전재로 채우는 등의 외과수술이 되어 있고, 가지가 말라 죽어 베어낸 부분이 눈에 띈다. 생육상태는 양호한 편이지만 3그루 중 가장 작은 가운데 것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 지표면에 맥문동 등의 지피식물을 심어 보기 좋게 관리하고 있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영험 서린 느티나무라고 알려진 것이다. 일제강점기 대구에 있던 일본군 보병 80연대 병력 일부가 이 느티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을 때였다. 일본군은 느티나무를 발길로 차기도 하고, 나뭇가지를 꺾거나 대검으로 껍질을 찔러 벗기는 행패를 부렸다. 이를 본 한 노인이 이 느티나무는 동네의 수호신이니 나무 아래에서 무례한 행동을 하지 말고 조용히 쉬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군인들은 어르신(노인)의 말을 미신으로 여기고 느티나무가 신목인지 아닌지 시험하여 보겠다며 나무 주위에 보리 짚단을 쌓아 불을 지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주민들은 일본군이 총칼을 갖고 있어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때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도 보리 짚단에 붙은 불이 다른 나무에 옮겨 붙지도 않고 꺼졌다. 일본군이 또 다시 짚단에 불을 붙이자 맑았던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갑자기 비가 내리고 벼락이 내려왔다. 일본군은 벼락을 맞고 연기를 마시면서 그 자리에서 쓰러지더니 거품을 토하며 숨이 끊어져 버렸다. 그 후로 동네 사람들은 어린이들은 물론 누구나 이 느티나무를 발로 차거나 가지를 꺾으려고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며 나무를 해하지 못하게 하였다. 느티나무는 오랫동안 마을을 보호하는 수호목인 동시에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신성한 당산목으로 모셔져 왔다. 매년 정월대보름이 되면 동민의 복을 비는 동제를 나무 앞에서 지내고 있다.

울산시의 최고령 나무로 등재한 소나무

지정번호 울산–12–29
지정년도 1982
관리기관 울산
수령 610년
수고 12m
흉고둘레 4.5m

울산시 북구 정자동 산 20
35° 36′ 52.69″ N
129° 26′ 36.86″ E

어느 해에 울산시에서 천연기념물로 신청하였던 보호수(울산–12–29) 소나무는 죽전마을(대밭골마을)의 유포석보柳浦石堡 산성 터가 있는 서쪽의 비탈면에 자라고 있다. 유포석보는 울산시 정자동에 있는 조선시대의 성이며, 1998년 울산기념물 제17호로 지정되었다. 소나무의 나이는 610년으로 추정된다. 나무높이는 12m, 가슴높이둘레는 450cm 정도이다. 밑동둘레는 460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21m 가량이다. 원줄기는 밑동 부분이 울퉁불퉁하게 혹처럼 생긴 것이 힘차게 보인다. 밑동 위쪽은 높이 3m 정도에서 3갈래로 갈라진 후 높이 7m 정도에서 다시 가지 줄기가 구불구불하게 갈라져 있다. 높이 3~7m까지의 원줄기는 말라 죽는 몇 개의 가지 줄기가 절단되어 보호를 받고 있다. 동산의 비탈면에서 비스듬하게 처져 있는 줄기는 철재 받침대가 고정하고 있다. 생육상태는 보통이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이름 유래와 관련이 있다. 대나무가 많은 죽전마을은 예조판서 김비金秘가 조선 태종 때 여흥민씨 집안의 모반(국가나 군주의 전복을 꾀함)을 피하여 울산으로 내려오면서 시작되었다. 소나무는 그 당시에 김비가 심었으며, 지금도 소나무 옆과 뒤쪽에 왕대나무가 군락으로 자라고 있다. 소나무는 오랫동안 세전송世傳松으로 부르다가 1982년 보호수로 지정하면서 활만송活萬松으로 바꿔 부르고 있다. 활만송의 이름은 울산 김씨 집안에서 지었으며, '활기차게 만년을 살라'는 의미이다. 그들의 후손들은 활만송을 마을의 안녕과 가문의 번영을 기원하는 당산나무(당산목)로 삼았고, 매년 정월대보름과 팔월대보름에 정성껏 제를 지내왔지만 몇 년 전부터 제를 지내지 않고 있다. 현재는 제당마저 없어졌다. 방문객과 제를 지내는 사람들이 동산 위를 오르는 돌계단이 잘 마련되어 있을 뿐이다. 활만송은 2004년 '울산 기네스북'에 울산시의 최고령 나무로 등재하였다. 2010년 무렵에는 새로운 도로 계획이 이 소나무 바로 옆을 지나도록 설계되면서 뿌리가 고사할 위험에 처하기도 하였으나 여러 시민단체의 노선변경 요구로 넓은 도로가 약간 벗어나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경상지역

소나무

구불구불 가지가 춤추는 모양의 소나무

지정번호	문경-11-26-7-1
지정년도	1982
관리기관	문경
수령	310년
수고	10m
흉고둘레	2.7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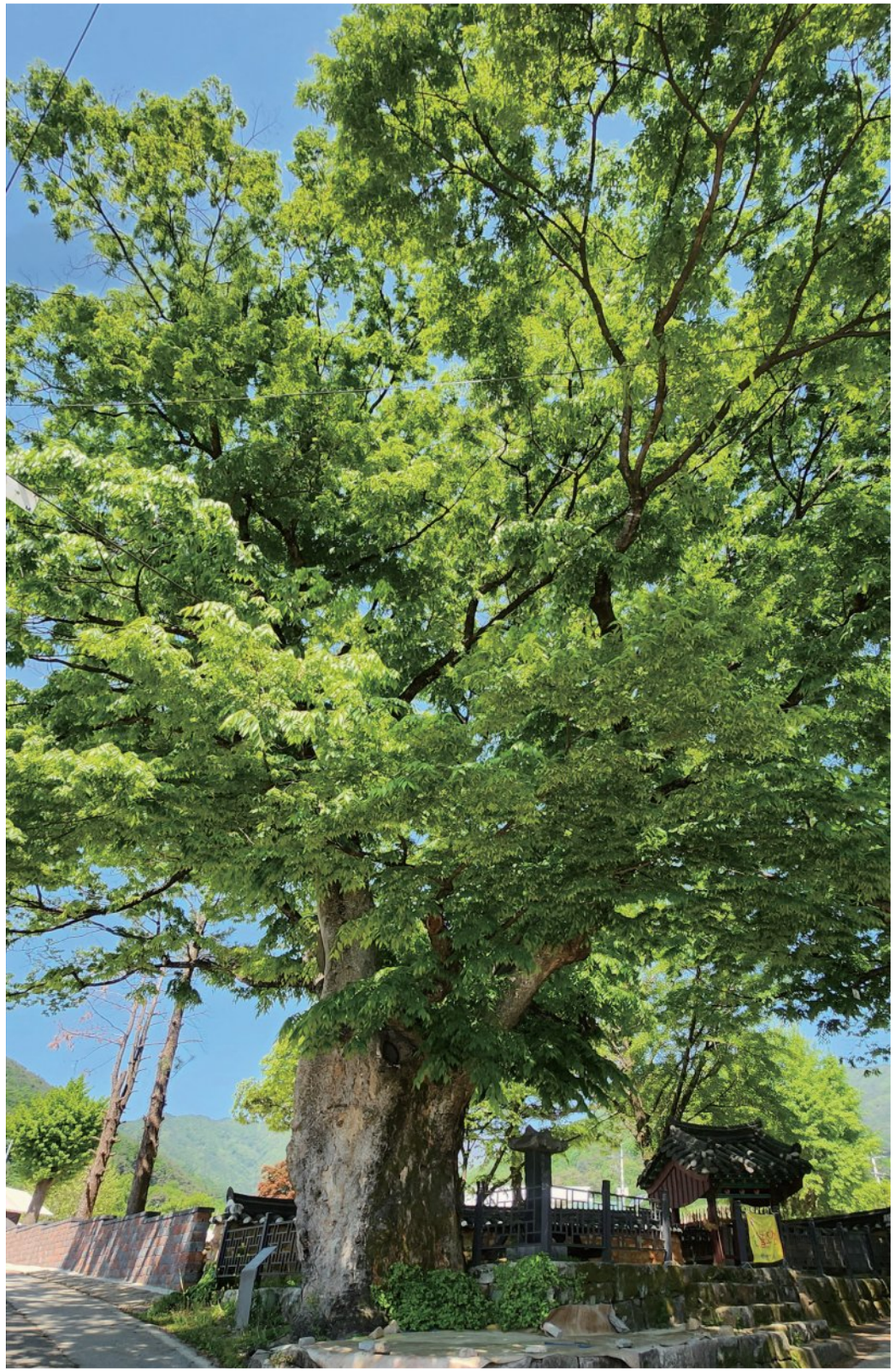
경북 문경시 동로면 적성리 965
36°46′34.29″N
128°17′21.11″E

말 무덤(마총)과 노비 무덤(노총)을 지키는 보호수(문경-11-26-7-1) 소나무는 황장산 자락의 도로변에서 살아가고 있다. 소나무 가지가 구불구불 춤추는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하여 무송舞松이라 이름이 지어졌으며, 무송이 있는 곳을 무송대舞松臺라 하였다. 무송 소나무(반송)는 나무나이가 310년이라 하며, 연주패옥 전설의 임진왜란을 떠올려 보면 나무나이가 400년으로 추정될 만 하다. 일부 자료에는 나무나이를 600여 년으로 기록하기도 하였다. 나무높이는 10m, 가슴높이둘레는 270cm, 밑동둘레는 280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14m 가량이다. 소나무는 커다란 바위위에 뿌리를 내린 것으로 추정되며, 굵은 가지에서 뻗어 나온 붉은 나뭇가지가 용수철처럼 몇 번이나 굽어진 모습이다. 말 무덤(마총)과 노비 무덤(노총)과 춤추는 소나무(무송)가 전승하는 이야기의 중심이다. 무송대의 거대한 바위 위에 말 무덤과 노비 무덤이 춤추는 소나무와 함께 삼각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말 무덤 앞에는 마총이라는 작은 비석과 노비 무덤 앞에는 노총이라는 작은 비석이 세워져 있다. 소나무 앞에는 무송대라는 작은 비석이 세워져 있다. 또한 이곳 무송대는 풍수지리설 연주패옥聯珠佩玉 (벼슬할 사람이 많이 태어난다는 명당)형세와 관련한 전설이 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 벽제관 전투의 패전으로 참수를 당하게 될 두사충(명나라 풍수지리학자이며 조선 사람으로 살았음)이 정탁 대감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 두사충은 그 은혜의 보답으로 대감의 신후지지(살아있을 때미리 잡아둔 묏자리)를 잡아주기로 하였다. 두사충은 문경시 동로면 소나무(반송)가 있는 근처에서 연주패옥혈을 발견하고, 그 정확한 지점을 대감의 하인에게만 알려주었다. 그곳은 소나무가 있는 곳에서 100보 안쪽이라 하였다. 그 후 대감은 아들과 함께 두사충이 정해준 묘 자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성리로 갔다. 잠시 소나무 아래에서 쉬면서 하인에게 아직도 멀었냐고 물었다. 그러자 하인은 손으로 갈전동쪽을 가리키며 여기서부터 100보 이내라고 대답하려는 순간 갑자기 말의 뒷발질에 크게 다쳐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화가 난 대감은 말을 죽여 소나무 밑에 묻고 나서 나의 터를 찾을 길이 없구나라며 탄식하고 돌아갔다. 그래서 유명한 연주패옥 명당 위치는 아직도 오리무중에 싸여있다.

한곳 3그루 모두 보호수로 지정한 느티나무

지정번호 영주-11-28-8
지정년도 1982
관리기관 영주
수령 400년
수고 20m
흉고둘레 6m

경북 영주시 순흥면
배점리 184
36°55′56.83″N
128°33′20.96″E



마을의 정자목인 보호수(영주-11-28-8) 느티나무는 3그루가 마을 어귀의 낮은 동산에 삼각형의 꼭짓점을 이루는 자리에 서 있다. 위치하는 곳은 동산이라기보다 시골 마을의 좁은 골목의 갈림길이라는 표현이 더 좋을 것 같다. 느티나무 3그루는 모두 각각의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다. 이곳의 정자는 느티나무 3그루가 이룬 정자라는 뜻에서 '삼괴정三槐亭'이라 부른다. 석 삼三과 느티나무 괴槐 자를 쓰는 삼괴정은 우리나라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 이름이다. 느티나무의 나이는 400년으로 추정된다. 나무높이는 20m, 가슴높이둘레는 600cm, 밑동둘레는 605cm 정도이다. 원줄기는 10m 높이에서 가지가 3갈래로 갈라져 있다. 원줄기 밑쪽은 외과치료를 하고 충전재로 채우거나 바른 부분이 있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여러 편이지만 보신하는 뱀과 관련한 것이 일반적이다. 2010년 영주시 사편찬위원회에서 간행한 영주시사(2)에 삼괴정의 구렁이가 수록되어 있다. 제보자의 이름도 있다. 어느 날 군인들이 한 느티나무에서 다른 느티나무로 건너가는 구렁이에게 총을 쏘았다. 그때 한 마리는 떨어져 죽었고, 다른 한 마리는 어디로 도망쳐 갔다. 동에 어느 주민(제보자)의 아버지는 당시에 몸이 아픈 상태였기 때문에 죽은 구렁이를 먹고 기운을 차리려고 하였다. 그래서 죽은 구렁이를 고아 먹었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는지 결국 돌아갔다. 영물의 구렁이를 먹었으나 약이 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옛날에는 비 오는 날의 예보처럼 비가 오려고 하면 어디선가 구렁이가 출몰하였다. 구렁이 한 쌍이 우우하고 소리를 내며 울면 정말로 이튿날 비가 내렸다. 이곳의 내력을 듣기 위하여 마을 주민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처음으로 들려주는 이야기가 이황 선생이 직접 심었다는 것이었다.

효험의 약초 위치를 알려준 소나무

지정번호 영주-10-6-1
지정년도 2010
관리기관 영주
수령 710년
수고 12m
흉고둘레 3.4m

경북 영주시 풍기읍
삼가리 617
36°55′26.09″N
128°30′02.32″E

마을의 뒷산으로 약간 벗어나려는 곳에 있는 보호수(영주-10-6-1) 소나무는 소백산 남동쪽의 금선계곡을 따라 흐르는 개울가 언덕 위에 자라고 있다. 소나무의 나이는 710년으로 추정된다. 나무높이는 12m, 가슴높이둘레는 340m, 밑동둘레는 357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17m 가량이다. 원줄기는 높이 3.5m 정도에서 3갈래로 갈라진 후 다시 작은 가지로 갈라져 사방으로 고르게 퍼져 있다. 위쪽 가지는 구불구불하게 구부러져 마을길 쪽으로 비스듬하게 펼친 모양을 하고 있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소녀의 효심과 관련이 있다. 옛날에 어머니와 딸이 살고 있었다. 소녀는 어머니가 병에 걸려 아팠을 때 정성껏 어머니를 간호하였고 이름난 의원을 찾아다녔으나 좀처럼 낫지 않았다. 그러자 소녀는 새벽마다 정화수를 떠 놓고 소백산을 바라보며 어머니의 병이 낫기를 빌었다. 어느 날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 손에 든 약초를 보여주며 고목의 나무 아래에 있는 이 약초를 찾아 달여 드리라고 했다. 꿈에서 깨어난 소녀는 노인의 말을 굳게 믿고 약초를 찾기 위하여 산길을 올랐다. 소녀는 산길을 한참 오르다 지쳐큰 나무 밑에서 쉬고 있을 때 그 발아래에 그토록 헤매며 찾았던 약초가 있는 것을 보았다. 소녀는 그 자리에 절을 올리고, 고개를 들었는데, 머리 위에는 구름처럼 가지를 넓게 펼친 소나무가 있었다. 소녀는 소나무 밑에 자라는 약초를 캐서 어머니에게 드려 병을 낫게 하였다. 어머니는 딸이 캐어다가 달인 약을 먹고 병이 말끔히 나았다. 얼마 후 소녀는 어머니의 병을 고쳐준 약초를 캤던 자리가 궁금하여 다시 소백산에 올랐다. 밤이 되자 소녀는 길을 잃었다. 산길을 헤매던 소녀는 아침이 되자 문득 가지를 넓게 펼친 소나무가 생각났다. 그 소나무를 찾기로 하고 멀리서 보이는 커다란 나무로 찾아갔다. 그 나무가 바로 이곳 삼가리의 정안골, 당골 소나무였다.





경상지역

왕버들

나쁜 기운 물리치는 구렁이 사는 왕버들

지정번호	영천-11-20-13
지정년도	1982
관리기관	영천
수령	310년
수고	15m
흉고둘레	6m

경북 영천시 대창면
대창리 1076-153
35° 53′ 04.27″ N
128° 53′ 30.49″ E

신령한 나무로 여기는 보호수(영천-11-20-13) 왕버들은 작물을 가꾸는 밭과 과수원(복숭아) 주변의 길가에 자라고 있다. 왕버들의 나이는 310년으로 추정된다. 나무높이는 15m, 가슴높이둘레는 600cm, 밑동둘레는 845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16m 가량이다. 원줄기는 높이 3.5m 정도에서 몇 갈래로 갈라졌으며, 다시 여러 갈래의 가지 줄기를 내어 나무모양을 만들고 있다. 줄기 밑동의 나무껍질은 나사모양으로 돌아가는 모양이며, 높이 3.5m 정도까지 충전재(폴리우레탄 수지) 처리의 외과수술 흔적이 있다. 생육상태는 양호하다. 주변은 넓은 공터이고 정자가 있으며, 긴 의자가 놓여 있다. 지방도로 경계로 개울의 물도랑이 인접하고 있다. 또한 보호수라는 글자만이 아니라 '산림유전자원 보호수'라는 표지판이 이채롭고, 무속 행위 금지의 경고판도 세워져 있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뱀과 관련이 있다. 오래 살고 있는 고목의 왕버들은 물가에 자라면서 줄기가 잘 썩기 때문에 커다란 동공(구멍이 뚫려 있는 빈 공간)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왕버들의 구멍은 예로부터 도깨비 이야기를 비롯하여 구렁이, 이무기가 살고 있는 전설을 만들어내었다. 마을 주민들은 나무 줄기 또는 줄기의 빈 공간에 큰 구렁이가 살고 있다고 믿었다. 구렁이는 자주 출몰하지 않고, 1년에 두 번 정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모습을 드러내었다. 마을 주민들은 이 구렁이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물리쳐서 마을을 지켜주고 있다고 믿고 있다. 또한 마을 사람들은 거의 10년마다 잊을만하면 황새가 날아와 이 왕버들에 집을 짓고 4~5년 동안 서식하는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왕버들은 마을에서 해마다 정월 대보름이면 동제洞祭를 지내는 당산나무(당산목)이며, 신목이다. 한편, 왕버들은 한자로 귀신이 사는 버들이란 뜻의 '귀류鬼柳'이며, 개울 옆에 잘 자란다고 하여 '하류河柳'라 부르기도 한다.



경상지역

느티나무

가지 자른 자에게 벌을 내린 느티나무

지정번호	포항-11-15-2
지정년도	1982
관리기관	포항
수령	660년
수고	20m
흉고둘레	6.4m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방석리 218
36° 13′ 43.97″ N
129° 22′ 10.52″ E

정자나무(정자목)이면서 당산나무(당산목)인 보호수(포항-11-15-2) 느티나무는 마을 앞의 구불구불한 좁은 길과 들판처럼 보이는 공터 사이에 자라고 있다. 느티나무의 나이는 660년으로 추정된다. 나무높이는 20m, 가슴높이둘레는 640cm, 밑동둘레는 650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18m 가량이다. 원줄기는 높이 3.5m 정도에서 4갈래로 갈라졌으며, 그중 한 가지가 남서쪽으로 길게 뻗어자라고 있다. 생육상태는 양호하다. 주변은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으며, 의자가 놓여 있다. 일제강점기에 이 고을의 어떤 사람이 이 느티나무의 아래쪽 굵은 가지를 잘라 장롱을 만들었다. 그는 그때부터 알 수 없는 병을 얻었는데, 좀처럼 호전되지 않았다. 애타는 마음에 그의 어머니가 점술가를 찾아갔다. 어머니는 점술가로부터 신령스런 나무를 훼손하여 방에 들여놓은 탓이라는 말을 들었다. 깜짝 놀란 가족은 그 장롱을 불태우고 타고 남은 재를 챙겨서 느티나무를 찾아가 참회의 술을 올리며 빌었다. 그랬더니 얼마 후 신통하게도 병이 나았다. 이 느티나무가 죽을 고비를 넘긴 일화도 전한다. 1990년대 초에 서서히 죽어가던 느티나무를 살리려고 관리 당국의 대대적인 보호조치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흙 쌓기를 너무 많이 하여 나무의 숨 쉴 구멍을 막아 버렸던 것이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포항시 노거수회가 나서서 흙을 거두어내고 느티나무에 영양제를 주사하였다. 그리고 노거수회는 포항시와 뜻을 모아 보호 울타리를 세우고, 이 느티나무의 부양비扶養費를 담당하는 자매결연까지 주선하였다. 그리하여 느티나무와 제철 관련 회사가 결연을 맺게 되었다. 느티나무 아래 결연비結緣碑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칠백 년에 이르도록 이 자리 지켜선 느티나무여. 그대 푸른 그늘에 안길 때면 푸른 꿈, 푸른 가슴 서로 얽혀서 만년을 가도 시들지 않는 아름다운 인연 맺으려 하노라" 마을 사람들은 이 가지의 잎이 남쪽으로 먼저 나오면 흉년이 되거나 홍수가 나고, 북쪽으로 먼저 나오면 풍년이 들고 경사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믿고 있다. 이 마을에서는 정월 대보름에 도리산에서 산신제를 지낸 뒤 동제사를 지내는데, 동제사 때 느티나무 둥치에 금줄을 치고, 이 나무 아래의 샘물을 길어 제사용으로 쓰고 있다.

사랑하는 처녀 총각이 심은 왕버들

지정번호 고령-11-19-4-1-1
지정년도 1982
관리기관 고령
수령 194년
수고 12m
흉고둘레 4.5m

경북 고령군 성산면
어곡리 410
35° 44′ 35.00″ N
128° 21′ 46.00″ E



마을 입구의 보호수(고령-11-19-4-1-1) 왕버들은 작은 개울과 논밭 옆의 마을길 모퉁이에서 당산목으로 자라고 있다. 왕버들의 나이는 194년으로 추정된다. 나무높이는 12m, 가슴높이둘레는 450cm, 밑동둘레는 460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18m 가량이다. 왕버들은 원줄기 2m 높이에서 가지가 3갈래로 갈라져 있고, 나무껍질은 나사처럼 돌아가는 모양이다. 군데군데 외과수술 자국이 있으며, 말라 죽은 위쪽 가지가 여러 곳이 있어 생육상태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다. 왕버들 옆에는 정자와 나무의자도 있다. 예전에 왕버들 주변에는 커다란 돌무더기가 2군데 있었으나 새마을운동 시절에 모두 없어졌다. 그런데 눈길을 끄는 것은 왕버들과 정자 사이에 서 있는 2개의 돌기둥이다. 키가 큰 돌은 신랑, 오른쪽의 끝이 뾰족한 돌은 신부라 부른다. 신부 돌은 10여 년 전에 농기계와 부딪혀 부서져 다시 세웠다. 부서지기 전에 있던 신부 돌은 끝부분이 족두리를 쓴 모습이었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돌기둥과 청춘 남녀의 절절한 사랑이다. 옛날 이 마을에 마음씨 좋은 가난한 농부와 심보 고약한 부자가 살았다. 농부집은 잘생긴 총각이 있었고, 부잣집은 예쁜딸이 있었다. 가난이 싫은 총각은 글 읽기를 하며 열심히 공부하였고, 부잣집 딸은 글 읽는 소리가 너무도 좋게 들었다. 어느 날 둘은 만나자마자 사랑에 빠졌고, 결혼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양가의 부모는 둘의 결혼을 반대하였다. 처녀 총각은 둘만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 고향을 떠나기로 하였다. 둘은 떠나기 전에 부모에게 불효를 용서해 달라는 인사를 했다. 그리고 이곳에 왕버들을 심어 놓겠다고 했다. 처녀 총각은 왕버들이 싱싱하게 잘 자라면 금슬 좋게 잘사는 줄 알고, 이 나무가 말라 죽으면 우리도 죽은 줄 알아달라는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마을을 떠났다. 그 후 양가의 부모는 날마다 왕버들을 찾아가 보곤 하였다. 왕버들이 무럭무럭 자라면 그들이 잘사는 줄 알고, 조금이라도 시들면 걱정하며 살았다. 이러한 전설이 있는 왕버들은 마을 사람들이 정성껏 가꾸었기에 오늘날의 정자목이자 자랑스러운 당산목으로 마을의 화합을 상징하는 나무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왕버들 아래에서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동제를 지낸다.

일본 순사들도 베지 못한 신목의 느티나무

지정번호	봉화-11-1
지정년도	1982
관리기관	봉화
수령	639년
수고	27m
흉고둘레	6.1m

경북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산 237
37°00′28.29″N
128°50′02.09″E



독립운동의 상징으로 남아있는 보호수(봉화-11-1) 느티나무는 10여 명의 학생이 전부인 서벽초등학교 운동장의 가장자리에 자리하고 있다. 느티나무는 나라를 지키고 되찾는 데에 큰 역할을 한 특별한 나무이다. 느티나무 앞에는 국가보훈처의 현충 시설로 지정된 항일의거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느티나무의 나이는 639년으로 기록되고 있다. 나무높이는 27m, 가슴높이둘레는 610cm, 밑동둘레는 810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20m 정도이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항일 의거와 관련하고 있다. 서벽리는 일본의 국권 침탈에 맞서 항쟁이 치열하였다. 당시 서벽리 연합부대는 1908년 5월 봉화군 내성을 공격하러 가는 길에 고목의 느티나무 옆을 지나다가 일본군 정찰대를 발견하였다. 지금은 느티나무가 한 그루뿐이지만 당시에는 느티나무 30여 그루가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었다. 지역의 의병 부대는 잠시 느티나무 숲 속으로 몸을 피하고 일본군 정찰대를 공격하여 수십 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 당시의 느티나무 숲이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사실상 진지 역할을 한 것이다. 1919년 4월에는 서벽리의 독립운동가들이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면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제 순사에 잡혀 고초를 겪었는데, 그 장소가 느티나무 앞이었다. 일본 순사들은 울창한 숲을 이루던 느티나무 여러 그루를 밑동까지 모두 베어내었지만 보호수의 느티나무는 원줄기의 절반밖에 베어내지 못하였다. 당시 순사에 의하여 베어지고 찢겨나간 원줄기는 현재 충전재로 메우는 처치를 한 상태이다. 당시에 일본 순사들이 보호수의 느티나무를 베어내지 못한 이유는 마을의 신목神木이라 건드리는 것이 불편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신목을 잘라내면 뒤따를 민심의 동요와 반발을 두려워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시에는 성황당이 함께 있었으므로 분위기에 압도당하였을 수도 있다. 느티나무는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도 건강하게 살아남았다. 지방도로와 인접한 학교 모퉁이에 있는 보호수 느티나무는 언제나 마을을 지켜주는 신목이었고, 지역 독립운동의 상징이었다.



귀가 달린 황구렁이가 사는 왕버들

지정번호	성주-11-18-4
지정년도	2011
관리기관	성주
수령	410년
수고	16m, 17m
흉고둘레	5.9m, 3.9m

경북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125
35°55′39.42″N
128°19′32.39″E

두 그루가 숲을 이루는 보호수(성주-11-18-4) 왕버들은 한개마을 민속촌의 주차장 옆에 위치하고 있다. 한개마을은 입향조 이우로부터 시작되어 600여 년 가까이 내려온 성산 이씨 집성촌이며, 국가지정(중요문화재 제255호) 민속마을이다. 왕버들 바로 앞에는 한개라는 글자가 새겨진 커다란 표지석과 그 바로 앞에 보호수 지정 표지석이 있다. 왕버들은 두 그루 중 한 그루의 원줄기는 바로 서 있으나 밑동에서 갈라진 큰 가지가 땅바닥으로 길게 누웠다가 위로 솟구치는 모양이다. 다른 한 그루는 약간 비스듬히 위를 향하고 있다. 왕버들의 나이는 410년으로 추정된다. 두 그루 중 한 개의 나무높이는 16m, 가슴높이둘레(2줄기)는 590cm, 330cm, 밑동둘레(1줄기)는 900cm 정도이다. 다른 한 개의 나무높이는 17m, 가슴높이둘레는 390cm, 밑동둘레는 410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두 그루를 합쳐 30m 정도이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뱀과 관련하고 있다. 두그루의 왕버들에는 귀가 달린 황구렁이가 살고있다. 황구렁이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사계절 어느 때나 마을의 중요 행사 때에 종종 나타난다. 자주 출현하는 때는 동제 기간인 동짓날부터 이듬해 정월 대보름날 사이이다. 황구렁이는 이 기간에 외지에서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마을에 들어오려고 하면 왕버들에서 내려와 한개마을로 들어가려는 길을 막았다. 왕버들은 정월 대보름날에 금줄을 메고 동제를 지낸다. 이곳의 왕버들은 성주에서 유명한 성밖숲(성주읍 경산리 성주읍성 밖에 조성된 나무나이 300~500년의 59그루 왕버들 숲)의 유명세에 밀려 큰 주목을 받지 못할 수 있으나 한 가지가 드러누운 특이한 형상의 노거수로 자라고 있어 보호가치가 있다. 한편 이 왕버들이 있는 대산리는 큰 산(영취산)이 있는 마을이란 뜻이며, 대산1리의 한 개(마을)는 마을 앞에 큰 내(하천)가 있는 큰 개울, 큰 나루라는 뜻이다.

경상지역

음나무

느티나무 고목과 함께 자라는 음나무

지정번호	예천-11-27-5
지정년도	1972
관리기관	예천
수령	310년
수고	18m
흉고둘레	5.3m

경북 예천군 은풍면 은산리 184-1

36°45′59.47″N
128°27′05.63″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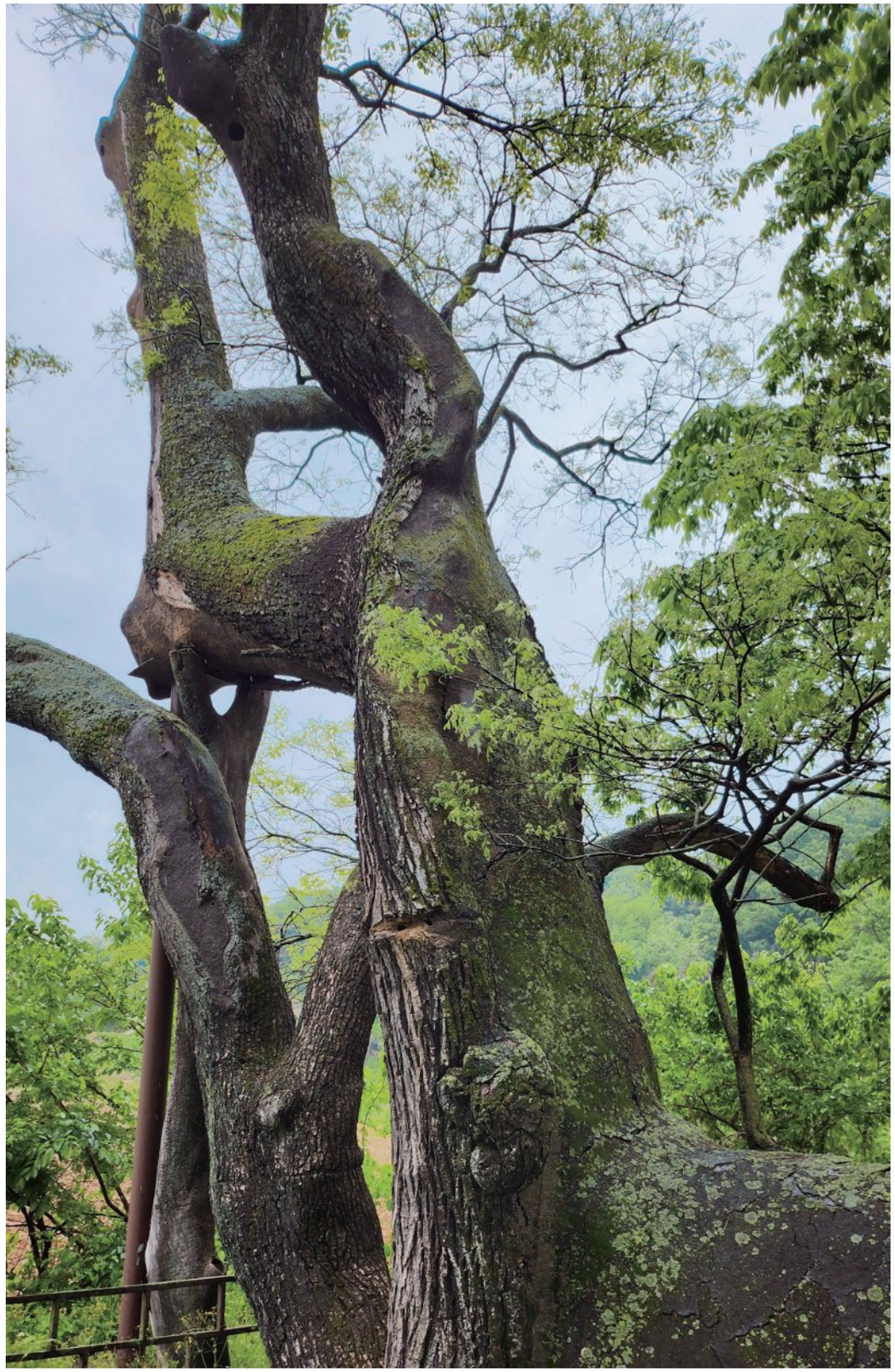


커다란 느티나무와 함께 작은 숲을 이루는 보호수(예천-11-27-5) 음나무는 도로와 밭이 접한 곳에 자라고 있다. 옆의 느티나무가 더 높고 넓게 자라고 있으며, 멀리서 보면 음나무와 느티나무가 커다란 하나의 나무처럼 보인다. 음나무의 나이는 310년으로 추정되지만 마을 사람들은 나무나이가 500년 이상이라 일컫고 있다. 나무높이는 18m, 가슴높이둘레는 530cm, 밑동둘레는 785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14m 정도이며, 옆의 느티나무와 맞닿은 가지는 옆으로 퍼지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큰 가지가 부러지는 등의 이상이 있어 외과치료를 많이 받았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풍습이나 민속과 관련한 것이 많다. 음나무는 사악함을 물리치는 벽사壁邪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시가 있는 가지를 대문이나 문설주에 얼기설기 걸어두면 나무의 날카로운 가시에 옷깃이 걸릴 것을 두려워한 잡귀나 귀신들이 집안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잡귀의 침입과 전염병으로부터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목으로 귀하게 여겼다. 또한 오월 단오 때가 되면 새끼를 꼬아 그네를 매었지만 1959년 사라호 태풍으로 그네를 매던 큰 가지가 부러진 후부터 이곳에서 그네뛰는 풍경이 사라졌다. 음나무는 바로 옆에 자라는 커다란 느티나무와 맞닿아 그늘 면적을 넓이고 있어 마을 사람들과 길손들의 시원한 쉼터이다. 그러나 이곳에서 쉬더라도 예전의 그네 뛰는 모습을 보면서 느껴지는 감정과는 사뭇 다르다고 주민들은 입을 모았다. 은산리 서사마을 주민들은 보호수 주변으로 논밭을 정리하다 보면 깨진 기왓장을 많이 볼수 있다고 했다. 이는 장터거리였던 이곳에 6·25한국전쟁 당시 수많은 포탄이 떨어져 쑥대밭이 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데도 음나무가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이 신기하다고 말했다. 음나무 아래에는 독립만세운동비와 공덕비 4기가 함께 세워져 있다. 독립만세운동비는 은산리의 마을 장터에서 벌어진 독립만세운동을 기념하는 비석이다. 그 옆에 2기의 선정비와 2기의 영세불망기가 나란히 서 있다.

예전에 경북 대표 보호수였던 회화나무

지정번호 의성-11-11
지정년도 1982
관리기관 의성
수령 760년
수고 12m
흉고둘레 3m, 1.2m

경북 의성군 다인면
평림리 543-4
36°28′08.44″N
128°21′29.16″E



시골길을 가는 곳의 보호수(의성-11-11) 회화나무는 길가를 약간 벗어난 밭 사이의 공터에서 두 그루가 힘겹게 자라고 있다. 회화나무의 나이는 760년으로 추정된다. 긴 세월의 760년은 우리나라의 모든 회화나무를 통틀어서 가장 오래된 나무 중의 하나이다. 나무높이는 12m, 가슴높이둘레는 큰 것 300cm, 작은 것 120cm 정도이다. 밑동둘레는 한쪽의 큰 줄기가 고사하였으므로 측정하지 않았으나 예전의 기록으로 보면 600cm 가량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14m 정도이다. 회화나무는 오래 살고 있는 만큼 생육상태가 좋지 않은 편이다. 나무높이는 예전에 20m 이상이었으나 현재 12m로 많이 줄었다. 나무높이가 줄어든 이유는 오래전에 마을에 불어닥친 태풍을 이겨내지 못하고 큰 줄기가 부러졌기 때문이다. 나무 높이는 가장 굵은 줄기가 꺾어져 그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고, 나무모양도 남아 있는 위쪽 가지의 말라 죽는 부분을 굵게 잘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풍성하지 않게 되었다. 부러져 죽은 나무줄기는 옛 모습에 맞추어 충전재로 채우고 겉쪽은 오래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시멘트 재질로 감싸 보호하였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풍습 및 민속과 관련하고 있다. 마을 어귀에 서 있는 이 회화나무는 마을의 상징목이자 수호목이다. 마을 사람들의 자랑이다. 회화나무의 잎이 무성하게 돋아나면 마을이 평안하고, 더 발전한다는 이야기가 전하고 있다. 또한 예전에는 경북을 대표하는 보호수의 하나로 지정하여 더 잘 보호할 수 있게 애쓰기도 하였다. 1982년 보호수로 지정된 후 공식적인 보호수 표지석이 세워졌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차지 않아 경북 보호수 기념비를 회나무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인 보호수 표지석보다 훨씬 크게 세우기도 하였다. 회화나무 인근은 은행나무와 느티나무를 줄지어 심어 작은 마을 숲을 이루고 있다. 이곳은 마을의 쉼터로 이용하는 정자의 자미정이 있다. 자미정은 마을을 병풍처럼 둘러친 비봉산의 옛 이름인 자미산에서 따온 이름이다. 한편 750년의 긴 세월을 살아온 회화나무의 인근에 또 다른 회화나무가 보호수로 자라고 있다. 평림리 회화나무가 서 있는 마을을 죽림마을로 부르는 이유는 비봉산에 머무르는 봉황의 먹이가 대나무 열매라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잎으로 아들과 딸을 점지하는 은행나무

지정번호 칠곡-11-25-5
지정년도 1999
관리기관 칠곡
수령 960년
수고 30m
흉고둘레 7m

경북 칠곡군 기산면
각산3길 113
36° 00′ 42.78″ N
128° 19′ 20.69″ E



각산리 은행나무는 칠곡이라는 지명이 역사에 처음 등장한 1018년(고려 현종 9년)에 심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보호수는 신라시대 사찰 대흥사에 위치하고 있다. 대흥사는 현재 사리탑과 절터가 남아 있다. 이 은행나무는 높이 30m, 가슴높이둘레 700cm, 수관폭 20m 정도의 큰 나무이다. 나무나이는 960년으로 추정된다. 줄기가 위로 치솟아 있으며 높이 3m 지점에서 갈라져 있다. 가지들은 잎이 많이 달려 있어 가을에 단풍이 들면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연출한다. 이 은행나무는 거대한 기둥 줄기가 한쪽으로 약간 꼬이면서 자라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줄기가 비틀리면서 위쪽으로 자라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 정상적이며 오히려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은행나무는 나뭇잎이 나오는 상태에 따라 풍년과 흉년을 점치기도 한다. 그리고 마을 사람을 보호해 주거나 아이를 갖게 하는 신기한 나무의 이야기도 전한다. 옛날에 성주에서 퉁지미 마을(각산의 옛 이름)로 시집온 새색시가 있었다. 새색시는 몇 년이 지났지만 아이를 갖지 못하자 수시로 대흥사의 은행나무를 찾아가 눈물을 훔치며 소원을 빌었다. 어느 날 새색시 꿈에 은행나무가 나타나더니 순식간에 친정어머니로 바뀌면서 갈라진 잎과 붙은 잎을 주었다. 그러고는 보름달이 뜨는 날 밤에 은행나무로 가서 떨어지는 잎을 꼭 잡아 보라는 말을 남기고 다시 은행나무로 변하였다. 새색시는 보름날에 꿈속에서 알려준 대로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을 잡아 보았더니 잎이 갈라져 있었다. 그 이후 아이를 갖게 되었고, 아들을 낳았다. 이러한 이야기가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하였다. 아이를 갖고 싶은 여인들은 모두 보름달이 뜨는 날마다 은행나무를 찾아가서 떨어지는 은행잎을 잡았다. 그때 갈라진 잎을 잡은 여인들은 아들을 낳고, 갈라지지 않은 잎을 잡은 여인들은 딸을 낳았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은행나무 앞에서 하소연하면 소원을 들어준다고 믿어 소원 성취를 빌거나 남모를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하였다. 그럴 때마다 은행나무는 꿈에 가족으로 나타나 위로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었다. 이 은행나무 인근에 비룡산이 있다. 등산객들로 붐비지는 않지만 아기자기한 산세가 좋다. 높지도 않아 가벼운 등산코스로 적당하다. 보호수 은행나무를 보는 즐거움도 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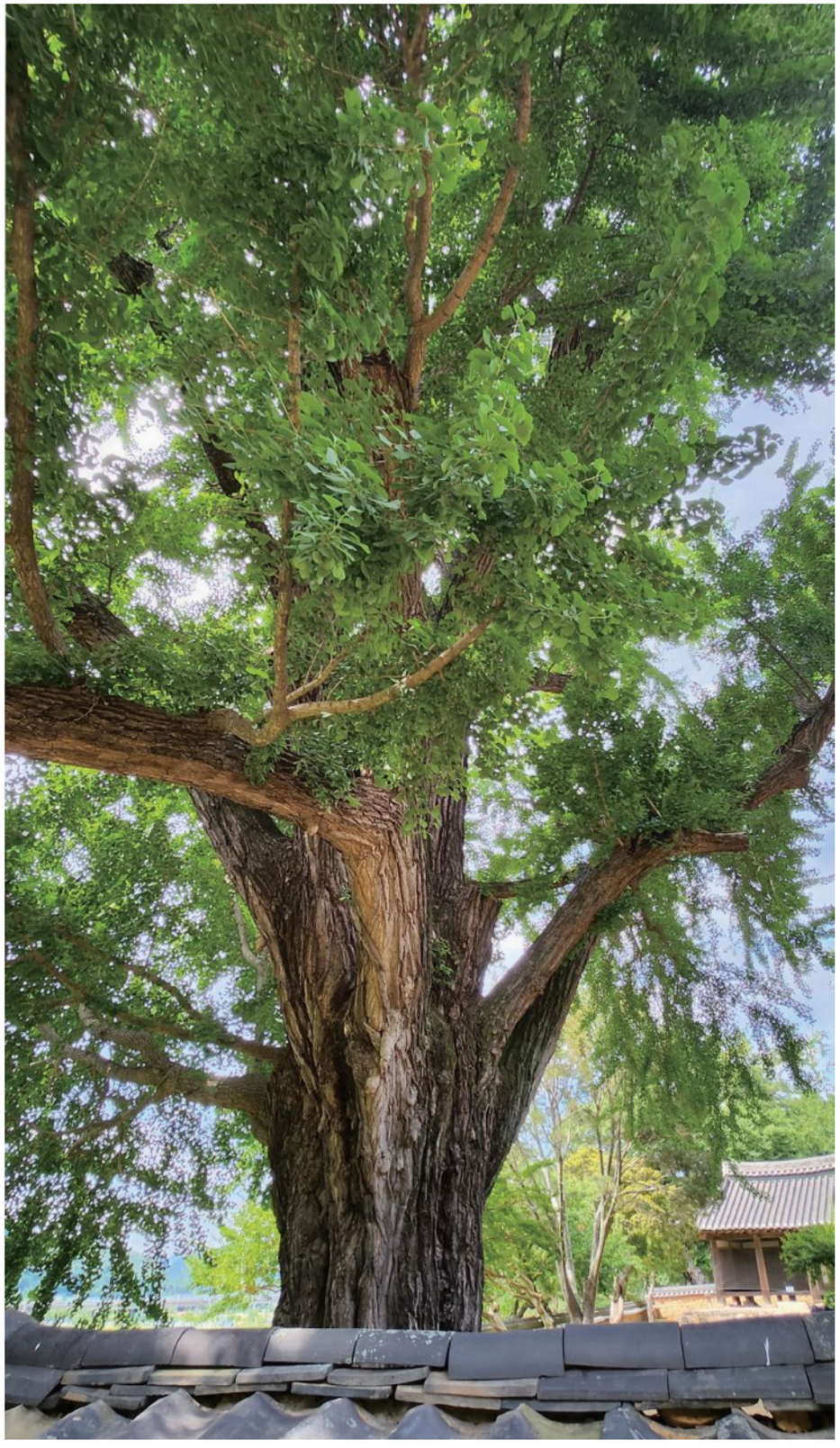
마을형성 초기에 입촌 기념으로 심은 팽나무

지정번호	김해-12-07-10
지정년도	2007
관리기관	김해
수령	410년
수고	14m
흉고둘레	4.3m

경남 김해시 한림면 금곡리 581-3
35° 20′ 38.40″ N
128° 49′ 13.43″ E

한림면 금곡리 본금곡마을 입구의 나무 군락(집단적이지 않음)은 한여름의 그 울창한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쉽게 잊지 못할 정도로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할 것이다. 금곡마을은 가야시대 야철장이 있었다고 하여 쇠실이라 부른다. 본금곡마을은 광주 노씨의 400년 세거지이다. 마을 이름의 뜻은 '금곡리의 중심'이다. 광주 노씨 문중이 이곳에 터를 잡은 것은 1600년대이다. 마을 입구의 나무 군락은 처음 이곳에 들어온 선조들이 입촌을 기념하여 여러 나무를 심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에 심은 나무는 상수리나무, 팽나무, 느티나무, 굴참나무, 회화나무 등이다. 지금은 여러 나무가 빽빽한 숲을 이루지 않고 있다. 나무나이가 400년 이상 된다는 이야기이다. 시골 마을의 이정표처럼 서 있는 보호수(김해-12-07-10) 팽나무는 평지의 길가 옆에 위치하고 있다. 나무나이가 410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나무높이는 14m, 가슴높이둘레 4.3m 정도이다. 원줄기는 높이 60cm 정도에서 2갈래로 갈라져 뻗어 있다. 하나의 가지 줄기는 45도 정도 기울기로 비스듬히 자라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 기울기 때문에 내습했던 태풍의 피해로부터 견딜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본금곡마을은 대눌 노상익(1849~1941)과 아우인 소눌 노상직(1855~1931) 형제 학자를 배출한 마을로도 유명하다. 대눌과 소눌 형제는 김해부사였던 성재 허전(1797~1886) 문하에서 수학했다. 대눌은 지조로, 소눌은 학문으로 이름이 높다. 마을 입구 바로 전에 소눌의 묘비가 있다. 마을 뒤에는 대눌이 망국의 한을 품은 채 말년을 보낸 '천산재'의 흔적과 대눌의 묘역이 있는 노씨 문중의 선산이 있다. 대눌은 천산재를 짓고, 천산재로 오르는 길에 도랑을 깊이 파서 사람들의 접근을 막았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두문불출했다.





경상지역

은행나무

별서(별장)를 지은 기념으로 심은 은행나무

지정번호	김해-12-07-10
지정년도	1982
관리기관	밀양
수령	460년
수고	22m
흉고둘레	5.1m

경남 밀양시 활성동 582-1
35° 29′ 14.02″ N
128° 47′ 01.58″ E

밀양강이 굽이치는 얕은 언덕 위에 심어진 보호수(밀양-12-13-2) 은행나무는 금시당 안쪽의 담벼락 옆에서 웅장하게 자라고 있다. 금시당은 조선 전기에 좌부승지를 지낸 이광진이 지은 별장이다. 은행나무의 나이는 460년으로 추정된다. 나무높이는 22m, 가슴높이둘레는 580cm 정도이다. 나무갓은 사방으로 너비가 16m 정도이다. 원줄기는 높이 3m 정도에서 6~7갈래로 갈라졌으며, 위쪽으로 향한 것과 옆으로 비스듬히 펼쳐진 것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 유주가 군데군데에 달려 있으며, 줄기 중간 위쪽에서 작은 가지들이 많이 갈라져 퍼진 모양이다. 높이 7m 정도까지 고사한 여러 개의 가지 줄기가 잘려 나간 곳이 있기도 하지만 생육상태가 양호하다. 담벼락과 함께 울타리가 경계하고 있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고택의 건립 및 수목 식재와 관련이 있다. 은행나무는 금시당의 집을 지은 이광진이 손수 심은 나무로 의미가 크다. 심은 시기는 언제인지 불분명하지만, 금시당을 창건하여 준공기념으로 심었다는 이야기가 일반적이다. 당시에 어느 정도 자란 은행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나무나이는 460년으로 추정된다. 밀양의 명소인 '금시당 백곡재'는 밀양강이 돌아나가는 경치가 좋은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명칭은 원래는 금시당과 백곡재를 따로 일컫는 것이다. 금시당은 조선 명종 때의 문신 이광진이 1566년에 지은 별서(농장이 나들이 있는 부근에 따로 지은 집)이며, 관직에서 은퇴 후 귀향하여 이곳에서 노년을 보냈다. 휴양하며 학문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금시당은 이광진의 호이기도 하며, 금시今是는 '지금이 옳다'는 뜻이다. 임진왜란 때 불에 타 소실되었지만, 5대손인 이지운이 1744년 복원을 하여 지금의 모습으로 남아 있으며, 1866년 크게 고쳐지었다. 백곡재는 금시당을 복원한 백곡 이지운을 추모하기 위하여 그 후손들이 1860년 새롭게 지은 건물이며, 금시당 동쪽 축대 위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현재 고목의 은행나무가 있는 명소로도 유명하지만 봄철에는 단아한 매실나무에서 피어나는 매화꽃이 아름다운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금시당은 후손인 여주 이씨 종중에서 소유하여 관리하고 있다.

타고 다닐 호랑이가 머무는 소나무

지정번호	창원-12-17-8-1
지정년도	1993
관리기관	창원
수령	410년
수고	9m
흉고둘레	3.4m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여양리 산 38
35° 10′ 44.46″ N
128° 22′ 47.00″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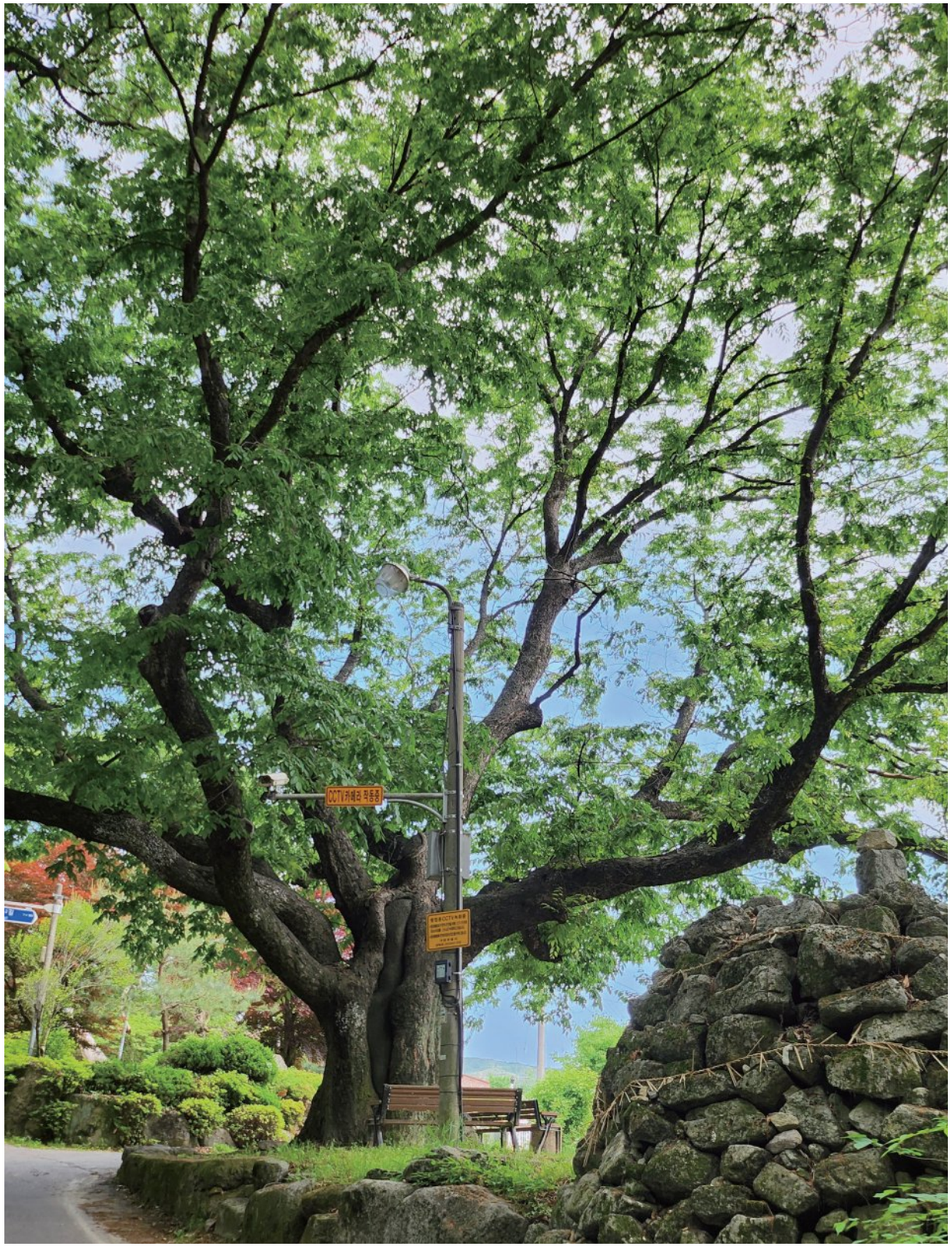


창원시 진전면 여양리는 여항양리의 축약된 이름이며, '여항'은 여향산(770m)을 지칭하는것으로 여향산 남쪽이 있는 마을을 뜻한다. 여양리는 여러 자연마을이 있으며, 그중 둔덕마을과 옥방마을의 규모가 큰 편이다. 여양리의 문화 유적은 보호수(창원-12-17-8-1)의 소나무이다. 이 소나무는 오곡재를 넘어 함안군 오곡리로 가는 길목인 진전천 상류지역의 옥방교를 지난 마을에 있다. 옥방마을 입구의 하천과 접한 산자락이다. 옥방마을은 보물이 묻혀 있는 광산촌이라는 뜻으로 옥방(玉方)이라 불렀다. 방석처럼 넓적한 이 소나무 뒤에는 처사춘산경수밀성박공묘비處士春山耕叟密城朴公墓碑가 세워져 있다. 여양리는 밀성 박씨가 많이 살고 있는 집성촌이다. 소나무의 수령은 410년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마을 사람들은 500여 년에서 800여 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밀성 박씨 종중에서 관리하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나무의 모양이 특이한 화목형花木形이라 하여 '꽃소나무'라 부른다. 또한 이 소나무는 그 모양이 특이하고 아름다워 6·25한국전쟁 때에 미군이 헬리콥터를 이용하여 가져가려다 실패했다는 말이 전하고 있다. 전설에 의하면 진전면 옥방마을에 거주하던 밀성 박씨의 선조들은 호랑이를 불러 타고 다녔다. 그들이 진주시 방면으로 오갈때면 이 소나무가 있는 곳을 지나가야만 했는데 그때 호랑이를 부르면 이 소나무가 호랑이를 맞이하였다. 목적지를 가거나 돌아올 때도 이 소나무가 호랑이를 맞이하였다가 산으로 되돌려 보냈다. 또한 이곳 주민들 사이에서 구전하는 것으로는 '이 소나무가 신선이 타고 오는 호랑이를 기다린다'고 하였는데, 이는 아마도 눈이 내려앉은 소나무를 멀리서 보았을 때에 마치 방석처럼 보이는 넓적한 소나무의 형태가 커다란 백호가 엎드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의미인 듯하다. 소나무 앞의 하천 쪽에는 독립가옥이 한 채가 있고, 그 옆에는 밀성 박씨의 옥산재가 있다. 옥산재의 출입문 위에는 '우러러 그리워한다'는 '앙지문仰止門'이라는 편액이 걸려 있다.

풍수역할 동호숲 끝에 있는 느티나무

지정번호 거창-12-00-23
지정년도 2000
관리기관 거창
수령 523년
수고 19m
흉고둘레 5.1m

경남 거창군 웅양면
동호1길 171-1
35° 47′ 58.14″ N
127° 55′ 23.22″ E



집단의 숲을 지난 동호마을 어귀에 있는 보호수(거창-12-00-23) 느티나무는 오래도록 살고 있는 여러 소나무와 조화롭게 자라고 있다. 느티나무의 나이는 523년으로 추정된다. 나무높이는 19m, 가슴높이둘레는 510cm, 밑동둘레는 694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20m 가량이다. 원줄기는 높이 2.5m 정도에서 여러 갈래로 갈라진 후 다시 작은 가지가 갈라져 퍼졌다. 생육상태는 양호하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동호숲'과 함께 신목으로 제를 지내는 것과 관련이 있다. 동호마을은 입구에 집단으로 자라는 소나무숲이 풍수역할을 한다. 동호마을은 형태가 곡식의 껍질을 골라내는 챙이(키)처럼 생겼는데, 남쪽은 챙이 끝이라서 재물이 날아가 버리는 형국이기에 이 재물을 가둘 목적으로 마을 입구에 소나무를 넓게 심었다. 또한 마을 밖에서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막아주며 마을 안의 좋은 기운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 마을의 안녕을 살펴주는 역할이다. 몇백 년 전에 마을 사람들이 심은 것이다. 이 소나무 숲이 바로 마을 이름을 따서 부른 동호숲이다. 동호숲을 걷다보면 숲 끝자락에 커다란 느티나무가 여기저기 자리하고, 보호수로 지정한 느티나무가 나타난다. 보호수로 지정한 느티나무 옆에는 돌무더기가 심상치 않은 모습의 성황단이 자리하고 있다. 돌무더기는 느티나무 가지가 펼쳐진 끝자락 아래에 있다. 고목의 느티나무와 돌을 쌓아 놓은 성황단은 무속신앙의 산신제를 올리는 곳이다.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음력 정월 대보름에 성황단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다. 성황단에서 발길을 돌리면 우뚝 솟은 서너 그루의 소나무 주위로 평평하게 잘 다듬어 놓은 성스러운 곳이라는 의미의 성대가 있다. 그 성대 아래로 작은 길이 이어져 마을까지 연결하고 있다. 옛 가옥이 있는 동호마을은 연안 이씨 집성촌이다.



나무를 자르려던 톱자국이 있는 느티나무

지정번호 거창-12-48
지정년도 1982
관리기관 거창
수령 1,043년
수고 24m
흉고둘레 6m

경남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837-1
35° 48′ 50.04″ N
127° 55′ 27.99″ E

석정마을에서 산포마을로 들어갈 때 맞이하는 보호수(거창-12-48) 느티나무는 마을의 앞, 즉 마을 입구 도로 옆에서 자라고 있다. 느티나무 옆에는 돌을 쌓고 정자를 세웠다고 해서 돌정이라 불렀다. 지금은 예전과 약간 달리 돌을 쌓아놓기만 하였으며 그 옆에 새롭게 정자를 지어놓았다. 석정마을 이름은 이 돌정에서 유래하고 있다. 느티나무의 나이는 1,043년으로 추정된다. 나무높이는 24m, 가슴높이둘레는 600cm, 밑동둘레가 785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23m 정도이다. 원줄기는 높이 3m 정도에서 굵은 가지가 여러 갈래로 갈라졌고, 그 위쪽에서 다시 가지줄기를 펼쳐 보기가 좋은 나무모양을 만들고 있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무단 벌목과 관련하고 있다. 산포리에는 원래 동쪽과 서쪽 양편에 큰 나무가 나란히 서 있었다. 동쪽의 것은 양수, 서쪽의 것은 음수라 불렀다. 일제강점기 때이다. 배를 만드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산림자원인 커다란 목재를 수탈하는 일이 있었다. 당시에 목재 수탈을 의뢰받은 탁씨 성을 가진 목수가 동쪽의 양수를 베고 난 뒤 며칠 만에 서쪽의 음수를 마저 베려고 하였다. 서쪽의 음수를 자를 때는 세 사람의 목수가 동원되었다. 목수들이 톱질을 시작하자마자 톱이 부러져 산산조각이 났다. 이에 목수들이 놀라 음수를 베어내지 못하고 떠났는데, 목수들은 그 후 몸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얼마 안 있어 죽었다. 탁씨 가족들은 이 마을에서 모두 떠나갔다. 현재 느티나무는 큰 상처 자국이 남아 있는데, 상처 자국은 당시에 나무를 자르려다가 멈춘 톱자국이다. 마을 주민들은 이 느티나무를 마을의 수호신으로 섬기고 있다. 느티나무가 있는 이곳은 예전에 정자 오른쪽의 쉼터가 더 높고 넓은 동산이었다. 여름이면 아이들이 동산 위에서 뛰어놀고 어른들은 넓은 나무 그늘에서 낮잠을 자며 쉬었던 곳이다. 지금은 느티나무가 있는 곳의 주변이 밭으로 변하여 있다.

젖꼭지 모양의 유주를 만든 은행나무

지정번호 고성-12-31
지정년도 1982
관리기관 고성
수령 838년
수고 35m
흉고둘레 8.5m

경남 고성군 대가면
척정리 1052
35° 02′ 31.02″ N
128° 17′ 40.00″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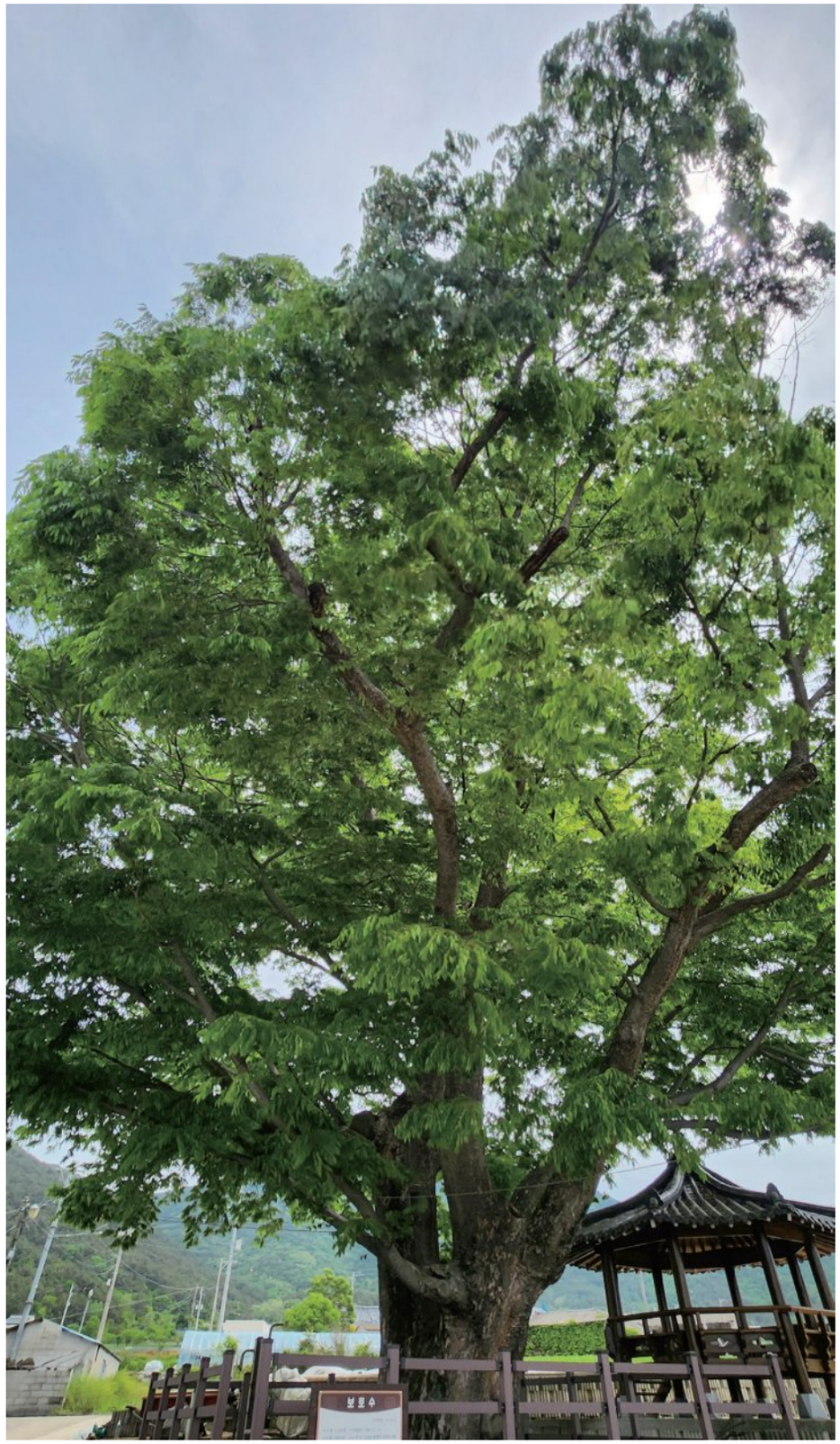
척정리 관동마을(또는 행정마을)에 있는 보호수(고성-12-31) 은행나무는 마을 뒷산의 언덕배기에서 크게 자라고 있다. 고목의 은행나무가 있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길가에 샘이 있다. 행은정杏隱井이다. 은행나무 뒤쪽에는 정자가 있었던 것 같은데, 행은정구杏隱亭舊라 쓴 표지석이 있다. 은행나무의 나이는 838년으로 추정되지만 여러 자료에서 400여 년으로 기록하고 있다. 마을 사람들도 나무나이를 800년 이상으로 알고 있다. 나무높이는 35m 정도, 가슴높이둘레는 850cm, 밑동둘레는 810cm 가량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24m 정도이다. 은행나무는 특별한 부분이 하나 있다. 낮은 곳에서 갈라진 가지에 유난히 발달한 유주乳柱이다. 유주는 여성의 젖꼭지 모양처럼 줄기의 일부가 돋아나는 것이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은행나무의 유주와 관련하고 있다. 옛날 이 마을에 시집온 이씨 부인이 첫딸을 잃은 후 은행나무를 찾아 100일째 치성 끝에 그렇게 바라던 아이를 얻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다. 그렇지만 부인은 아이에게 먹일 젖이 나오지 않아 시어머니의 미움을 사게 되자 은행나무에 목을 매어 죽고 말았다. 은행나무는 이씨 부인이 목을 맨 순간에 그 가지가 아래로 처지면서 마구 흔들렸다. 그리고 그 순간은 천둥과 번개를 요란하게 치며 세차게 비를 뿌렸다. 다음날에는 은행나무 가지에서 볼록하게 생겨 젖꼭지 모양을 한 것이 여기저기에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은행나무 유주였다. 지금도 여러 유주를 달고 있는 가지는 사람 키 높이 아래에서 옆으로 뻗어 있다. 시어머니는 이 유주를 잘라 나온 즙액을 받아 손자에게 먹여 키웠다. 예전에는 유주의 모양 때문에 젖이 나오지 않는 산모나 득남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 100일 기도하는 모습이 종종 목격되기도 하였다. 이 은행나무는 유주를 베어 달여 먹으면 젖이 잘 나온다는 설 때문에 많이 잘려 나가기도 하였다.

7대손 아들을 낳게 해준 느티나무

지정번호	고성-12-20-6
지정년도	1982
관리기관	고성
수령	538년
수고	35m
흉고둘레	6.2m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곡리 566
35°01′26.88″N
128°23′54.18″E

내곡리 자연마을의 남촌마을에 있는 보호수(고성-12-20-6) 느티나무는 인가와 밭과 개울 주변에서 높게 자라고 있다. 내곡리는 남촌마을과 북촌마을이 있다. 느티나무의 나이는 538년으로 추정된다. 나무높이는 35m, 가슴높둘레는 620cm, 밑동둘레는 710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24m 가량이다. 원줄기는 사람 키 높이 정도에서 2갈래로 갈라졌으며, 다시 높이 2~5m에서 몇 개의 가지줄기가 갈라진 후 퍼져 나무모양을 만들고 있다. 생육상태는 매우 좋은 편이다. 300여 년 전의 일이다. 이 마을 김씨 집안에 7대 독자가 있었는데, 그 집 며느리로 들어온 박씨 여인이 나이 40이 되도록 아기를 낳지 못하였다. 김씨 집안에서는 박씨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하자 대가 끊긴다고 야단이었다. 박씨 여인은 쫓겨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자 박씨 여인은 여러 지역의 사찰을 찾아다니며 자식 하나 점지해 달라고 불공을 드리고 백일기도를 하는 등 모든 정성을 다하였다. 그렇지만 자식을 얻지 못하였다. 어느 날 박씨 여인은 다른 날과 같이 목욕을 깨끗이 하고 이 마을에 있는 고목의 느티나무 밑에서 백일기도에 들어갔다. 기도의 마지막 백일이 되는 날이었다. 갑자기 눈앞이 환해지면서 흰빛 수염에다 흰빛 장삼을 걸친 백발노인이 나타나서 정성이 대단하여 소원을 풀어줄 것이라 말한 후 홀연히 사라졌다. 편안히 몸을 보살피도록 하라는 말도 하였다. 부인은 깜짝 놀라 꿈이 아닌 것을 깨닫고서 그날부터 궂은 일은 삼가고 몸조리를 잘하고 있는데, 몇 개월 후 아기를 갖게 되어 옥동자를 낳았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있거나 소원이 있으면 이 느티나무 밑에서 기도를 드렸다. 이것이 유래되어 지금은 마을에서 동제를 지내고 있다. 정월 초하룻날이면 마을 사람들이 깨끗이 목욕을 하고서 제각기 소원을 기원하고 있다. 자신의 집에서 동제를 지낸다는 바로 앞집의 중년 부인은 마음이 불안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집안일이 잘 안 풀릴 때에 이 느티나무에 기도드리며 위안을 찾는다고 하였다.





경상지역

팽나무

이순신 내륙 행차 때 쉼터였던 팽나무

지정번호	합천-12-04-41
지정년도	2004
관리기관	합천
수령	551년
수고	30m
흉고둘레	6.2m

경남 합천군 삼가면
두모리 442
35°24′49.00″N
128°05′44.22″E

크게 자란 느티나무와 나란히 있는 보호수(합천-12-04-41) 팽나무는 마을 앞의 갈림길 모퉁이에서 잘 자라고 있다. 쉼터의 자리도 넓게 조성되어 있다. 팽나무의 나이는 551년이지만 마을 주민들은 그 이상을 살고 있다고 말하였다. 나무높이는 30m, 가슴높이둘레는 620cm, 밑동둘레는 830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25m 가량이다. 원줄기는 2.5m 높이에서 큰 가지가 몇 갈래로 갈라져 위로 향하고 있으며, 느티나무 쪽으로 뻗은 가지는 겹쳐 자라고 있다. 생육상태는 양호하다. 멀리서 보면 2그루의 다른 나무가 하나의 나무로 보인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이순신 장군의 흔적을 엿보는 것이다. 주로 바다에서 싸운 장군이 내륙의 오지를 지나갈 때 잠시 머물렀던 이야기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였다. 이순신 장군이 도원수인 권율 장군을 만나러 가던 길이었다. 가는 도중에 시간이 오후로 접어들자 목적지로 가는 길이 너무 멀어 잠시 쉬어 가기로 하였다. 이순신 장군의 일행은 팽나무 아래에서 휴식을 취한 후 하룻밤을 마을에서 지냈다. 당시에 이순신 장군의 애민정신이 잘 나타나는 일화가 있다. 장군은 마을에 머물면서 시종에게 말하였다. 쌀밥은 지을 때는 쌀이 부족한 이곳 삼가면의 쌀로 밥을 짓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그런데 장군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시종들이 이곳의 쌀로 밥을 지어 먹었다는 소리를 들었다. 장군은 이 말을 듣고 시종들을 매질하고 쌀을 되갚아 주었다. 예전에는 이순신 장군이 이 쉼터에서 쉬어갔다는 안내판이 있었으나 지금은 이런 이야기가 있는 표지판이 없다. 팽나무는 마을의 정자목이며 당산목이다. 바로 인접하여 자라는 커다란 느티나무도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다. 쉼터의 그늘은 팽나무와 느티나무의 나무갓이 맞닿아 있어 매우 넓은 편이다.



경상지역

느티나무

대학자 남명 조식의 유적을 지킨 느티나무

지정번호	합천-12-2-9
지정년도	2002
관리기관	합천
수령	460년
수고	27m, 27m
흉고둘레	5.7m, 4m

경남 합천군 삼가면
외토리 1374
35° 22′ 51.00″ N
128° 06′ 14.00″ E

2그루인지 1그루인지를 구별하기 어려운 보호수(합천-12-2-9) 느티나무는 의령군에서 합천군으로 건너는 '남명교' 다리 근처의 도로 옆에 자라고 있다. 느티나무의 나이는 460년으로 추정된다. 나무높이는 2그루(임의로 2개체 판단) 모두 27m, 하나의 가슴높이둘레는 570cm, 밑동둘레는 745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15m 정도이다. 다른 하나의 가슴높이둘레는 400cm, 밑동둘레는 590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14m가량이다. 원줄기는 각각 높이 3m 정도에서 여러 개로 갈라져 위로 향하고 있다. 2그루는 합쳐지는 가운데보다 그렇지 않는 바깥으로 가지를 쳐서 나무모양을 만들고 있다. 생육상태는 양호하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잘 알려진 것이 없으나 조선 중기 영남학파의 남명 조식과 관련한 것 등이 있다. 조식은 조선 중기의 큰 학자이었으며, 여러 차례 관직이 내려졌으나 한 번도 부임하지 않았고, 현실과 실천을 중시하며 비판정신이 투철한 학풍을 수립하였다. 조식은 지금의 외토리 토동에서 태어났다. 5살에 고향을 떠난 조식은 한양 생활을 거쳐 30세부터 처가가 있는 김해에서 살다가 48세 때인 1549년 이곳의 양천강변에 뇌룡정을 짓고 학문을 연구하며 제자들을 가르쳤다. 조식은 61세에 지리산 아래 산청군 덕산으로 옮겨 산천재를 짓고 말년을 보냈다. 따라서 남명교에서 도로를 따라 200m 정도의 거리에 위치한 느티나무는 조식이 어렸을때에 멋모르게 놀던 곳이고, 48세부터 환갑까지 제자들과 함께, 정신적 지주이면서 쉼터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느티나무 옆에는 본가와 생가를 잇는 주요도로를 '남명로'라고 이름하고 있다는 표지판이 있고, 조식의 영독수咏獨樹(홀로 선 나무를 읊다) 시비가 있다. 또한 느티나무 바로 옆 길가에는 외토리 쌍비가 있다. 비각 안에 효자비와 백비가 나란히 서 있어 쌍비로 불리는데, 오른쪽 비는 글씨를 볼 수 없어 백비라 부른다. 고려 말 벼슬을 그만두고 낙향한 이온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세운 효자비다. 이온은 조식 선생의 외가인 인천 이씨 가문이다. 쌍비 앞에 서있으니 남명선생을 기리는 뇌룡정과 용암서원이 손에 잡힐 듯 가깝다.

Chapter 6

제주지역

제주도

제주지역의 수종별 보호수 찾기

1 제주생활 타케 신부가 심은 **녹나무** 제주도 서귀포시 지장샘로 19 p. 234

2 도로 한가운데 자라는 풍치목의 **후박나무**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1293 p. 236

3 당산나무이며 궤네기당 신목의 **팽나무**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2121 p. 238

4 고향 찾은 효자가 선물받아 심은 **은행나무** 제주도 제주시 한림읍 월계로 109-3 p. 240





제주지역

녹나무

제주생활 타케 신부가 심은 녹나무

지정번호	제주-13-2-8-12
지정년도	1994
관리기관	서귀포
수령	238년
수고	19m
흉고둘레	4m(곧은 줄기)

제주도 서귀포시 지장샘로 19
33° 15′ 58.18″ N
127° 00′ 16.35″ E

서홍리 지정 '서홍팔경'의 하나인 보호수(제주-13-2-8-12) 녹나무는 제주도의 3번째 성당인 홍로본당이 있던 곳의 앞뜰에 자라고 있다. 녹나무의 나이는 238년으로 추정된다. 나무높이는 19m, 가슴높이둘레(곧은 줄기)는 400cm 정도이다. 원줄기는 하늘 높이 자라고 있다. 생육상태는 양호하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에밀 타케(Emile J. Taquet, 한국명 엄택기, 1873~1952) 신부와 관련하고 있다. 그 전래 중에는 천주교 복자수도원(현 면형의 집) 앞뜰에 있는 녹나무를 에밀 타케 신부가 심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녹나무를 '에밀 타케 녹나무'라고 부르고 있다. 타케 신부가 성당 건물을 짓고 정원을 만들 때 한라산 산록 야산지대에 자생하는 녹나무 중관상이 좋은 수종을 선택하여 기념식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면형의 집은 원래 1902년 7월 타케 신부가 설립하였던 홍로본당이 있었다. '면형麵形'은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의 영성 용어인 '면형무아麵形無我'에서 온 것으로 성체를 뜻한다. 이 성당은 1937년에 현재의 서귀포 성당으로 이전하여 공소가 되었다가 한국복자수도원에서 피정센터로 운영하고 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다. 면형의 집은 6·25한국전쟁 때 서울에 있던 대신학교 학생들의 피난처교가 되기도 하였는데, 당시 신학생이었던 김수환 추기경 등 신학생들이 야간에 무장대의 습격 총소리를 듣고 이 녹나무에 올라가 피난하였다. 에밀 타케 신부는 프랑스 출신으로 24세에 사제 서품을 받고 한 달 만에 한국으로 파견되어 1898년 서울에 도착하였고, 1902년 서귀포 하논성당 주임신부로 부임하면서 제주도와 인연을 맺었다. 타케 신부는 1952년 선종할 때까지 고향에 돌아가지도 않은 채 제주도에서 선교사업과 식물채집(선교자금 이용 목적)에만 몰두하였다. 타케 신부는 1902년에 집 한 채를 사서 이 집을 사제관과 성당으로 개조한 뒤 1915년까지 사목하면서 본당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타케 신부는 식물 채집에 관심이 많아 왕벚나무 등 7,000종이 넘는 여러 식물을 유럽학계에 알렸고, 일본의 포리 신부에게 온주밀감 14그루를 1911년에 받아서 서홍동 주민들에게 재배를 장려하였다. 최초 도입 감귤(온주밀감) 중 마지막 한그루는 108년을 살고 2019년에 고사하여 면형의 집 입구에 전시되고 있다.

제주지역

후박나무

도로 한가운데 자라는 풍치목의 후박나무

지정번호	제주-13-4-6
지정년도	1982
관리기관	서귀포
수령	456년
수고	13m
흉고둘레	5m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1293

33°26′56.09″N
126°52′51.57″E



제주도 수산리 마을은 2곳이다. 서북쪽의 애월읍 수산리와 동쪽의 성산읍 수산리이다. 보호수의 후박나무가 위치한 곳은 성산읍 수산리이다. 수산리는 고려 시대에 말을 방목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사람이 본격적으로 살기 시작한 것은 1300년대 초로 추정한다. 보호수 후박나무는 수산초등학교 서북쪽의 일반 도로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다. 만약 도로가 다른 한쪽으로 건설되었다면 이 후박나무는 마을 주민에게 쉼터의 그늘이 되는 정자목의 역할을 하는 나무가 되었을 것이다. 이 후박나무는 풍치목의 역할을 하고 있다. 나무나이는 456년이다. 나무높이는 13m, 가슴높이둘레 500cm 정도이다. 줄기 밑동의 일부는 썩은 부분을 치료하여 다시 썩지 않도록 충전제로 채워놓았다. 가지는 넓게 퍼져 있다. 도로 한가운데서 오랜 세월 동안 태풍에 가지가 여러 차례 꺾여 나갔는데도 넓게 펼친 가지에 잎을 달고 있는 모습이 대단해 보였다. 길 건너에서 부채꼴의 나무 모양으로 볼 때가 가장 아름답게 보인다. 나무 밑동에서 동쪽과 서쪽으로 뻗은 줄기는 본래의 가지가 아니라 새로 돋아난 어린나무이다. 마을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나무가 늙어서 기둥 아래쪽이 썩어 구멍이 뚫렸는데, 그곳에 씨앗이 떨어져 싹이 나서 자랐다는 것이다. 후박나무는 껍질을 생약재로 쓴다.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이 나무껍질을 수확하지 않지만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소흑산도(가거도)에서 생산이 많았다. 예전에는 생약으로 이용하기 위해서인지 이 보호수의 껍질이 몰래 벗겨지는 일도 있었다. 이와 관련한 재미있는 이야기도 전한다. 어느 해 태풍에 큰 나뭇가지가 잘려나갔다. 동네의 어느 어르신은 행정기관의 보호수 관리자에게 가지가 잘린 사실을 알리고, 동네에서 말끔하게 처리해도 되는지를 문의하였다. 그러자 잘린 가지는 동네에서 적절하게 처리해도 된다는 담당 공직자의 대답을 받았다. 그 후 동네 어르신이 시내의 한약 재료상에 연락하자 상인이 와서 보고 그 나뭇가지를 현금으로 사고 갔단다.

제주지역

팽나무

당산나무이며 궤네기당 신목의 팽나무

지정번호	제주-13-3-5
지정년도	1982
관리기관	제주
수령	360년
수고	14m
흉고둘레	4m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2121

33° 32′ 55.66″ N
126° 45′ 08.91″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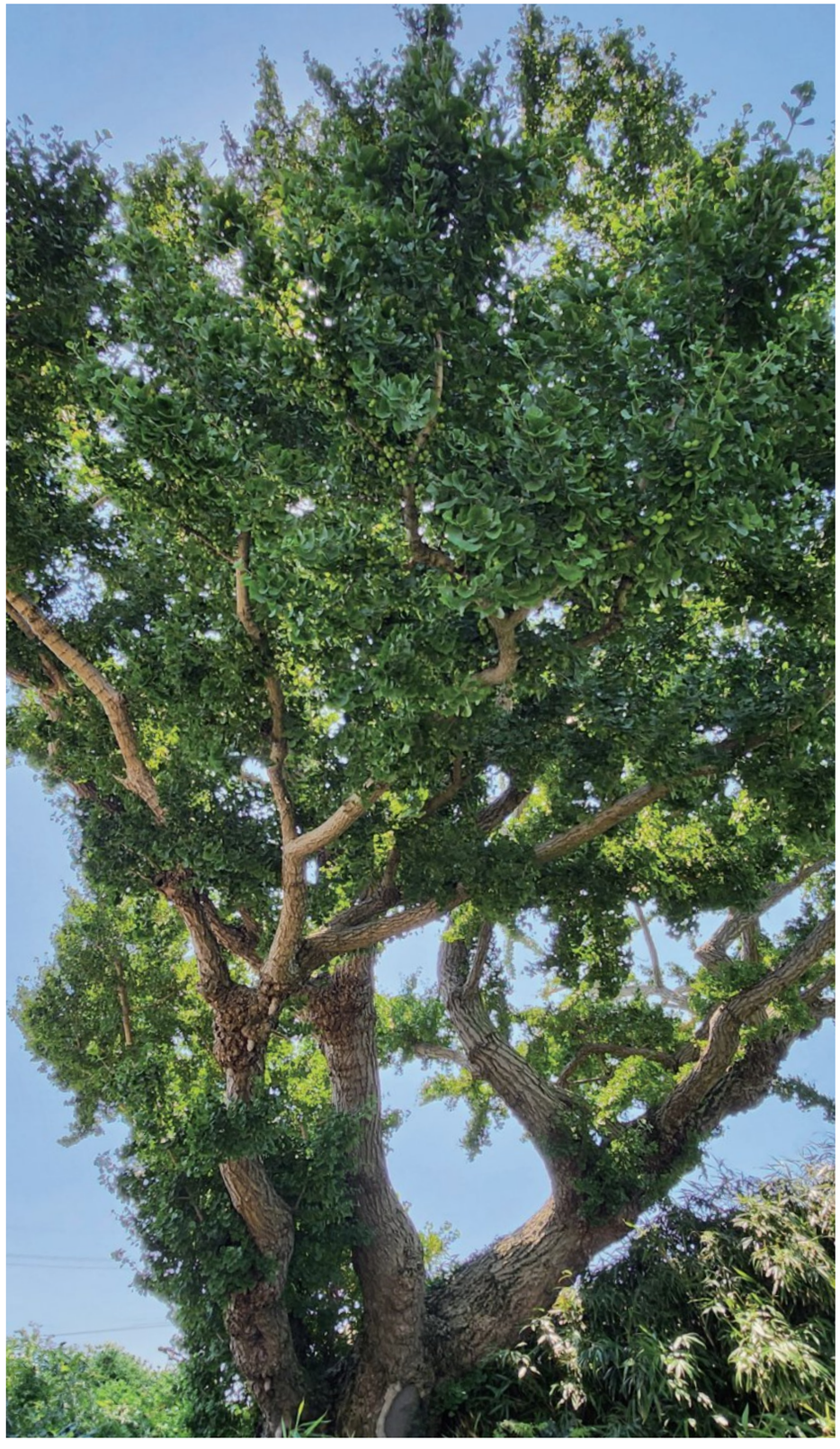
당산나무(당산목)의 신목인 보호수(제주-13-3-5) 팽나무는 작은 동굴을 지키듯이 입구에서 전체를 감싸는 형태로 자라고 있다. 주변은 마을길이 지난 곳에서 볼 수 있으며, 사방으로 밭이 둘러싸고 있다. 팽나무의 나이는 360년으로 추정된다. 마을 주민들은 나무나이가 400년 이상이라 말하고 있다. 나무높이는 14m, 가슴높이둘레는 400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17m 정도이다. 원줄기는 야지의 비탈면에 있어서인지 약간 비스듬한 편이며, 높이 3.5m 정도에서 5~6 갈래로 크게 갈라진 후 다시 여러 개의 가지줄기를 내어 옆으로 퍼져 있다. 밭쪽으로 넓게 퍼진 가지 줄기는 철 받침대를 받치고 있다. 생육상태는 양호하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마을 수호신과 관련이 있다. 동굴 입구에 자리하고 있는 고목의 팽나무는 무속 신앙의 기능을 하였다. 팽나무는 마을을 지키는 신령스런 신의 '궤네기또'가 좌정한 신당이라는 의미에서 '궤네기당'이라 부르며, 팽나무가 덮고 있는 동굴은 '궤네기동굴'이라 부른다. 궤네기동굴은 하나로마트 바로 인근에 있고, 김녕중학교 북쪽 400m 지점에 있으며, 반달돌칼 등 기원전 5세기에서 1세기 사이의 유물이 발견되어 문화유적으로 지정되었다. 초기 철기시대에 이 굴에 사람이 살았음을 알 수 있다. 제주도 무당의 본풀이에도 이 마을 최초의 정착지는 궤네기동굴이라 되어 있다. 이 마을의 정착 역사가 궤네기동굴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궤네기동굴은 2방향으로 입구가 나 있고, 전체 길이는 500m에 달한다. 주민들은 궤네기굴 입구가 4곳이라고 말한다. 팽나무 아래에서는 조선시대에 '돗제'라는 제사가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있는데, 돗제는 제사를 지낼 때 통돼지를 잡아서 올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최근까지 신당으로의 역할을 하던 장소이다. 신당이 폐쇄된 후에는 궤네기당으로 부르지 않고, 궤네기동굴로 부른다.

고향 찾은 효자가 선물받아 심은 은행나무

지정번호 제주-13-3-1-8-5
지정년도 1982
관리기관 제주
수령 150년
수고 14m
흉고둘레 4.3m

제주도 제주시 한림읍 월계로 109-3
33° 23′ 49.12″ N
126° 15′ 38.60″ E

제주도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보호수(제주-13-3-1-8-5) 은행나무는 마을의 집과 담벼락 사이에 자라고 있다. 이 은행나무는 온난한 지역에 자라고 있어 육지 내륙의 것과 달리 잎이 샛노랗게 물들기 전에 떨어지는 특징이 있다. 즉 은행나무 특유의 아름다운 단풍이 아니라는 뜻이다. 은행나무의 나이는 150년으로 추정되며, 보호수 은행나무 중 나무나이가 적은 편에 속하지만 제주도에서 고목의 희귀성이 인정되는 나무이다. 나무높이는 14m, 가슴높이둘레(가장 큰 줄기)는 430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13m 정도이고, 부채처럼 반원형을 그리며 사방으로 펼쳐져 있다. 원줄기는 밑동에서 큰 줄기가 동쪽으로 기울어졌으며, 이 줄기에서 3개의 가지 줄기가 수직방향으로 하늘을 향하여 뻗어 있다. 줄기 동쪽 부분에는 종유석처럼 생긴 혹이 몇 개 달려있다. 줄기 밑동은 돌무더기에 약간 묻혀 있으며, 약간의 충전재 처리의 외과수술 흔적이 있다. 생육상태는 좋지 않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은행나무 식재와 관련이 있다. 명월진 수군만호(무관)를 지냈던 김기반은 유배인의 심부름으로 한양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 들고 간 서신을 뜯어보지 말라는 명을 받고 출발하였다. 김기반은 내용이 궁금하였으나 명을 어기지 않고 한양까지 편지를 잘 전달하였다. 서신(편지)은 말미에 '만일 이 편지가 개봉되지 않은 채 무사히 이 판사 대감에게 전달되면 내가 보낸 사람에게 벼슬 한자리를 내려주라' 는 청탁의 글이 있었다. 이 편지를 받은 이판사(이학수)는 김기반을 신뢰하여 강원도 군관으로 근무하도록 조치하였는데, 근무하던 중 제주도 고향의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내려왔다. 이에 이판사는 효심이 가득한 김기반에게 은행나무 두 그루(암수 각각 한 그루씩)를 선물로 주었다. 김기반은 한 그루의 암나무를 집출 입구에 심고, 다른 한 그루의 수그루는 행방이 묘연하다. 또 다른 이야기는 140여 년 전에 조선시대 무관을 지냈던 김기반(1832년생)이 육지에서 씨를 받아와 심은 것이라고 전한다.



참고문헌

보고서

국립문학재연구소. 2008. 천연기념물 및 시도기념물 노거수 실태 비교.분석을 통한 지정기준 연구.
내무부. 1967. 노거수 및 자연식물군락지 보호관리요령.
내무부. 1972. 보호수지.
문화재청. 2003. 마을숲 문화재 자원조사 연구보고서.
문화재청. 2007. 마을숲 문화재 자원조사 평가서.
문화재청. 2008. 주요 수종별 우수 노거수 천연기념물 지정조사.
산림청. 1984. 보호수지.
산림청. 2007. 보호수의 보전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
산림청. 2008. 전국의 보호수 보전 관리방안 수립에 대한 연구 용역.
산림청. 2016. 보호수를 활용한 공공데이터 서비스 제고방안 연구.

단행본(서적)

강판권, 김종원. 2007. 마을숲과 참살이. 계명대학교출판부
강판권. 2010. 역사와 문화로 읽는 나무사전. 글항아리
경상남도. 2022. 경남 보호수 300선
경상북도. 2004. 산과 숲 나무에 얽힌 고향 이야기
경상북도. 2021. 경북의 보호수. (사)한국지역인문자원연구소
고규홍. 2003. 이 땅의 큰나무. 눌와
고규홍. 2010. 느티나무. 다산기획
고규홍. 2010. 소나무. 다산기획
고규홍. 2010. 은행나무. 다산기획
고규홍. 2010. 행복한 나무여행. 터치아트
김동근. 2015. 노거수. 문장21
김학범. 1994. 마을숲. 열화당
김한하. 2011. 나무 할머니의 옛날이야기(전주시 보호수 스토리텔링). 신아출판사
대구시. 2015. 대구의 보호수.
박병출. 2008. 김해의 노거수 이야기. 작가마을
박상진. 2004. 역사가 새겨진 나무이야기. 김영사
박상진. 2009. 우리 문화재 나무 답사기. 왕의서재
산림청. 2016. 이야기가 있는 보호수
서울시. 2014. 사연이 있는 나무이야기.
서정호, 조계중. 2010. 지리산권의 큰 나무. 디자인흐름
송홍선. 1996. 풀꽃나무 타령. 문학풍경
송홍선. 1996. 한국의 나무문화. 문예산책
송홍선. 2003. 제주자생 상록수도감. 풀꽃나무
송홍선. 2004. 인천식물도감. 풀꽃나무
송홍선. 2004. 한반도자생 상록활엽수도감. 풀꽃나무
송홍선. 2009. 식물생태학. 풀꽃나무
수원시. 2019. 수원의 오래된 나무 이야기.
순창문화원. 2011. 순창군 보호수 유래 및 설화.
이봉섭. 1993. 한국의 명목. 경향신문사출판제작국
이지용. 2011. 우리 곁의 노거수. 아이컴
이창복. 2006. 원색 대한식물도감. 향문사
장은재, 김종원. 2007. 노거수 생태와 문화(노거수 100선 생태기행). 월드사이언스
전의식, 오병훈, 송홍선. 2008. 서울나무도감. 풀꽃나무
조병진. 2014. 사람과 더불어 사는 우리 고장의 명목. 씨앗북스
조현제, 이창배. 2010. 우리숲 큰나무(제주도). 산림청 녹색사업단
포천시. 2012. 포천시 보호수 실태.
하동군지편찬위원회. 1996. 하동군지.

논문

강기래. 2012. 보호수 지정 및 관리를 위한 남해안 지역 산림문화자산 실태조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0(2) : 28–36.
강방훈, 조승진, 손진관, 김미희. 2011. 예산군 보호수 실태조사를 통한 효율적 관리방안제언. 한국농촌계획학회지 17(3) : 67–80.
김용수, 임원현, 노정화, 윤영환. 1996. 노거수목의 보호와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14(2) : 14–18.
김우태. 1999. 노거수의 실태 및 보전대책.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재생. 1983. 경남지역의 보호수와 그 전설에 대한 조사연구. 경남문화연구소보.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소 6 : 43–61.
김태권. 2023. 보호수 연계 지역 이야기 자원 발굴을 위한 AI 사유思惟 활용 방안 연구. 우리문학연구 80: 325–365.
김혜란. 2010. 강원도 보호수의 현황 및 관리실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류장영. 2012. 경상북도 및 의성군 보호수의 관리 실태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종익. 2010. 대전의 신목(神木) 현황과 보존을 위한 제언. 대전문화 19 : 269–287.
박찬열. 2007. 마을숲의 현황과 분류. 국립산림과학원 자료 192 : 4–5.
송홍선. 2019년. 보호수. 산림문화전집 발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심근정, 강신용, 김수봉, 김용수. 1999. 농촌지역 노거수의 변천과정과 보전대책–경남 합천군을 대상으로. 환경과학논집 4(1) : 79–95.
심우경. 1991. 한국 보호수의 상징적 가치와 보호대책. 한국정원학회지 9(1) : 91–104.
우장명, 반기민. 2010. 충북지역 마을숲 관리 실태와 활용방안. 지역정책연구 21(2) : 165–184.
유주한, 박경훈, 이영한. 2011. 창원시 보호수의 분포현황과 실태진단.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9(1) : 59–70.
이삼옥, 김충식, 이재용. 2024. 보호수 관리를 위한 조사 및 평가 기준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42(1) : 46–66.
이승제. 2004. 활력도 및 생육환경 분석을 통한 노거수 관리방안.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임동옥, 제갈은기. 2011. 광주광역시 노거수의 분포 및 생육현황. 한국환경생태학회지 25(5) : 736–746.
임의제. 2012. 경상남도 남해안 마을숲의 문화경관 특성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0(3) : 29–41.
임혁성. 2005. 노거수의 문화경관 가치와 조경적 활용.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종수. 2007. 노거수 외과수술 실태 및 보존 관리방안.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재영. 2014. 경주지역 동해안 해변마을 마을숲 및 노거수 잔존형태와 보존대책. 경주문화논총 17 : 199–220.
허윤경. 2001. 보호수 DB구축 및 유지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인터넷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www.nature.go.kr)
국가유산청(www.khs.go.kr)
국가유산포털(www.heritage.go.kr)
산림청(www.forest.go.kr)
전국보호수표준데이터(www.data.go.kr/data/15013194/standard.do)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www.grandculture.net)

기타

각 시군 문화원 인터넷사이트
매스컴(신문, 인터넷, 볼로그, 카페 등) 소개 자료
현장 안내판 설명자료
현장 조사 인터뷰자료

이야기가 있는 보호수 2

The Stories of Veteran Trees 2

발행일 2024년 12월
발행처 산림청
발행인 산림청장
문의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042-481-8819

연구기관 (사)자연생태교육연구소
031-222-3063
연구참여 송홍선(책임연구원), 정신우, 이환성, 이승현, 김수진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이 책의 내용과 사진 저작권에 대한 문의는 산림청 및 (사)자연생태교육연구소로 해주십시오.
이 책의 오류는 독자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